

PLAYBOY

ENTERTAINMENT FOR ALL

MARCH 2018 | KOREA

PLAYMATE
OF
THE
MONTH

다영

INTERVIEW
CLASSIC

THE BEATLES

1965년,
세계를 평정한
20대의 비틀스가
내다본 미래

PLAYBOY
INTERVIEW
앗싸 성기완

20Q
성우 강수진의 표정

FICTION
리슬 실링거의
단편소설

<SUPERCOPS>

THIS
MONTH IN SEX
이달의
섹스 이슈

정가 7,500원



9 772586 094001

ISSN 2586-0941

WWW.PLAYBOYKOREA.COM



"비아모노는 VIA(~경유하여)+MONO(~단일의, 단품의)의 합성어로
가방이라는 단품을 통해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www.viamonoh.com



DIA TRAVEL BAG

VIAMONOH



PLEASURE PLEASE

근사한 카페에 앉아 있는데 문득 참 ‘열심히’ 앉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술이 흥건한 파티장에서 도 별반 다르지 않게 참 ‘열심히’ 마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다 취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열심히 긁고, 밥상 위의 생선도 열심히 뜯고, 가끔 침대 위에서도 열심히 물어뜯고, 야근과 출근을 반복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웬지 이렇게 ‘열심히’ 꼭 채우고도 비어 있는 삶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취향대로 저녁 메뉴를 고르듯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고 때로 사랑에 빠지는 일이 마치 굉장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듯싶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텅 빈 지갑은 연인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니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고, 시대가 원하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느라 스스로 자유를 박탈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저 물질적인 ‘일의 성과’나 ‘소비하는 자유’에 불과하다면, 고작 자본주의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이 삶은 얼마나 공허한가요?

푸른 경치가 끝내주는 어느 정자에서 한바탕 놀이판이 벌어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 모여 온갖 귀한 술을 따라 마시며 시를 짓고 글씨 자랑을 하더니, 취기에 달아오르자 피꼬리 같은 미희들과 함께 밤새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편, 환한 달빛을 벗 삼은 선비가 홀로 초당에 앉아 술 한잔으로 은근한 흥취를 돋우고 거문고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시를 읊조리는데, 이는 여럿이 어울리는 놀이보다 더 멋스러운 풍취가 돋보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많은 시문과 그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정경을 소위 ‘풍류’라고 합니다. 바람 ‘풍(風)’자와 물흐름 ‘유(流)’자가 합쳐진 풍류는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멋을 품은 고상한 유희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뿌리 깊은 한국 고유의 기품 있는 정서는 현대사회의 소비중심적인 알량한 유희문화로만 남겨진 듯합니다.

움을 줄 아는 시 한 소절이 없고, 다름 줄 아는 악기 하나가 없고, 자연을 멀리하거나 술 한잔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삶은 제법 놀 줄 안다고 한들 현실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안주하기 급급해 풍류가 선사하는 마음과 소리의 교류, 한가로운 감정의 여유, 그 광활한 우주의 세계에 닿아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잘 노는 일, 어쩌면 풍류야말로 지금 우리 삶에 가장 절실한 플레저가 아닐까요? 제가 정의하는 ‘플레이보이’는 여색에 빠진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좋은 취향과 안목을 가지고 시(詩)·서(書)·금(琴)·주(酒)로 멋스럽게 노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환한 달이 뜨면 그리운 친구 한 명은 떠오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플레이보이〉는 풍류의 세계를 제안하는 매거진입니다. 우리가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의 주옥같은 단편소설을 읽고, 실력 있는 음악가들을 만나고, 좋은 경치를 찾아다니거나 귀한 술과 요리를 선보이고,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 풍류에 깃든 멋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오래전 어느 단편소설집에서 “우리는 젊고 가난했지만 햇볕은 공짜였다”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햇볕은 공짜라니, 어린 나이에 그 문장이 너무 근사하고 감사해 밑줄을 몇 번이나 쳤던 기억이 납니다. 공허한 삶을 채워주는 햇볕 혹은 달빛은 얼마나 고마운가요? 영혼을 살찌우는 삶의 진정한 플레저는 최고급 차나 기품진 음식, 부동산과는 분명 거리가 먼 듯합니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 반면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라던 어느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처럼, 나만의 플레저를 갖는 데 소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길티 플레저라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봄, 당신의 계절에는 ‘풍류’가 있습니까?

편집장
김정민



ANTONY MORATO KOREA

280, CHEONHO-DAERO SEONGDONG-GU, SEOUL, KOREA / TEL 02.2249.7505

ANTONY MORATO

**PLAYBOY PICKS**

- 021** 3월, <플레이보이>가 엄선한 10가지 라이프스타일.
- 042** INTIMATE ASTROLOGY **MARCH × SEX FOOD**
별들이 골랐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를
더욱 뜨겁게 데워줄 섹시한 음식들.

PLAYBOY TASTES

- 044** MY WAY **YIM JUNGSIK**
한국인 최초의 미쉐린 2스타 셰프가 곰탕을 만들고 냉면을 뽑아낸다.
'평화육'의 임정식은 그렇게 한식의 본질에 더 가까워졌다.
- 046** PLAYBOY'S BAR **NOW BOTANICAL GIN**
스토리와 개성으로 무장한 크래프트 진이 핫하다. 식물성 재료로만
블렌딩한 보태니컬 진의 세계.
- 048** TECH **KITCHEN EDGE**
주방이 더욱 섹시해지는 10가지 물건.
- 050** FOOD **GET WET**
여기 빠르게 스태미나를 채워주는 4가지의 성계 레시피를 제안한다.
순서만 잘 따르면 흠뻑 젖는 건 시간문제다.
- 054** PLACE **ODE MAISON**
알박한 MP3 사운드를 벗어나, 온몸을 전율케 하는 하이엔드
오디오의 세계로, 오드 메종에 발 딛는 당신 앞에 펼쳐진 길이다.
- 056** WATCH **BDSM**
수신호로 전하는 메시지.
- 060** ITEM **RUB ME**
부드럽고 쫄득한 고무 소재 물건들을 모았다.
- 064** CAR **IMPROVE YOUR ABILITY**
자동차는 들끓는 욕망을 싣고.
- 070** SWEETHEART **SUPREME PORN**
빨간 슈프림의 슈퍼 파워.



056

070



050

오리지널 페이크와 컬래버레이션한
티셔츠는 **SUPREME** 제품



SMITH

*홈페이지 : smithkorea.co.kr * A/S 및 제품 문의 : 02-576-8611
오피스 : 067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6길 46 (양재동) 남양빌딩 4층

**PLAYBOY TALKS****080**SEX ISSUE **THIS MONTH IN SEX**

화려한 런웨이부터 '시대정신'을 반영한 캠페인까지,
황당하거나 재미있거나 유익미한 섹스 및 성 관련 소식.

084ADVISER **A BOY AND HER DOG**

반려견에게 밀려 쫓겨난 보릿자루 신세가 된 남자의
기를 살려줄 한마디는 무엇일까? 스리섬을 즐기는
여자친구를 둔 남자에게 해줄 조언은?

086GUIDE **BOYS, BE TIDY**

보이지 않는 자신감.

088SEX TALK **SEX, LIES AND PORNOGRAPHY**

그 여자와 그 남자가 포르노를 보는 이유.

090POET'S EYE **밤 달련의 시선**

이 꾸며진 불안을 보라.

091TV **PSYCHO KILLERS**

당신의 잠을 먹어치울 올해의 뉴비 <빌어먹을 세상 따위>의
관전 포인트 세 가지.

09220Q **THE VOICE ACTOR**

성우 강수진은 목소리로 누구든 될 수 있다.

096HER **THE DANCEHALL DANCER**

댄스홀 댄서 리지가 몸으로 전하는 말.

104PLAYBOY INTERVIEW **SUNG KIWAN**

새로운 밴드 앓싸를 결성한 성기완은 지금 국경에서 일한다.
시인의 태도로.

110PHOTOGRAPHY **春書**

8명의 사진가가 전국을 누비며 찍은 어떤 봄의 야한 풍경.

120PLAYSCENE **FOREVER YOUNG**

사진가 정예진이 거침없이 가까이에서 본 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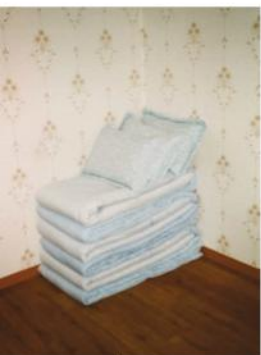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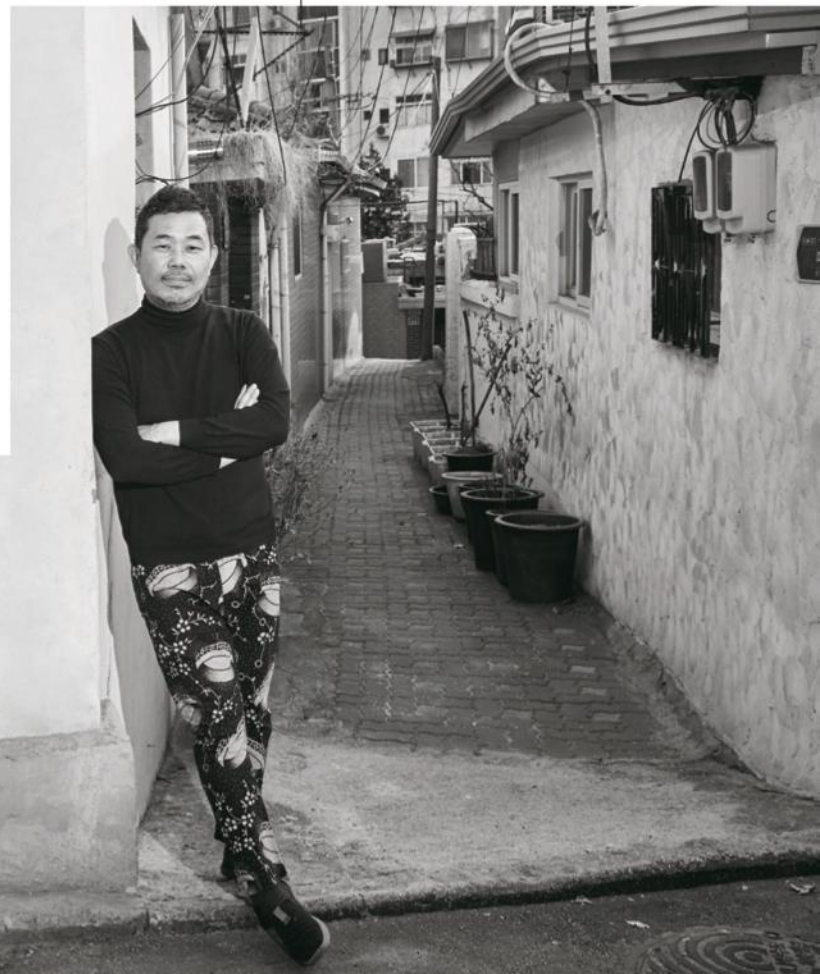
켓아웃 디테일의 레이스 보디슈트는 ETAM 제품

092



096

104



110

Chaville

PARIS



샤빌은 가까운 **TRY** 전문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트라이 02-3485-6000 www.sbw.co.kr



C O N T E N T S

PLAYBOY LOVES

- 1 2 2** PLAYMATE **DA YOUNG**
3월의 플레이메이트 김다영은 봄의 새싹처럼
강인하고 싱그럽다.
- 1 3 0** US PLAYMATE **KAYLA GARVIN**
천사의 얼굴을 한 플레이메이트 케일라 가빈.
태평양 북서쪽에서 온 그녀는 자유를 향한 의지로 충만하다.
- 1 3 8** PLAYGIRL **DAY GLOW**
그림 같은 웨스트 코스트의 황금빛 오후는
모델 재스민 비아누에바의 반짝임으로 완벽하게 완성된다.
- 1 4 4** PLAYGIFT **IN FULL BLOSSOM**
봄꽃처럼 만개한 그녀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더하는 법.



138



144

데님 쇼츠는 **GUESS**,
첼시 부츠는 **RACHEL COX** 제품



122

130



OD COMPANY AND LOTTE ENTERTAINMENT PRESENT

찬란하고 위대한 감동의 대서사시



DOCTOR
ZHIVAGO

MUSICAL
닥터 지바고

혁명의 순간, 운명적인 사랑

2018. 02. 27 - 05. 07 샤롯데씨어터

류정한 박은태 조정은 전미도 서영주 최민철 강필석 이정화 김봉환 이경미

김기순 서만석 이창완 신재희 하미미 백진주 강민욱 권기종 이태은 장은희 맹원태 김성식 김지옥 김도현 은경균 김아람 변형범 강기현 이한별 이혜진 조원지

제작 | OD COMPANY LOTTE ENTERTAINMENT | 제공 | true friend Korea Investment Partners Co., Ltd. | 주관 | OPEN REVIEW | 문의 | 1588-5212

PRODUCED BY CHUNSOO SHIN BOOK BY MICHAEL WELLER LYRICS BY MICHAEL KORIE & AMY POWERS MUSIC BY LUCY SIMON DIRECTED BY MATTHEW GARDI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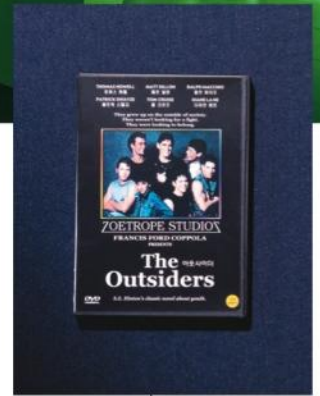
Based on the novel by Boris Pasternak. Presented by arrangement with MUSIC THEATRE INTERNATIONAL (EUROPE) LTD. on behalf of JERRY WEINBERGER LTD.

**PLAYBOY REMINDS**

- 1 4 6** ARTIST IN RESIDENCE **DAN FLAVIN**
아티스트 댄 플래빈의 빛으로 만든 공간은 감각이 제거되고
원근법마저 파괴된 새로운 유희를 경험하게 한다.
- 1 5 0** CLASSIC **THE OUTSIDER**
청춘은 막연한 내일이 아닌 불안한 오늘을 산다.
- 1 5 2** MUSIC **AMBIENT INTELLIGENCE**
앰비언트는 암전하기만 한 음악이 아니다.
- 1 5 4** CARTOON **TRAVELS WITH TORO**
토로의 여행은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 1 5 8** FICTION **SUPERCOPS**
메레디스는 늘 탁월한 학생이었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진.
- 1 6 4** INTERVIEW CLASSIC **THE BEATLES**
네 명의 리버풀 청년이 영국을 넘어 미국을 점령했고,
전 세계를 평정했다. 뜨거운 무대에서 내려온 비틀스의
허물 없는 모습은 어땠을까? 1965년, 〈플레이보이〉는
공연을 마친 20대의 백만장자 음유시인들과 숙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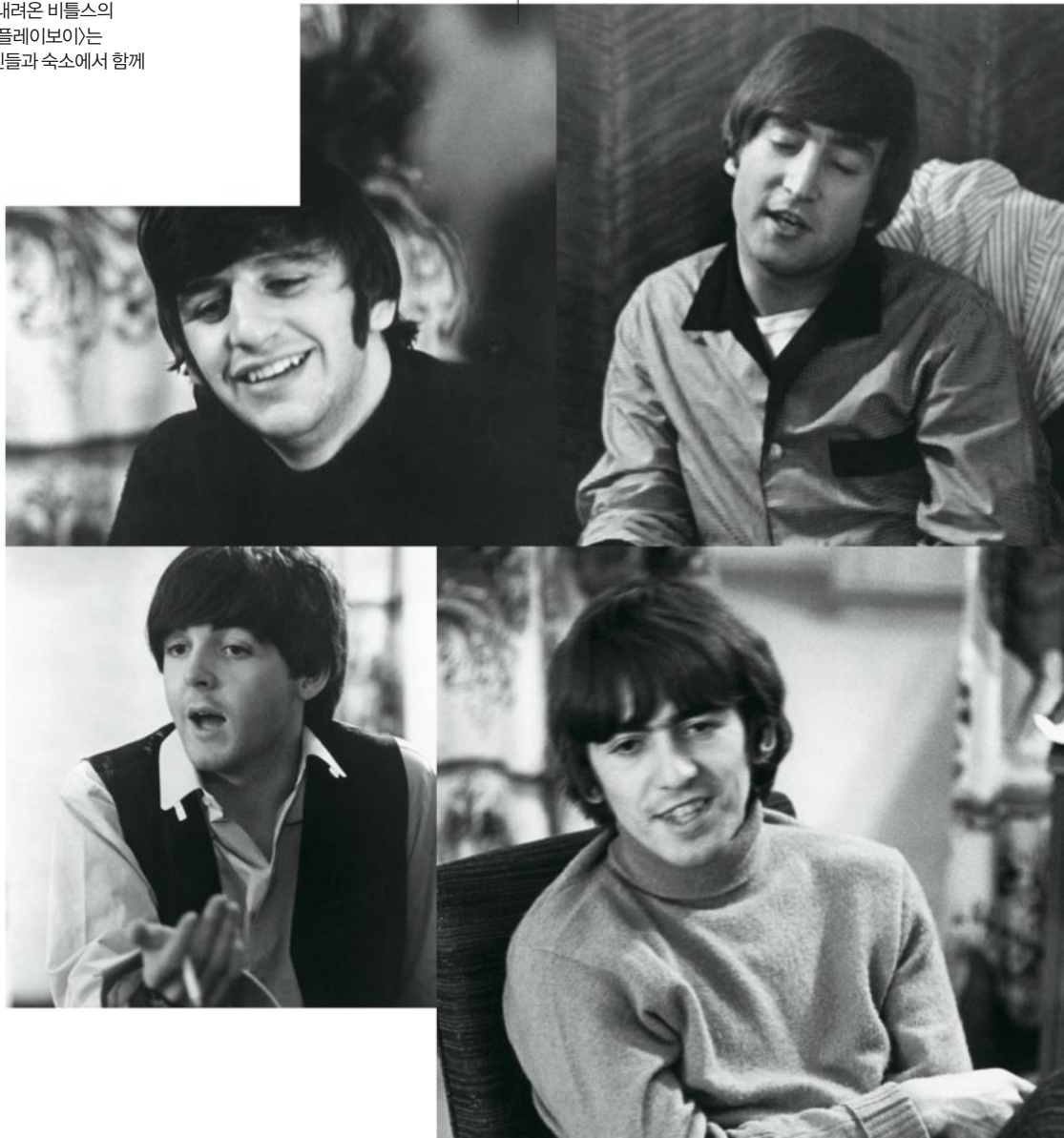
150

164

Cover Credit

2018년 3월호 커버는
〈플레이보이〉와의 콜라보레이션
으로 탄생한 슈프림의 캡 모자가 주인
공이다. 동시대를 대표하는 브랜드
슈프림의 제품에 모델 김보라의
아름다운 몸이 어우러진 화보는
‘Sweetheart’에서 감상할 수 있다.

photography
by
kim jiyang



ROBERTA DI CAMERINO

ITALY



이태리 명품의 향기를
느끼며 드라이빙 하다.
베니스의 향기를 담은 고품격
로베르타 방향제



로베르타 방향제 신상품 디퓨저방향제

70년 전통의 로베르타 방향제는 오직 하나 뿐입니다. 유사한 디자인의 방향제와는 품질이 다릅니다.

로베르타의 방향제에는 정품을 보증하는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구매시 확인바랍니다.

PLAYBOY

K O R E A



그룹 발행인 GROUP PUBLISHER

김영철 Kim Youngchull yckceo@playboykorea.com

비서 강주원 Secretary, Juwon Kang

사외이사 EXECUTIVE BOARD MEMBERS

Wanjoo Alexandre Kim

Michele Nathalie Lehmann-Kim

관리팀 ADMINISTRATION

이사 이성엽 Director, Sungyup Lee

차장 최호영 Assistant Manager, Hoyoung Choi

차장 박지연 Assistant Manager, Jiyeon Park

차장 최영화 Assistant Manager, Younghwa Choi

대리 강한규 Assistant Section Chief, Hankyu Kang

제작 PRODUCTION

차장 박선재 Assistant Manager, Sunjae Park

판매영업 DISTRIBUTION

차장 이동남 Assistant Manager Dongnam Lee

SP팀 SPECIAL PROJECT TEAM

부장 유정석 Team Leader, Jungsuk You anyou@kayamedia.com

아트 디렉터 계획경 Art Director, Heekyung Kye hkkye@kayamedia.com

디자이너 김완태 Designer, Wantae Kim capcom@kayamedia.com

에디터 윤연숙 Editor, Yeonsuk Yoon yeon@kayamedia.com

에디터 최은혜 Editor, Eunhye Choi gwsay@kayamedia.com



KAYA MEDIA CORPORATION

www.kayamedia.com

www.imagazinekorea.com

www.playboykorea.com

PLAYBOY
K O R E A

Since 2017

MOTOR TREND

Since 2005

THE NEIGHBOR

Since 1996

2018년 3월호 통권 제7호 | 2018년 2월 21일 발행 | 2017년 1월 17일 등록 | 등록번호 강남 라-00905

발행처 (주)가야미디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대치동) 가야빌딩(우편번호 06195)

대표 번호 02-317-4800 광고 문의 02-317-4851 정기구독·독자 관리 02-317-4825 FAX 02-317-4899 홈페이지 www.playboykorea.com

인쇄 (주) 삼화인쇄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3 TEL. 02-850-0847 인쇄인 유성근

시스템 출력 (주)새빛그래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10번지 TEL. 02-516-8166



A Musical Drama by DALE WASSERMAN
Music by MITCH LEIGH Lyrics by JOE DARION

Original Production Directed by ALBERT MARRE
Produced by CHUNSOO SHIN Directed by DAVID SWAN

세계를 감동시킨 불후의 명작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 MANCHA

2018.4.12~6.3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돌려보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세요



1년 정기구독
10% off

정가
90,000원

81,000원

2년 정기구독
20% off

정가
180,000원

144,000원

정기구독 문의

www.playboykorea.com 02-317-4825

PLAYBOY
K O R E A



큐레이터 김영철

Curator, Youngchull Kim yckceo@playboykorea.com

편집장 김정민

Editor In Chief, Jeongmin Kim boy@playboykorea.com

편집 EDITORIAL

부편집장 유지성 Deputy Editor In Chief, Jisung You jisungyou@playboykorea.com

패션&뷰티 디렉터 이선영 Fashion & Beauty Director, Sunyoung Lee sun@playboykorea.com

피쳐 에디터 김민지 Feature Editor, Minji Kim minzi@playboykorea.com

피쳐 에디터 양보연 Feature Editor, Boyeon Yang yangbo@playboykorea.com

교정 교열 박인경 Tech Correction, Inkyung Park

미술 ART

아트 디렉터 장민 Art Director, Min Chang min@playboykorea.com

디자이너 정선희 Designer, Sunhee Jung jsh@playboykorea.com

전략기획팀 STRATEGIC PLANNING TEAM

PLAYBOYKOREA.COM

이사 김정주

Director, Jeongjoo Kim jjkim0730@kayamedia.com

부장 백재은 Manager, Jaeeun Baik jaenee75@kayamedia.com

차장 이유정 Assistant Manager, Yujung Lee klimt9@kayamedia.com

차장 김민경 Assistant Manager, Minkyung Kim minkim@kayamedia.com

차장 윤소영 Assistant Manager, Soyoung Yoon syy@kayamedia.com

대리 허주는 Assistant Section Chief, Jueun Huh huh.jueun@kayamedia.com

대리 이승은 Assistant Section Chief, Judy Lee judy.lee@kayamedia.com

대리 임소연 Assistant Section Chief, Soyeon Lim iponi@kayamedia.com

디지털 디렉터 윤신영 Digital Director, Shinyoung Yoon yoon@playboykorea.com

디지털 필름 디렉터 김원 Digital Film Director, Won Kim bykimwon@kayamedia.com

디지털 에디터 한수연 Digital Editor, Sooyeon Han sooyeon.han@playboykorea.com

디지털 에디터 백가경 Digital Editor, Kakyung Baek kk@playboykorea.com

광고영업 ADVERTISING BUSINESS

본부장 박동민 Director, Dongmin Park dmpark5@kayamedia.com

부장 박재길 Manager, Jaegil Park kmsun88@hanmail.net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Hugh M. Hefner, FOUNDER

U.S PLAYBOY

Ben Kohn, Chief Executive Officer

Cooper Hefner, Chief Creative Officer

Michael Phillips, SVP, Digital Products

James Rickman, Executive Editor

PLAYBOY INTERNATIONAL PUBLISHING

Reena Patel, Chief Commercial Officer & Head of Operations

Hazel Thomson, Senior Director, Intl Licensing

(c) Playboy 2018 as to material published in February 1965, July 2011, November 2016, March/April 2017, May/June 2017, July/August 2017, November/December 2017, January/February 2018 issues off the U.S. edition of Playboy. Playboy, Playmate, Rabbit Head Design and Femlin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Inc

PLAYBOYSHOP
K O R E A



Hoodie ₩79000, Sweatshirt ₩89000
Now available at www.playboykoreashop.com



PLAYBILL

윤석무

“얼마 전에 마라톤에 참가했거든. 처음이었어. 근데 이걸 체질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너무 잘 뛰는 거야. 깜짝 놀랐더니까.” 포토그래퍼 윤석무가 말했다. 익숙한 풍경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어서, 온몸의 근육을 써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아서 마라톤에 반했다는 그, 누굴 만나고 싶냐는 질문에 윤석무가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꼽은 건 순전히 마라톤 때문이다. “얼마 전에 보스턴 마라톤에 나갔더라고, 뭘 하든 결국 누구랑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어?”

김민지

헤어와 메이크업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똑딱 해내는 김민지는 촬영이 한 컷이든 열 컷이든 사람만 한 캐리어를 끌고 현장에 등장한다. 게다가 보통 삼십분, 자주 한 시간씩 일찍 와서 모드를 기다린다. 그렇게 예열을 마쳤으니 셔터를 필요 없는 법. 그 안정적 공기가 촬영장 전체에 전달된다. 창간호부터 일곱 번 중 다섯 번, 이달의 'No Filter' 칼럼도 김민지와 함께였다. “배우 **김부선**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다는 그 오라가 궁금해요.” 오라는 희랍어로 공기를 뜻한다.

강정

지난 1월호에 첫 단편소설 <유리의 감옥>을 신기도 한 시인 강정을 만난 적은 없다. 하지만 좀 무뚝뚝한가 싶다가도 간혹 꺼내는 말에 진심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이달 ‘밥 딜런의 시선’에서 그는 밥 딜런(과 자신)의 감춰진 불안에 대해 썼다. “**아이슬란드 빙하**에서 밴드 공연을 하고 싶어요. (전설 속의) **히말라야 설인** 에티도 만나고 싶고.” 그는 음악가이기도 한데, <플레이보이>와 빙하와 설원이라니, 상상만으로도 기발하고 기대된다. 밥 딜런처럼 선글라스는 필수.

강현규

내추럴 와인이 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재고가 부족하다는 말에 초조했다. 그러던 중 단번에 그를 떠올렸다. 쿠퍼로 테라자의 강현규 소믈리에. 일사천리로 에디터 손에 팻낫을 쥐어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됐으면 하는 애정까지도 사명처럼 쥐어준 그였다. 그 덕에 내추럴 와인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다. <플레이보이>의 질문에 그는 “**쿠바로 날아가 시가 한 대**를 피우고 싶어요. 물론 <플레이보이>랑 같아요.”라고 말했다. 언젠가 쿠바에서 망중한을 즐겨볼 날을 기대해본다.



3월호와 함께한 8명에게 물었다.
<플레이보이>에서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그것.’



양효준

촬영은 적극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정도를 얘기하자면 ‘적당하게’. 바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바텐더’의 이름이 아깝지 않은 그, 촬영 중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촬영을 도왔고, 에디터 곁에서 보태니컬 진에 대해 조곤조곤 들려줬다. 마감을 끝내고 ‘화이트 바’에 들려 소개했던 보태니컬 진을 진득하게 마셔볼 참인데, 그런 그가 만나고 싶은 인물은 다른 아닌 영국의 세계적인 바텐더 **마리안 베케다**.

강국화

‘Her’ 화보 촬영을 앞두고 스타일리스트 강국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댄스홀 댄스는 레게 음악에 맞춰 추는 춤 맞죠? 리지 씨는 댄서니까, 이런 스포티한 옷도 어울릴 것 같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옷에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이런 스타일링이 멋지지 않을 리 없다. “**앤 해서웨이**요. 얼마나 부드러울까, 그의 두 부처럼 새하얀 살 말이에요. 색사하지 않아요?” 그는 <플레이보이>라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앤 해서웨이의 모습을 담아줄 것 같다는 설명을 보냈다.

이지혜

글을 잘 쓴다는 말은 기자에게 기획 의도에 맞는 ‘사실’을 잘 구성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지혜 기자의 칼럼은 늘 완성적이다. 이미 모두가 아는 내용이라도 그가 해석하면 그렇게 새롭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테크노 성지로 불리는 **베를린의 클럽 벨카인 탐방기**. <플레이보이>라면 열 중 아홉은 ‘뽕찌’ 먹는다는 그 클럽에 쉽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훑고 지나칠 법한 일에도 이유를 찾는다. 이지혜는 그런 기자다.

박재용

이달의 푸드 화보는 접시가 아닌 종이에 담긴 음식이 모델이었다. 바로 ‘젓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대보다 종이는 젓지 않았다. 상황을 빠르게 간파한 포토그래퍼 박재용은 서둘러 종이를 구해왔다. 모두 “그래, 이거지”라며 입을 모았는데, 그건 바로 ‘깡지’라 불리는 시험지. 그가 <플레이보이>를 통해 해보고 싶은 작업 역시 푸드 화보라고. 접시가 아닌 몸을 플레이트처럼 쓰는 것. 무생물 촬영에 최적화된 그와 진행할 다음 화보는 ‘**신체와 함께하는 푸드**’다.

PLAYBOY **SHOP**
K O R E A



Hoodie ₩79000, Sweatshirt ₩89000
Now available at www.playboykoreashop.com



DEAR PLAYBOY

〈플레이보이〉에
대한
독자들의
달콤쌉싸름한
의견.



1 폴댄서의 건강미 넘치는 자태

2월의 플레이메이트, 폴댄서 바다의 건강미 넘치는 화보를 잇을 수 없습니다. 잘 발달한 내전근과 척추기립근을 보니, 정말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댄스를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애정이 느껴지네요. 스웘슈트와 플랫폼 슈즈의 매치도 생각보다 조화로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고 매력적인 플레이메이트를 만나볼 수 있겠다. 매우 기대가 큼니다. 〈플레이보이〉가 제 책장을 다달이 채워가는 건 시간문제겠네요. **정재웅(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 자유로운 초유

알록달록한 액자와 함께 지면을 채운 타투이스트 초유의 화보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수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커피를 내리는 타투이스트라니. 누구나 구색받지 않는 삶을 꿈꾸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요. 카메라 앞에서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말 그대로 '자유롭다'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가 그려낼 작품들이 기대됩니다.

송지민(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 플레이보이의 아한 맛

매번 〈플레이보이〉를 열어볼 때마다 특유의 섹슈얼한 시선이 담긴 화보가 눈에 띄니다. 2월호의 푸드 화보 역시 돋보였는데요. 밸런타인데이 데이트에 즐기 좋은 음식이, 심지어 스타터 메뉴가 아련한 모양새로 담겨 있으니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듯했습니다. 레시피도 친절하게 적혀 있으니, 요리에 소질이 없어도 시도해보려구요. 그와 단물이 있을 때 만들어 먹기에 제격일 듯합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음식이 독자의 시선을 빼앗을지 기대가 되네요! **황선아(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4 Feather Weight

스포츠 선수들의 가벼운 순간을 담은 화보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를 보고 든 생각인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 이야기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비록 올림픽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노고가 담긴 담백한 인터뷰는 물론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몸짓의 이미지까지. 한계에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담아준 〈플레이보이〉 팀 감사합니다. **조보라(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광고 문의 02-317-4851 · 정기구독 신청 문의 02-317-4825



〈플레이보이〉와
좀 더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잡지보다 빠르고 섹시한
플레이보이코리아닷컴에서!

 **playboykorea.com**



www.playboykorea.com

〈플레이보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PLAY



2월호 플레이메이트 바다

〈플레이보이〉의
주인공은
플레이메이트입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밝고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달의
플레이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맘껏 자신을
드러내세요.
〈플레이보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MATE

Who Is A Playmate?

매달 딱 한 명 선정하는 플레이메이트는 〈플레이보이〉를 대표하는 주인공입니다. 미국 〈플레이보이〉의 첫 플레이메이트는 메릴린 먼로였죠. 플레이메이트가 되면 국내외 최고의 사진가와 사진 촬영을 하고, 근사한 화보와 함께 〈플레이보이〉의 상징인 센터폴드 (Centerfold)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브랜드 광고 촬영, 행사 및 파티 참여 등 〈플레이보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체적이고 매력적인 당신, 무얼 주저하나요?

Benefits

- 국내 톱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비디오그래퍼와의 화보 및 영상 촬영
- 플레이메이트 화보 및 영상 출연료 지급
- 'PLAYMATE OF THE YEAR'로 선정 시 상금 지급
- 〈플레이보이〉 행사 및 파티 참여 시 활동비 지급
- 플레이메이트로서 대외 활동 시 발생하는 수익 분배

PICKS:10

3월, <플레이보이>가 엄선했던 10가지 라이프스타일.

 ① no filter :
**DEEP
BLUE SEA**

사진가 옥토가 사랑하는 것들.



“
사진은 늘 걸을 찍는
일이지만,
제게 걸이란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이거든요.
”

회화과를 다녔는데, 그때도 자화상을 주로 그렸어요. 그 연장선에서 제 사진을 찍게 된 것 같아요. 찍을 사람이 없기도 했고, 가장 많이 관찰한 게 제 얼굴이니까. 피사체를 오래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누군가를 찍을 때도 장기간 관계를 유지한 상대만 촬영해요. 사진엔 정성이 드러나고, 시간이야말로 최대의 정성이라 믿거든요. 눈빛이든 분위기든 첫 만남에 판단할 수 있는 것 너머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시간에 비례하는 거라 생각해요. 사람 말고는 유리를 제일 많이 찍어요. 항상 찍는 대상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 궁금해 하는 편이고. 공방을 찾아가서 유리 제작 공정을 한참 구경하다 온 적도 있어요. 그런 과정 없는 촬영은 피상적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진은 늘 걸을 찍는 일이지만, 제게 걸이란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이거든요. 사진집 <사랑하는 걸들>의 '걸'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최대의 정성을 들여 걸을 탐구하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촬영은 곧 억측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제가 세계를 억측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나한테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찍는 거죠. 색조를 바꾸는 사진을 선호하진 않는데, 제 사진은 거의 파르스름하게 나와요. 그래서 좀 물기 있고 차갑게 보여요. 물은 차갑든 따뜻하든 젖으면 촉촉해요. 자주 봤더니 신기하게 '임수'가 나오더라고요. 태어난 날에도 비가 왔고, 어릴 때도 학교 빼먹고 근처 바다 보러 다녔던 기억이 많아요. 내년쯤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사진의 물성과 카메라라는 기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낮선 곳과 낯선 것을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것들이 낯선 채 남아 있어도 괜찮지만, 어느새 제 안으로 스며들어 사진으로 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 더 좋겠죠. ②



2

style :

editor lee sunyoung assistant editor gi howoong
photographer park jaeyong

“

Mr. Playboy Says

아무리 네온 컬러가 트렌드라 해도,
걸어다니는 형광팬이 되는 건 피하자.
착장 전체에서 한 가지
아이템에만 포인트를 주는
정도가 적절하다.

”

NEON INVASION

불의 상큼함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법.

발렌시아가, 버버리, 알렉산더 앙, 팔라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디자이너들은 지금 이 컬러에 빠져 있다. 팬톤과 WGSN이 입을 모아 올해의 컬러로 꼽은, 형광빛 옐로 컬러 '프로즌 옐로' 애기다. 자기 표현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를 대변하는 컬러라는 슬로건 때문인지, 더더욱 젊고 쿨하게 여겨지는 프로즌 옐로. 이와 더불어 네온 오렌지와 핑크 등 다양한 형광색 아이템이 쏟아지는 이번 시즌, 어떤 빛을 장착할지 미리 눈여겨볼 것.

불꽃이 강해 어떤 환경에서도 점화가 잘 되는 '미니켓' 라이터는 **S.T. DUPONT**, 더블 LED 라이트와 20기압 방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스니커즈를 디자인 모티프로 삼은 '지삭 스니커즈 컬러 GA-800sc' 시계는 **CASIO**, 힐 뒷부분에 네온 컬러로 포인트를 준 카프 소재의 '오버사이즈 스니커즈'는 **ALEXANDER MCQUEEN**, '클라리티 HD 하이 퍼포먼스 인-이어 헤드폰'은 **MONSTER AUDIO** 제품



LOGO WAR

과거와 현재의 만남.

오늘날 패션은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수단 중 하나다. 자신이 몸담은 세계의 사상과 가치를 표현하는 것, 로고 트렌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로고 아이템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른 데엔 베트멍의 역할이 컸다. 2016년 S/S 시즌 디자이너 고샤 루브친스키의 컬렉션에 DHL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가 등장하면서 1990년대 유스 컬처에 향수를 가진 이들의 감성을 깨운 것. 이번 시즌만 해도 슈프림, 아디다스 등 스포츠·스트리트 브랜드부터 구찌와 루이 비통 등 하이패션 브랜드까지 모든 패션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로고 아이템은 이렇게 가장 레트로적이면서도 동시대적인 키워드가 됐다. 오늘 옷장 속 깊숙이 모셔져 있던 로고 아이템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

1 핑크 컬러 티셔츠는 **FILA**

2 바이올렛 컬러 스웨트셔츠는 **ORDINARY PEOPLE**

3 화이트 컬러 티셔츠는 **GUCCI**

4 그레이 컬러 스웨트셔츠는 **DIOR** 제품



IWC TRIBUTES 150YEARS

시간을 앞서간 디자인.

인스턴트 시대에 전통은 남자들의 로망이 된다. 세계적 인 워치 브랜드 IWC의 창립 150주년이 더욱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다. 스위스 수공예 장인정신과 미국의 생산 기술을 결합해 최고의 포켓 워치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1868년 설립, 정교한 엔지니어링과 독특한 디자인의 결합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IWC. 브랜드는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며 과거 장인들의 선구적 업적에 헌정하는 주빌레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 중 1884년에 제작된 폴베버 포켓 워치는 회전하는 디스크에 대형 숫자로 시간과 분을 전달해 시대를 너무 앞서나갔다는 평가를 받은 제품. 바로 그 시계가 비운의 역사를 뒤로하고 스포트라이트 앞에 섰다. 디지털 방식의 시간 표기를 기계식 손목시계에 담은 '폴베버 150주년 한정 에디션'은 플래티넘 25피스, 레드 골드 250피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500피스로 한정 출시될 예정이다.

*폴베버 150주년 한정 에디션 플래티넘 버전, 1884년 제작된 폴베버 포켓 워치는 모두 **IWC** 제품



PORTER IN SEOUL

대중 명품 포터의 두 번째 매장 오픈 소식.

하이엔드 브랜드만 명품이라 불리는 건 아니다. 1962년 설립된 포터는 기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형태, 일본 장인정신 특유의 치밀한 만들새로 대중 명품의 반열에 오른 케이스. 하지만 오랜 전통만이 포터의 전부가 아닌,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는 없었을 거다.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폼 데 가르송, 아디다스, 스투시 등 다양한 성격의 브랜드와의 콜레보레이션을 통해 가장 동시대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이런 포터가 한국에 두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강남점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제품군을 만날 수 있는 한남점 오픈을 기념해 '포터 서울' 스페셜 기념 백을 선보이며, 단독 컬러 제품인 'Things' 시리즈 그리고 'Counter Shade', 'Hype', 'Glaze' 등 한국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다. 📍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32 1층 ☎ 02-749-1935





3

grooming : editor lee sunyoung assistant editor gi howoong
photographer park jaeyong

FRESH BREEZE

신선한 향으로
다가올 봄의 설렘을
선사하라.

시선을 어디에 돌려도 봄웃이
쏟아져 나오는 3월.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볍게 입기엔 삼한사온 날씨가 애매하다.
향수의 미덕은 이런 시기에 발휘된다.
방금 채집한 잔디, 민트와 바질 같은 허브,
또는 숲속 이끼 등 봄을 연상케 하는
그린 계열 향수로 다가올 새로운 계절의
전령사가 되는 것. 봄을 향한 기대와 설렘은
곧 당신을 향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아이티산 베티버와 샌들우드, 머스크 향이 순차적으로
어우러지며 프랑스 남부 여름을 연상케 하는
'오리지널 베티베' 향수는 CREED, 베르가모트와
시칠리아산 레몬, 재스민 향이 깨끗하게 어우러져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를 떠오르게 하는
'플뢰르 드 포르토피노' 향수는 TOM FORD 제품



“

Mr. Playboy Says

향수는 주로 과거의 기억과 연관된다. 행복했던 순간에 맡은 향을 후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 그런 계열의 향수는 확산력이나 지속력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기분 전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



CELEBRATE LAUNCHING

사랑하는 이에게 기약될 향기.

새로운 시즌이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향수들. 하지만 디프티크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기억에 남는 향기들을 만들어왔다. 프랑스 명품 니치 퍼퓸 브랜드 디프티크가 50주년을 기념한 향수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새로이 출시한 향 '플레르 드 뽀 오 드 퍼퓸'은 숨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과일 향을 가진 식물성 머스크인 암브레트 시드에 우아한 향의 아이리스가 조화되어 그리스 신화처럼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반면 '뎀포 오 드 퍼퓸'은 순수하고 아름답게 정제된 파출리를 메인으로 강렬한 우디 향과 청량한 제비꽃의 향기가 미묘하게 어우러진 세련된 느낌의 향수다. 다가오는 화이트데이, 센스 있는 남자친구로 기억되기 위한 당신의 선택지는 이미 결정된 듯하다.

'플레르 드 뽀 오 드 퍼퓸'과 '뎀포 오 드 퍼퓸'은 모두 DIPTYQUE 제품



SPRING IS COMING

봄이 오기 전 준비할 것들.

봄기운이 스미기 시작하는 3월. 야외 데이트 플랜과 함께 대비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피부 건조다. 허나 만사가 귀찮은 남성들에게 날씨에 맞춰 피부를 챙기라는 건 어불성설. 이들을 위해 새로운 남성 라인이 등장했으니, 바로 빌리프의 맨올로지 시세이도 프로페셔널의 더 그루밍이다. 먼저 맨올로지 제품 중 베스트 아이템인 '오리지널 아쿠아 바운싱 워터로션'은 천연 허브 성분을 함유해 민감한 피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면도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스크래치 개선을 입증 받아 피부를 보호한다. 시세이도 프로페셔널이 오랜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모발과 두피 그리고 피부를 종합적으로 가꿀 수 있는 '더 그루밍'은 샴푸, 트리트먼트, 스칼프 이펙터의 헤어케어 3종과 워시, 로션, 모이스처 이펙터의 페이스 케어 3종으로 구성된다. 생체에 적합한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에센셜 오일을 기초로 한 상쾌한 아로마 향으로 편안하게 마무리된다. 이 정도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흠뻑이라도 으로는 봄나들이 준비 완료다.

천연 허브 성분을 함유한 '맨올로지' 라인은 BELIEF, 헤어와 페이스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더 그루밍' 라인은 SHISEIDO PROFESSIONAL 제품



ALL IN ONE

바빠서 헤어이영양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관리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스웨거의 '헤어 컬 크림'에 주목할 것. 영양 에센스 역할로 모발에 윤기를 부여하고 부스스함을 방지하며, 소프트 왁스 기능으로 컬 고정 효과까지 지닌, 맥가이버 칼만큼이나 만능 제품이기 때문이다. 영양과 스타일링을 한 번에 해결, 번거로운 과정을 단축시켰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샴푸 후 촉촉한 헤어에 골고루 발라 스타일링한 후 드라이어로 말려주면 끝. 📌

'헤어 트윈스터 단백질 컬 크림'은 SWAGGER 제품





트렌트 라이딩 메시 재킷
팔길과 밑위가 짧게
디자인된 것이 특징
27만원



마스터 슬림핏 바이커 재킷
소가죽 소재의 캐주얼 라이더 재킷
76만2000원

스포스터 아이언 883 블랙 데님
배기량 883cc,
최대토크 6.9kg.m/4750rpm,
1770만원



THE RIVALS

세기의 라이벌
할리 데이비슨과 인디언 모터사이클.
당신의 선택은?

HARLEY-DAVIDSON

가족 재산을 걸친 멋진 남자가 바이크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서부영화 속 장면은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 속 남자의 으르렁거리던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의 크루저일 확률이 높다. 할리 데이비슨은 그만큼 독보적인 아메리칸 크루저 모터사이클 브랜드다. 유럽, 일본을 비롯한 자동차 산업 강국에서도 크루저를 만들고 있지만, 할리의 명성에 비견할 수 있는 건 아직 없다. 그 비결은 절대 성능보다는 시간을 초월한 감성이다. 기술적인 성능과 가격으로 할리보다 합리적인 바이크가 더러 있지만 할리의 위상은 남다르다. 특히 시속 100km 전후로 여유롭게, 풍부한 엔진의 고동감과 육감적인 rpm을 경험하고 싶다면 할리의 크루저에 올라타길 권한다. 할리에서 마들급 모델에 속하는 스포스터 아이언 883은 강력한 엔진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으로 도시와 잘 어울린다. 수천 킬로를 질주해도 끄떡없는 짐승이 현대적인 외투를 입은 모델이랄까. 크루저 모델 중에서도 낮게 장착된 드래그 스타일 핸들 바는 공격적이면서도 날렵한 라이딩 자세를 선사한다. 여기에 할리의 115년 역사와 낭만이 느껴지는 라이딩 용품과 굿즈까지 갖췄다면, 당신은 전 세계 60만 명이 넘는 호그(Harley Owners Group) 멤버가 될 준비를 마친 셈.

www.harley-korea.com



115주년 H28
풀 페이스 헬멧
115주년 한정판 헬멧
29만9000원



스토미 가죽 장갑
터치 스크린 기능을 탑재한
염소 가죽 장갑 14만5000원



핀스트라이프 프레임
블랙 블루아웃
100% 면 소재의 베스트
1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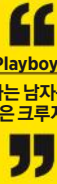
**아웃포스트
풀 페이스 헬멧**
블루투스기능을 더한 헬멧
39만1000원



레트로 가죽 장갑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전통적
인 매력을 살린 가죽 장갑
11만9000원



맨즈 캔버스 셔츠 그레이
가슴과 등에 인디언
모터사이클 로고가 그려진
베스트
10만2000원



Mr. Playboy Says

바이크를 타는 남자는 섹시하다.
그게 역사 깊은 크루저라면 더더욱.

INDIAN MOTORCYCLE

'아메리칸 헤리티지 브랜드.' 바이크 마니아 사이에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이렇게 불린다. 미국 최초의 모터사이클 제조사이자 117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도 현대적인 바이크를 선보이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크루저의 고유명사 격이다. 2014년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를 선택했다. 인디언의 영광을 대변하는 스카우트, 인디언 탄생지의 이름을 딴 스프링필드, 부족장을 일컫는 치프 등 다양한 크루저를 선보이며 개성을 극대화한 것. 이 전략은 고객을 위한 회원 관리 시스템 IMRG(Indian Motorcycle Riders Group)에도 적용되어 회원들의 혜택이 늘었다. 2017년 발족한 IMRG 코리아는 본사 정책을 이어받아 마일리지 이벤트, 스탬프 투어 등을 기획하며 회원 참여를 늘리고 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대표적인 경량 크루저 스카우트 바버는 특별하다. 아메리칸 크루저 고유의 감성을 지닌 스카우트 바버는 터프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디자인과 성능으로 보여준다. 전 시리즈보다 낮아진 서스펜션과 타이어 패턴의 변화는 '순정' 바이크임에도 커스텀 분위기를 풍길 만큼 현대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의 진가를 경험하고 싶다면,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위상을 대변하는 굿즈와 함께 당장 스카우트 바버에 오를 것. 

www.indianmotorcycle.kr



맨즈 1901 재킷
브랜드 고유 개성에 채운 조절
기술을 더한 라이딩 재킷
25만5000원



맨즈 리버티 재킷
라이딩 웨어의
매력을 지닌 가죽 재킷
14만4000원



스카우트 바버 블랙 스모크
배기량 1133cc,
최대토크 10.0kg.m/5900rpm,
2050만원



5

culture :

editor you jisung, yang boyeon
photographer park jaeyong illustrator timba smits

영화에서 신과 괴물 그리고 평범한 인간을 적절히 아우르는 기예르모 델 토로는 데이비드 린치와 팀 버튼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 세계관을 구축한 감독이다. 델 토로 감독은 데뷔작부터 남달랐다. 그가 20대에 멕시코에서 촬영한 <크로노스>는 매혹적인 생명체를 포함한 영상미와 원원불멸의 삶을 주는 황금 뱀파이어 벌레를 둘러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델 토로 감독은 이 모든 영화적 표현을 절묘하게 어우르며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뿐만 아니라 2006년 개봉한 판타지 <판의 미로 - 오필리아와 세계의 열쇠>는 독재정권 시절 스페인을 배경으로 현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자연적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다뤘다. 이 영화를 통해 그는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가는 어린 주인공의 얼굴을 빌려 테러 조직이 벌이는 무자비한 전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심란하고 기묘한 이야기 <헬보이> 시리즈를 공개했고, 절망적인 인류를 구원하는 <헬보이>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어김없이 파격이란 단어가 그를 따라왔다. 델 토로 감독의 최근 작품인 <퍼시픽 림>과 <크림슨 피크>는 전작에 비해 혹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세이프 오브 워터>는 다르다. 그의 독창적인 연출과 세상을 보는 명민한 시선이 보란 듯이 금의환향하기 때문이다. 1962년이 배경인 어두운 우화는 군사 실험 시설에 갇힌 병어리 청소년 여인과 극심한 고문에 시달리는 인어 남성이 중심이다. <세이프 오브 워터>는 미국의 대형 영화사에서 제작했고, 유명 배우 샐리 호킨스와 마이클 새넌 등이 출연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다. 하지만 표현주의적인 세트 디자인과 몽환적인

수중 신 등 기이하고 아름다운 미장센은 델 토로 특유의 작가주의 감성을 표현하기에 충분했다. <세이프 오브 워터>는 세간의 호평을 받았고 델 토로 감독은 74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미국 <플레이보이>는 델 토로 감독을 만나 <세이프 오브 워터>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길 나눴다. “제가 1962년을 영화의 배경으로 한 건 그때가 미국인들이 말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는 운동)’과 적절히 들어맞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백인들은 번영의 찬가를 부르고 있었죠. 모두가 미래를 논했어요. 국가 간 우주개발 경쟁 같은 공상적인 얘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1962년 케네디가 암살당했고 베트남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는 케네디 정부 시절의 모든 꿈이 날아갔어요. 이 영화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차별, 오만, 폭력 그리고 인종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오해 등등. 진실이 없는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어져오고 있는 것들이죠. 저에게 이 모든 것이 제가 남미에서 영화를 찍던 시절부터 품어온 음침한 괴생물체의 사랑 이야기처럼 차별과 같은 세상의 그림자를 담고 있다고 봐요.” 제작비 2천만 불에 달하는 이 영화는 델 토로 감독만의 클래식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어나간다. 부적응자들이 친구 사이인 엘라이자(샐리 호킨스)와 자일스(리처드 젠킨스)는 낡은 극장 위층에 산다. 그곳은 마치 그들의 영혼을 적서주는 듯 고전 뮤지컬 영화가 감빡이며 흐른다. 이 모든 실마리는 여태껏 볼 수 없던 종류의 은밀한 러브스토리로 이어진다. “저는 섹스 신 하나 없는 ‘청령한 미녀와 야수’ 같은

“

Mr. Playboy Says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인어 남자와 병어리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기대할 것.

”

건 관심 없어요. 의미 없이 변태적이지만 한 것도 그럴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성적 자극만을 위한 변태적 사랑 행위에 대해 늘어놓지 않았어요.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세이프 오브 워터>는 괴물과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엘라이자는 괴생물체와 섹스한 다음 날 아침 친구에게 어젯밤이 어땠는지에 대해 얘기해요. 괴물과 그녀 사이에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을 뿐인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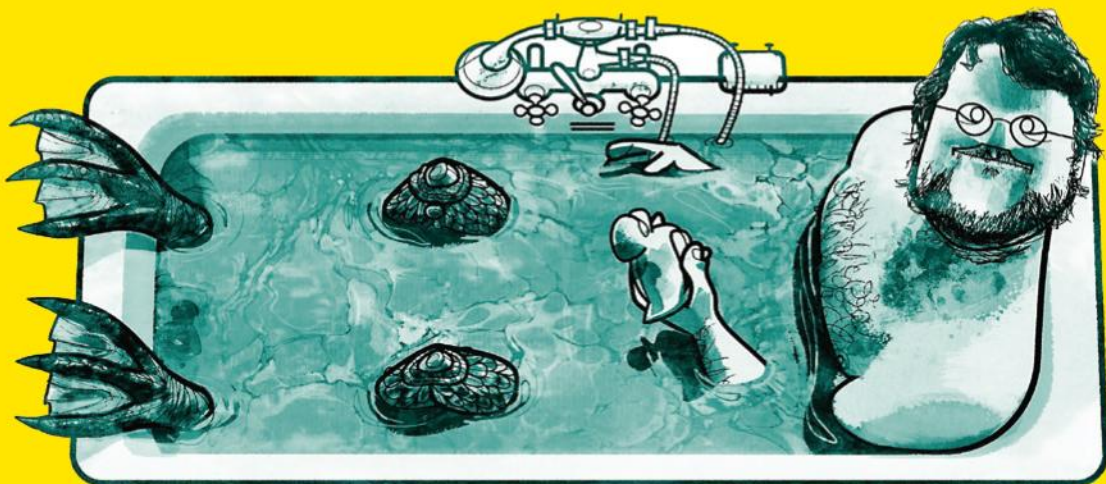
반면에 군사실험의 책임자 스트릭랜드(마이클 새넌)는 손을 먼저 씻어야 부인을 만질 수 있고, 와이프는 섹스 중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결혼생활을 하는 중이다. “괴생물체와 인간의 섹스보다 끔찍한 건 이런 거예요.” 델 토로 감독이 영화에 담은 특별한 ‘사랑의 모양’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다. 그가 <세이프 오브 워터>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수많은 메시지 중 중심은 ‘평등함’이다. 오히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영화 속 괴생명체와 병어리의 사랑 이야기는 ‘평범한’ 괴물 영화들과 궤를 달리한다. 수많은 영화 속 과수가 평범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면, <세이프 오브 워터>의 괴생명체는 자신을 억압하는 인간처럼 ‘평범’해지고 싶지 않다. 좀 다른 몸으로 산다고 해서 치전에 널린 사람과 같아지고 싶을 거란 기준, <세이프 오브 워터>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멀찍이 달아난다. “욕망은 놀랄 만큼 관용적인 거예요. 반대로 욕망을 부정하는 거야말로 놀라울 만큼 부당한 거고요.” 그의 말처럼 누군가의 삶에 대해 자신의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것만큼 우매한 일이 또 있을까. <세이프 오브 워터>는 특별하지만, 영화가 말하는 사랑은 평범하기 그지없다. P

Film

MODERN MONSTER MASTERPIECE

30년 가까이 영화로 자신의 상상 속 판타지를 그려온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이 신작 <세이프 오브 워터>를 공개한다. 늘 그래 왔듯 어둡고 관능적이다. 미국 <플레이보이>와 그가 운명처럼 만났고 델 토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자신의 영화와 가치관에 대해 털어놨다.

by stephen rebello



Music

TURN UP

믿음 가는 턴테이블.

입문용 소품으로서의 턴테이블 구매에 반대하지 않는다. 예쁜 것만큼 기본 좋은 게 또 있다. 하지만 예쁜 데다 기능도 훌륭하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프로용 장비 타스컴과 하이엔드 브랜드 에스테릭의 모회사, 티악은 집에 들고 싶고 갖고 싶은 턴테이블을 만든다. 구매를 포기하는 이유는 좋은 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내 맘에 걸리는 한 가지 부분 때문이다. 기본에 충실한 티악 턴테이블은 대개 단정하게 생겼고, 불필요한 기능이 없으며, 균형 있는 소리를 낸다. '라이프스타일'과 '기어' 사이, 티악에서 새 턴테이블 TN-400BT가 나왔다. 포노EQ 앰프가 내장되어 별도의 포노 앰프가 필요하지 않고, USB 디지털 출력과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했다. 이제 스피커 한 조만 있으면 당장 레코드를 올려놓을 수 있다.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TN-400BT 턴테이블은 76만8000원으로 **TEAC by 극동음향** 제품



Q&A

레코드 입문자들을 위한 기본 상식.

Q 레코드가 잘 팔린다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A 미국 기준, 지난해 레코드 판매량은 전년 대비 9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총 약 1400만 장. 다만, 각각 20퍼센트 이상 상승한 2013~2015년만큼의 폭발적인 증가 폭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기라 말할 수도 있겠죠. 서울로만 한정하자면 지난해 레코드 공장 마장뮤직앤픽처스 바이닐 팩토리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통 매년 한 차례씩 열리던 서울레코드페어가 두 차례 개최됐고요. 특정 장르 전문 레코드숍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행이 문화가 되는 과정이라 말해보면 어떨까요. 희망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Q 정말 레코드가 '사운드'가 더 좋나요?

A 레코드 청음을 위한 기기 세팅은 변수가 많습니다. 스피커, 앰프, 턴테이블의 성능은 물론이고 수평 유지, 바늘의 침압, 심지어 습도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장비로도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CD를 비롯한 다른 매체와의 비교야말로 무의미합니다. 다만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레코드를 정성껏 닦고, 바늘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차이가 생깁니다.

Q 레코드는 어떻게 세척해야 하나요?

A 알코올이나 전용 세척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물로만 잘 씻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압이 센 샤워기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중성세제로 레코드를 소리 골을 따라 닦아주세요. 10여 분 정도 기다린 후 세제를 씻어내면 됩니다. 부드러운 극세사 천으로 물기를 닦은 뒤 건조한 곳에 세워두고 말립니다. 세척이 끝나면 깨끗한 새 속지에 레코드를 넣어주세요.

Stage

SHOW!

Sevdaliza

트립합이 개인의 서정이라 믿어왔다면, 세브달리자의 베이스는 그보다 낮은 곳을 향한다. 트립합의 재료가 힙합, 덤, 알앤비 등인 것을 감안하면 본질에 가깝다 여길 수도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대신, 저음이 발끝부터 전신을 뒤 흔드는 경험. 그의 음악을 공연장에서 들어야 할 이유다.

📅 3월 20일 오후 8시 📍 하나투어 브이홀

🌐 www.veronicaeffect.com



Ty Segall

〈NPR〉은 웹사이트에 그의 신보 〈Freedom〉 Golbin)의 리뷰를 실으며 "타이 시걸은 록 학자이며, 이 음반은 그의 박사 논문"이라 썼다. 거의 매년 정규 음반을 발표하는 근면함과 함께, 그와 타이 시걸 밴드는 정수를 향한 순수한 탐구야말로 '인디펜던트'함의 열쇠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 2월 27일 오후 8시 📍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02-322-2395



Ssing Ssing

쌍쌍의 공연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다. 목소리, 분장, 무대를 장악하는 방식 모두 강렬하고 유일하다. 다만 첫 경험의 생경함을 지우고 나도 충분히 '뉴 웨이브'라는 점에서 다시 찾게 되는 힘이 있다. 지난 2월 초 완전 매진된 첫 단독 콘서트를 봤거나 못 봤거나, 쌍쌍이 돌아왔다.

📅 3월 31일 오후 7시 📍 현대카드 Understage

🌐 understage.hyundaicard.com



Book

READ ME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16년 〈21세기 문학〉에 기고한 글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 문단 내 성폭력과 여성 혐오를 고발한 시인 김현의 산문집. 여성, 성소수자, 4대강 등에 대한 '발언'과 책, 연애, 여행에 관한 사적인 '이야기'를 함께 엮었다. **서랍의 날씨**



〈문명과 식량〉· 루스 디프리스

〈종, 군, 쇠〉가 무기, 병균, 금속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을 조망했다면, 〈문명과 식량〉은 인류 문명이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관점에서 그 여정을 되돌아본다. 위기와 성장, 평화와 전쟁, 과학과 위험. **놀와**



〈살인출산〉· 무라타 사야카

2016년 〈편의점 인간〉으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무라타 사야카의 새 소설집이다. 표제작 〈살인출산〉은 저출산 시대에 10명을 낳으면 한 명을 살인할 권리를 주는 '살인출산' 시스템이 생기는 미래가 배경이다. "쓰는 동안 이런 일이 언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작가 서문의 일부다. **현대문학**





6

cuisine : editor kim minji assistant editor kim sunhee
photographer choi seunghyuk, kim juhwan

“

Mr. Playboy Says

갤러리 작품을 감상하듯
느긋하게 그녀와 요리 이야기를
나눠보자.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

SPRING ON PLATES

간결한 봄의 맛.

셰프의 요리만큼 계절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네오 비스트로 제로 콤플렉스에도 이른 봄이 찾아왔다. '양배추, 냉이, 굴'
요리의 주인공은 의외로 양배추다. 봄에 수확한 양배추는 식감이 연하고
겨우내 맛이 응집돼 달디달다고, 스팀으로 가볍게 찌 단맛을 배가시킨
양배추에 냉이와 굴로 만든 그린 컬러의 오일을 곁들였다. 여기에 레몬
제스트를 소복이 쌓아 산뜻하게 마무리했는데, 레몬은 단순히 향을 내기
위함이다. 심플하지만 봄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충후 셰프의
설명처럼 마지막 한 조각을 음미할 때까지 싱그러운 내음이 온몸을 감싼다.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13 2층 ☎ 02-532-0876



BETWEEN SEASONS

겨울과 봄 사이를 오가는 세투의 계절.

을지로 골목을 거닐다 한 건물 4층으로 향했다. '여기가 맞는 걸까?' 좁고 투박한 계단을 밟으며, 일본어로 '시나문장의 단락'을 뜻하는 카페 '세투(Cetu)'를 찾아갈 땐 누구나 한번쯤 이런 의문을 품는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비로소 나타나는 새하얀 공간. 대표 메뉴인 '팔레트 토스트'를 주문하면 고소하게 구운 식빵과 물감처럼 다양한 명도의 분홍색 크림치즈가 팔레트 위에 놓인다. 카페 곳곳에 있는 캐릭터 시계와 만화책, 카세트테이프, 일러스트 액자는 주인공의 취향으로 수집한 것. 알록달록한 디지털트와 이색적인 소품들로 따뜻하게 채워진 이곳의 계절은 하얀 겨울과 다채로운 봄 사이를 오가는 듯하다.

☎ 서울시 중구 충무로9길 12 ☎ 010-9363-2597



GRAND AMOUR

그랑 아무르는 '큰 사랑'을 나눈다.

18세기 파리의 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살롱'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사교의 장을 이루던 당시의 분위기를 한남동의 레스토랑 '그랑 아무르'가 재현했다. '큰 사랑'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은 것은 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바람. 이형준 셰프가 기존에 운영하던 '수마린' 자리에 새롭게 오픈한 이곳에서는 학꽂지 요리, 가리비와 굴을 넣은 그라탕 등 개성 넘치는 프랑스 요리를 만날 수 있다. 블루와 핑크, 레드 컬러로 강렬하게 꾸민 공간의 한쪽에는 작은 무대를 마련해놓았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감미로운 연주가 흘러나오면 둘만의 만찬이 더욱 로맨틱해진다.

☎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47-24 ☎ 02-790-0814

FROM SAN FRANCISCO

한국에 상륙한 타르트인 베이커리의 풍미.

이른 오전, '타르트인 베이커리 서울'의 베이커와 파티시에가 부지런히 빵 진열장을 채운다. 아직 날이 춥지만 밖에는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타르트인 베이커리의 빵을 맛보기 위해서다. 본고장을 벗어나 오픈한 첫 번째 매장이니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하다. 독점적으로 전수받은 제빵 기술을 활용해 현지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지고, 창업자인 채드 로버트슨도 종종 주방을 지킨다. 가장 인기 많은 빵은 현지의 시그너처 메뉴인 '컨트리 브레드'. 천연 효모를 넣은 사워도우로 만들어 시큼하면서도 중독성 있다. 막걸리를 첨가한 '한남 멀티그레인'은 오직 이곳, 한남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으니 참고할 것. ①

☎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18길 22 ☎ 02-792-2423



**7****drink :**editor **kim minji** assistant editor **kim sunhee**
photographer **park jaeyong, kim juhwan****NATURE****IN GLASSES**삼페인 말고
펏нат.

“

Mr. Playboy Says자연스럽게 오므라지는 화이트 와인 글라스와
삼페인 글라스에 즐기면
더욱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다.

”

식지 않는 내추럴 와인의 인기 속에 천연 스파클링 와인,
펏нат(Pet Nat)이 새로운 대세로 떠올랐다. 펏нат은 프랑스
어로 '거품이 이는'이라는 뜻의 '페티양(Petillant)'과
'천연의'라는 뜻의 '나추렐(Natural)'의 합성어로 천연
탄산의 내추럴 와인을 말한다. 효모와 당분을 넣고
2차 발효까지 하는 삼페인과 달리 자연농법으로 수확한
포도를 자연 효모만으로 발효한 뒤 여타의 첨가물 없이
생산한 것. 정제되지 않은 원초적인 매력의 펏нат은
포도 품종 본연의 맛과 아로마를 음미하기에도 좋지만
탄산이 부드러워 요리와의 매칭이 편하다.
글라스는 모두 ZALTO 제품



- 1 크루즈 스파클링 생 로랑**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크루즈 와인에서 생산한 것으로 생 로랑 품종 100%를 담아
드라이하면서 산뜻한 산미가 매력적이다. **9만9000원, ㈜크리스탈와인컬렉션**
- 2 줄리 페리올 펏нат** 위스카아 뿌비 그랭과 알렉산드리야 품종을 50:50 비율로 블렌딩한
줄리 페리올 와이너리의 유일한 펏нат 와인. **약 14만원, ㈜다경상사**
- 3 280 slm** 코스타달라 와이너리의 포도원은 해발 280m에 위치해 와인 이름도 이탈리아어로 '해발 280'이다.
오렌지빛의 와인에 말린 포도를 추가로 넣어 독특한 산화 향이 느껴진다. **6만5000원, 뱅베**
- 4 르 그랑 쏘 2015** 로제 컬러의 펏нат 와인으로 그로울로 100%를 발효해 달콤한 과즙 향과
요구르트 향이 조화롭다. 특히 목 넘김이 산뜻하다. **8만원, 뱅베**
- 5 시암반** 트레비아노 100%로 시트러스, 플로럴 향이 지배적이며 강렬한 미네랄리티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
이탈리아 아브루초 지역에 위치한 라미디아 와이너리에서 만든다. **7만원, 뱅베**



NATURAL TASTE

쿠홀로 테라짜의 자연친화적 취향.

인공 첨가물 없이 자연이 빚어낸 맛을 음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꽤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쿠홀로 테라짜'의 강현규 소믈리에에는 이미 5년 전부터 내추럴 와인 애호가였다. 순전히 그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채운 이곳의 와인 리스트는 80% 이상이 내추럴 와인. 유행과도 잘 맞아떨어진 덕분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금세 마음을 빼앗긴다. 함께 곁들이기 좋도록, 안주는 미니 피자인 '피제테'와 브루스케타 등 가벼운 요리 위주로 구성했다. 김지운 셰프가 수장으로 있는 만큼, 이탈리아 음식을 기반으로 선보이는 식사 메뉴 또한 훌륭하다. 입안에서 변주되는 내추럴 와인의 향연을 즐기다 보면 둘만의 시간이 그 흥미만큼 농익는다.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52길 33 ☎ 010-3347-1571



ORGANIC SELECTION

보칼리노의 선택을 받은 유기농 와인 한 잔.

일단 개봉하면 보관이 불가능한 와인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의 2층에 위치한 와인 바 보칼리노가 바로 그곳. 소규모로 생산되는 귀한 와인을 150ml 용량의 글라스로 제공해 한 모금 한 모금이 더욱 특별하다. 와인 종류 또한 40개가 넘는 데다가 호텔 소속 바로는 이례적으로 유기농 와인까지 구비했으니 연인의 취향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좀 더 새로운 와인을 함께 맛보고 싶다면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방문해 '해피 아워' 프로모션을 만끽해보자. 서희석 소믈리에가 엄선한 11종의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7 ☎ 02-6388-5500



TRUE SPIRIT OF WINE

비노스앤에서 느끼는 와인의 기운.

와인 숍 비노스앤의 대표는 "와인에도 기(氣)가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매일 모든 와인 병을 정성껏 닦는다. 작은 공간에 펫낫 와인 2종을 비롯해 생소한 와인들이 가득한 이유는 스스로 맛을 보며 즐기 위해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 와인은 환경에 의해 밸런스가 쉽게 깨지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택배 배송도 하지 않는다. 대형 매장과는 다르게 '필요한 것'만 하지만,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간다. 그 진심이 전해진 걸까? 판교에 위치한 이곳으로 서울과 지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와 함께 이곳에서 데이트용 와인을 찾아보는 건 어떨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58번길 4-2 ☎ 031-8017-7717



LE MÉRIDIEN SEOUL

호텔 스위트로 떠나는 럭셔리 여행.

블루 컬러로 통일한 다이닝룸



천장이 높아 더욱 웅장한 거실

커다란 침대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침실



햇살이 스며드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밤낮 없이 분주한 서울에서 일상의 피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뉜다. 잘 갖추어진 호텔에서의 휴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 하지만 두 방안을 모두 충족시키는 선택은 그리 쉽지 않다. 호텔 안에서 여행을 떠났듯 특별한 경험까지 만끽할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하지 않을까? 프랑스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호텔 '르 메르디앙'이 작년 말 한국에 최초로 상륙했다. '르 메르디앙 서울'에는 브랜드 고유의 가치관과 서울의 지역성이 고루 녹아 있다. 파리에서 시작된 태생을 따라 중세 유럽을 콘셉트로 꾸민 공간은 글로벌 디자인 회사인 데이비드 콜린스 스튜디오의 손길을 거쳤다. 특유의 예술친화적 감각 또한 그대로 옮겨와 호텔 곳곳에서 여러 회화와 조각 작품들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40여 개국의 르 메르디앙과 차

별화된 매력을 갖추기 위해, 르 메르디앙 서울은 한국적미를 더했다. 로비에서 푸르게 피어나며 맞이하는 김희경 작가의 한지로 제작한 '블룸(Bloom)'이 그것이다. 그 외 국내 설치예술 작가들과의 협업도 눈에 띈다. 가장 기품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336개의 객실 중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제격이다.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최고'라는 이름에 걸맞는다. 원형 로비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293제곱미터에 이르는 널찍한 공간이 펼쳐진다. 복층 구조로 설계한 거실은 2층의 한쪽 바닥을 더 천장을 높였다. 덕분에 더욱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높게 자리 잡은 유리창 너머로 3월의 햇살이 스며든다. 내리쬐는 빛을 피부로 느끼고 싶을 땐 나선형 계단을 올라 테라스로 향하면 된다. 하얀 대리석으

로 설계한 욕실, 푸른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식당 등 6개의 방은 다양한 소재와 컬러로 각각 개성을 살렸다. 가구가 알차게 들어찬 다른 방과는 달리, 침실에는 커다란 침대가 한가운데를 장악하고 있다. 둘만의 밤을 기다리는 이곳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투숙객을 위한 부대 시설 또한 돋보인다. 에드워드 권 셰프가 운영하는 '엘리멘츠'를 포함한 여러 레스토랑에서는 전통 한식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요리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14층에 위치한 클럽 라운지에서는 총 다섯 번의 다이닝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조식은 물론 애프터눈 티, 라이트 스낵, 와인까지 다른 호텔보다 여러 번, 때 맞춰 제공하니 언제 방문해도 만족스럽다. 1층으로 내려오면 국내 호텔 문화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인 'M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 콘텐츠는 휴식 시간을 더욱 다채롭게 해준다. 현재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워홀, 키스 해링 등 팝 아티스트의 원작을 전시 중이다.

머무르는 모든 순간이 오래 기억되도록, 르 메르디앙 서울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하룻밤의 휴식을 넘어 꿈같은 미식 여행과 문화 기행으로 남을 거다. 르 메르디앙 서울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1박에 2000만원.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0  02-3451-8000

 www.lemeridienseoul.com

“

Mr. Playboy Says

어떤 하루는 길고 고된 여행보다 더 강렬하게 기억된다.

예술을 담은 호텔 스위트에서
잊을 수 없는 둘만의 호사를 누릴 것.

”



흰 대리석으로 꾸민 욕실



르 메르디앙
서울의 외관



“

Mr. Playboy Says

여행의 시작은 공항에서부터다.
연인이 지치지 않도록 셀프
체크인부터 면세 쇼핑까지 미리
체크해두자.

”

IN THE AIR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오픈했다. 제1여객터미널에서 20분가량 떨어져 위치한 이곳은 공항 그 이상의 복합문화공간이다. 꼭 출입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제2여객터미널을 둘러봐야 하는 이유를 모았다.

1



Burger Stop 쉐이크 썹

국내 6번째 쉐이크 썹 매장으로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는 앵거스 비프 패티와 토종 효모의 포테이토 번으로 만든 버거가 대표 메뉴다. 아침 일찍 입 · 출국하는 여행자를 위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한 브렉퍼스트 메뉴가 준비돼 있다. 인천공항점 한정 디저트인 '플라이 미 투 더 썹'은 공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

2



Stay Calm 다락휴

공항 속 임시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캡슐 호텔. 약 2.38평(싱글룸) 안에 숙면을 돕는 시몬스 매트리스와 침구, 간단한 사무를 볼 수 있는 데스크에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알차게 갖췄다. 도서관 소음 수준인 40Db로 분위기 도 정숙한 편. 싱글 베드와 더블 베드 룸이 있으며 추가로 5천~7천원을 지불하면 샤워실이 딸린 룸을 이용할 수 있다. 위치는 지하1층 교통센터.

3



All About Korean Food 미담길

여행 전의 설렘과 여행 후의 고단함을 달랠 수 있는 한식 셀렉트 다이닝 존이다. 전국 한식 명인들의 요리를 한 자리에 큐레이션해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전주비빔밥 무형문화재 김년임 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원조 비빔밥 식당 '가족화관'과 떡갈비로 이름을 날린 담양의 '덕인'과 '도시농부', 서울 광장시장 맛집 '순희네 빈대떡'까지. 지하1층 교통센터 입구에 자리해 찾기 편하다.

4



Entertainment Tour 환승 투어

환승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려면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총 8개 환승 투어가 있는데, 짧게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아트테이먼트 투어부터 길게는 서울로 이동해 명동 거리를 거닐며 쇼핑하는 투어까지. 모든 투어는 영어로 진행되며, 등록은 선착순이다.

5



D. I. Y 셀프 서비스 존

이제 수화물 위탁도 셀프로 가능하다. 40대의 스마트 백드롭 기계를 설치해 출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시킨 것. 제2여객터미널에만 있는 서비스 존을 이용하면 수화물 위탁을 위해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되며 기존 체크인 아일랜드 존에서 5분 이상 대기할 필요도 없다.

6



Chef's Bowl 평화옥

지난해, 미쉐린 가이드 북에서 2스타를 획득한 정식당 임정식 셰프의 공방집이다. 한우 암소만으로 맛을 낸 대표 메뉴 매운양곰탕을 비롯해 평양냉면, 육회비빔밥 등 한식 메뉴를 선보인다. 출국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 내방객도 이용할 수 있어 인천 맛집으로 떠오를 전망. 2인 이상 주문할 경우 포장도 가능하다.

7



Explore Airport 전망대 & 체험공간

다양한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5층에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역사와 VR 체험존, 타임슬라이스 포토존까지. 실시간으로 활주로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 정보도 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수화물의 여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탑승형 VR 체험존이 인기다.

8



Chill Out 마티나 라운지

워커힐 호텔앤리조트가 선보이는 라운지. 201석으로 구성됐으며 성인 약 4만원, 어린이 약 1만8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프라이빗한 다이닝 부스와 다이닝 테이블로 느긋하게 즐길 수 있고, 메뉴도 알찬 편. 무제한 제공되는 레드 와인과 생맥주 섹션도 빼놓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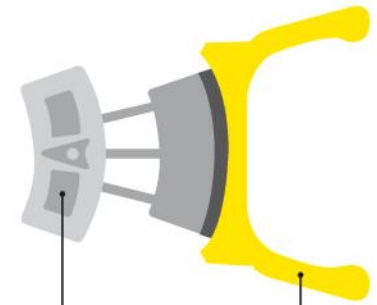
9



High Fashion Street 신세계 면세점

3년 만에 샤넬이 다시 돌아왔다. 더불어 발렌티노와 리모와를 국내 면세점으로는 유일하게 입점시켜 하이패션 스트리트를 조성했다. 국내 공항 최초로 캐릭터 존도 구성했는데, 카카오 프렌즈, 라인 프렌즈, 뽀로로 등 국내외로 인기 많은 캐릭터를 한데 모았으니 어른이 할 것 없이 즐거울 일만 남았다.

제2여객터미널(T2) 층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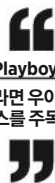
	제2교통센터	T2 (제2터미널)
		일반 구역
		면세 구역
5F		전망대 7
4F		항공사 사무실 6
3F		출발층 (국제선) 5
2F	T2 연결 구간	정부종합행정센터 상주기관 사무실
1F	단기 주차장	도착층 4
B1	대중교통 단기 주차장 1 2 3	전문 식당가

10



Museum In Airport 아트 워크

한마디로 '공항이자 미술관'이다. 출국 동선부터 입국 동선까지 고려해 공간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프랑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자비에 베이앙 작가의 작품은 3층 4~5번 게이트에, 윌리엄스 포프와 김병주 작가의 설치미술은 수화물 수취구역 서쪽과 동쪽에 각각 설치됐다. 작품은 점차 늘어날 계획이다. ㉠



Mr. Playboy Says

진정한 플레이보이라면 우아하고 섹시한 스포츠,
테니스를 주목할 것.

LET'S SMASH

정현 선수의 승승장구로 테니스 붐이 일고 있는 지금,
테니스가 좋아진 이유 네 가지.

1 SPORTY

한 경기를 마친 테니스 선수의 팔 운동량은 투수가 9회를 완투한 것보다 많다. 테니스는 그만큼 근육 사용량이 많은 스포츠다. 테니스에서 주로 쓰는 근육은 대퇴부, 대흉근, 상완이두근. 특히 상대의 공을 받으려 단숨에 뛰어나갈 때처럼 순간적인 움직임이 많아서 허벅지 근육이 잘 발달하며, 스매싱처럼 팔을 세게 휘둘러 땀 팔 근육이 바짝 자극된다. 탄탄한 허벅지와 섹시한 팔을 만들어주는 운동이 아니라, 침대에서 절실한 힘 아닌가.

2 HEALTHY

테니스는 무산소운동은 물론 유산소운동 효과도 볼 수 있는 스포츠다. 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병 예방 효과도 있다. 경기만 봐도 알 수 있듯 제 코트 안에서 앞뒤 양옆으로 잼싸게 움직이는 테니스는 체중과 체지방 모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했던가, 테니스는 상황 판단력과 자기 효능감도 향상시키며 우울증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3 TWO OF US

단식이라면 2명, 복식이라면 2인 1조로 4명이 겨룬다. 정식 룰에 따르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테니스다. 몸 풀 땀 살살, 감이 좀 잡히면 세계, 부드럽고 작은 공을 서로의 사이에 놓인 선 위로 넘겨가며 주고받는 호흡, 굳이 소리 내지 않고 몸으로 말하는 것도 테니스의 매력이다. 처음 만난 사람도, 매일 보는 사이도 테니스장에서 나눈 합만큼 더 가까워지고, 흘린 땀만큼 끈적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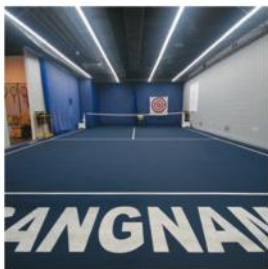
4 STYLISH

일반적으로 테니스복은 남자는 깃이 달린 셔츠(피케셔츠 포함)에 쇼츠, 여자는 원피스 또는 피케셔츠에 테니스 스커트를 입는다. 테니스는 12세기 프랑스 귀족들이 즐겨 하던 스포츠 라폼드(La Paum)에서 유래된 스포츠로서 깨끗하고 정갈한 차림으로 임해야 하는 '백색 의상 스포츠'. 활동적이면서도 힘 있고 우아한 움직임의 테니스는 태생부터 이미 고급스럽다.



COURT

추천하는 실내 테니스장 세 곳.



강남 테니스 아카데미

정식 오픈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식 실내 테니스장. 두 개의 테니스 코트가 있으며, 선수 출신 강사에게 개인 혹은 그룹 레슨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319 ☎ 010-9821-5988
● gangnamtennis.modoo.at



여반 테니스

다수의 현 프로 선수들이 강사로 소속되어 있는 테니스장. 강남구에서 실제 풀 코트와 동일한 크기의 실내 테니스장은 여반 테니스가 유일하다.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56 ☎ 02-565-9846
● urbantennis.co.kr



위드 테니스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세계 4대 그랜드슬램의 디자인을 모티프로 한 럭셔리한 인테리어의 실내 테니스장. 주니어 국가대표 출신 코치인 김영재, 김종혁이 강사로 소속되어 있다.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66 ☎ 02-557-1959
● withtennis.com

주목받는

360도 카메라 #리코세타V



THETA 시리즈의 모든 것
www.theta360.com



Calvin Klein *Andy Warhol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가 앤디 워홀 파운
데이션과 협업해 그의 영화 <키스>(1963)
의 스틸 컷을 새긴 캡슐 라인을 선보였다.
원작의 흑백필름 속, 열렬히 키스를 나
누는 열두 쌍의 커플은 남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를 가깝게 마주한다.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랑의 장면이 남
성용 브리프와 여성용 비키니에 담겼다.

www.calvinklein.com



Condom For Women

미국 <플레이보이>가 여성용 콘돔의 솔
직한 후기를 공개했다. 처음에는 바세린
튜브를 끼운 것 같았고, 섹스를 하던 도중
빠져버렸다고. 오히려 빠진 콘돔을 몸 안
에서 빼내려던 손가락의 느낌이 더 짜릿
했다는, 예상치 못한 쾌락을 끝으로 이야
기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 번쯤은 사용
해볼 것을 권했다. 물론, 올바른 착용법
숙지는 필수다.

www.playboy.com



Porn For Female

포르노 영상의 주 애청자는 당연히 남성
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주목하자. 미국
<플레이보이>에 의하면, 포르노 사이트
폰허브(Pornhub)는 작년 한 해 가장 뜨
거웠던 검색어로 '여성을 위한 포르노'를
꼽았다. 심지어 여성 이용자의 검색 횟수
가 3.6배나 증가했다고. 부끄러워할 이유
도, 숨길 필요도 없다. 모든 인간은 성별
을 떠나 평등하고, 이는 성적 욕구를 마주
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www.playboy.com

POTPOUR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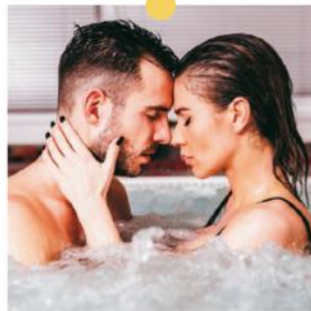
신중히 고르고 멋대로 뽑았다.
<플레이보이> 편집팀이 선정한 자구를 아우르는 소식.



Favorite Shape

남성 성기의 생김새는 너무나도 다양하
지만, 섹스 상대의 취향에는 어느 정도 일
관성이 있는 듯하다. 폴란드 <플레이보이>
>가 그 선호도를 다루는 속 시원한 통계
결과를 귀띔했다. 길이보다 굵기, 크기보
다 모양이 중요한 요소라고. 구체적인 모
양으로는 휘어지지 않고 곧게 뻗은 것을
더욱 좋아한다. 모두 해당된다면, 한껏
기뻐해도 좋다. 하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
지나치게 자만하지는 말 것.

www.playboy.pl



Hot Tub

아직 쌀쌀한 3월, 뜨끈한 욕조 속은 사랑
을 나누기에 선호되는 장소 중 하나다. 하
지만 그 전에 먼저 미국 <플레이보이>가
전하는 주의사항을 참고할 것. 열기 가
득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거나 화
학 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니 감염을 조심
해야 한다. 계절을 만끽하는 섹스도 중요
하지만, 건강한 섹스에는 반드시 청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www.playboy.com



A Guide To Fing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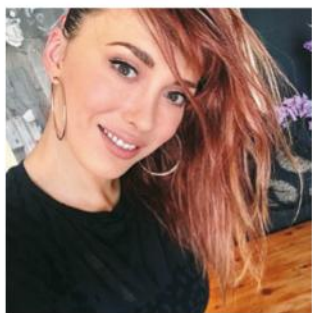
섹스를 할 때, 손으로 하는 행위는 보통
'메인 이벤트'의 전후 단계라고만 생각하
기 쉽다. 하지만 미국 <플레이보이>에 따
르면, 작은 손동작 하나하나가 오르가슴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본격적인 사
랑을 나누기 전, 조금만 마음은 가라앉히
고 섬세한 움직임을 느끼며 순간에 집중
할 것.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도, 세계 힘
을 주어서도 안 된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
아오를수록 더욱 짜릿한 다음 단계를 즐
길 수 있을 거다.

www.playboy.com



The Best Sex

모든 일에는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 법. 9
년간 5000편의 AV에 출연한 시미켄이
저서 <베스트 섹스>를 출간했다. 섹스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자신의
노하우를 풀었는데, 오르가슴의 원리, 다
양한 체위 및 키스와 애무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해설한다. 언젠가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 훈
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Brave Women

모델이자 저널리스트, 그리고 사회운동가 패리스 리가 영국 <보그>의 첫 트랜스젠더 모델로 선정돼 지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발산했다. 여성 참정권 획득 100주년 특집호로, 노동당 스티라 크리시 의원, <Gal-Dem> 매거진의 설립자 리브 리틀, 여성평등당의 대표 소피 워커 등 여성 인권에 힘써온 저명인사들과 함께한 것. 그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요”라며 소감을 밝혔는데, 이번 트랜스젠더 모델의 <보그> 데뷔는 미국, 프랑스 <보그>에 이어 세 번째다.



Thank You, Kinsey

독일 <플레이보이>가 70여 년 전 <킨제이 보고서>에서 성생활의 미래를 일찍이 알아챈 기록 몇 가지를 소개했다. 습관처럼 자위를 반복해도 만족스러운 섹스를 나눌 수 있고, 응답자의 22.3%가 공격적인 섹스를 즐긴다는 등 여러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전했다. 성적 자유는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이토록 개방적인 분석을 진작 눈여겨보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킨제이보고서>에 빛을 지고 있던 셈이다. www.playboy.de



The Voice

벌레스크의 여왕, 디타 본 티즈의 첫 음반을 독일 <플레이보이>가 발 빠르게 소개했다. 프랑스의 뮤지션 세바스티앙 텔리에가 그의 쇼를 관람한 후 만든 곡들에는 화려한 무대 뒤의 유약하고 불안한 마음이 담겨 있다. 40대 후반임에도 매혹적인 스타일, 지혜와 품격을 잃지 않은 그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래의 여성에게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한다. www.playboy.de



The Legend

록 기타의 전설, 지미 헨드릭스가 세상을 떠난 지 40여 년이 흐른 지금, 그의 미발표 곡 'Mannish Boy'가 최근 소니뮤직을 통해 공개됐다. 밴드 오브 집시스(Band of Gypsies)의 동료인 빌리 콕스, 버디 마일스와 함께 머디 워터스의 원곡에 특유의 강렬한 선율을 더했다. 더 많은 그의 미발표 곡들은 곧 발매될 앨범 <Both Sides of The Sky>에서 만나볼 수 있다.



Shout!

정현의 호주 오픈 4강 진출과 함께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스포츠, 테니스, <플레이보이>가 스트로크를 때리는 테니스 선수들의 섹시한 기합 소리를 일상에서 찾았다. 마리아 샤라포바는 '전투기'가 창공을 뚫고 날아가듯 시원하고 데시벨 높은 소리를 낸다. 세레나 윌리엄스가 탄탄한 몸에서 내는 강력한 소리는 마치 '코볼소'를 연상시킨다. 빅토리아 아자렌카는 팽팽하게 당긴 활시위를 떠나 날아가는 '화살' 같은 소리로 유명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벨라루스의 대표 선수 아리나 사발렌카의 포효는 마치 '수코끼리'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내지르는 그것 같다. 끝으로 소개하는 건 1990년대를 대표하는 선수 모니카 셀레스다. 최연소 우승자로도 유명한 그녀의 2음절 신포탄은 경쾌하며 때론 '태권'의 "이크에크!"를 연상케 해 친숙한 느낌도 든다. 경기장 가득 울려 퍼지는 선수들의 힘찬 기합에 상대 선수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PISCES
2.19-3.20

열대와일에는 남국의 느긋한 여유와 유쾌한 낙천성이 깃들어 있다. 3월의 당신에게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권하는 이유다. 잦은 짜증과 피로감 속에서 이달을 보내기 때문이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은 과열된 전두엽을 식혀주며, 고소한 코코넛 과육은 칼슘이 풍부해 골수까지 힘을 채워준다. 그녀와 긴 밤을 보내고 싶은 날에도 그만이다. 집중력과 지구력을 높여주는 결로 정평이 났으니.



MARCH
×
SEX FOOD

별들이 골랐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를 더욱 뜨겁게 데워줄
섹시한 음식.
by 김은하

ARIES
3.21-4.19



허와 입술 그리고 구강점막의 욕망이 서로 상충하고 길항하며 복잡 미묘하게 얽힌다. **브랜디가 든 초콜릿**은 이런 모순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아이템이다. 그것은 끈 끈하고 뜨거우며 달콤하고 씹스럽다. 단단한 고체는 허를 만나 흐르는 액체가 되며, 이어 타는 불이 되어 구강점막 곳곳에 스민다. 서로의 입술을 애타게 찾게 되는 그런 맛이다.

TAURUS
4.20-5.20



섹스를 나눈 후라도 좋고, 나누기 전이라도 좋다. 허를 때리는 열열한 매운맛이 특징인 **마라훤귀**는 인생이든 사랑이든 알 만큼 아는 어른들을 위한 스태미나 푸드로 제격이다. 특유의 통렬한 향미가 잠들었던 리비도를 깨우고, 후끈하게 온몸을 데워 오장육부에 숨은 피로감까지 말끔하게 씻어낸다. 어둑어둑해져가는 저녁의 정취와도 잘 어울린다.

GEMINI
5.21-6.21



새봄을 점령한 가장 핫한 음식은 **딸기**다. 딸기 티라미수, 딸기 마카롱, 딸기 상그리아 등등 호텔마다 '스트로베리 핑크'의 물결이 넘친다. 딸기의 단맛은 딱딱했던 마음을 말랑하게 풀어주며, 딸기의 산미는 기분 좋은 전율로 온몸을 간지럽힌다. 게다가 핑크색이 여성의 성감을 자극한다는 걸 알고 있나? 이제 그녀의 뺨이 '스트로베리 핑크'로 물들 차례다.

CANCER
6.22-7.22



킹크랩은 단백질, 키토산,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된 스태미나 푸드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달에 킹크랩을 먹어야 할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발라 먹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다. 꽃게 따위와 비교하지 마라. 딱딱한 껍질 속에 결박된 두툼한 살은 서로의 손가락까지 쪽쪽 빨고 싶게 맛있다. 또, 후미에서 느껴지는 '콤콤한' 바다 향기가 욕망을 일으켜 세운다.

LEO
7.23-8.22



봄비가 내리는 날에는 그녀와 **시나몬라테**를 마실 일이다. 서늘한 빗줄기를 바라보며 마시는 뜨거운 커피가 안겨주는 에로틱한 여운은 생각보다 깊고 진하다. 게다가 달고 알싸한 시나몬이 첨가된다면, 그 효험은 가히 최음제에 가까워진다.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셔보라. 빗소리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로 들리는 환청이 당신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VIRGO
8.23-9.23



물결몰강하고 졸깃졸깃한 식감이 입안에서부터 에로스를 깨운다. 그런데 안 그래도 웰빙클리하게 생긴 명게가 달래, 부추 같은 오신채와 버무려지면? 목젖에서부터 후끈한 기운이 오장육부를 거쳐 온몸의 성감대를 진동시킨다. **명게비빔밥**은 삶에 지쳐 욕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요리다. 불끈 되살아나는 욕망과 함께 생의 활력도 되돌아올 것이다.

LIBRA
9.24-10.22



〈에로틱한 음식 사전〉에서 파스타의 위상은 공고하다. 면을 호로록 삼킬 때 동그랗게 오므라지는 입술은 얼마나 섹시한가. 영혼까지 빨아들일 듯한 소리는 또 어떨고, 스파게티 가닥은 입천장을 탁 치고 목젖을 애태우며 넘어간다. 이왕이면 제철 바지락을 듬뿍 넣은 **볼로네 파스타**다. 화이트 와인과 어우러진 농밀한 조제 육수에 온몸이 액체처럼 녹아내린다.

SCORPIO
10.23-11.22



그냥 먹어도 맛있는 참치회에 식감까지 더했다. **참치 다다키**는 겉은 쫄깃하고 고소하며, 속은 허에 녹아내릴 듯 부드러운 식감의 양극단을 오간다. 허야말로 식욕과 성욕을 빠르게 연결하는 최고의 감각기관. 한번 발동 걸리면 허는 감각적 쾌락을 좇아 안달하는 법이다. 그때 사케 한 잔을 마셔보라. 허를 달래기 위해. 다음 스테이지로 허를 데려가기 위해.

SAGITTARIUS
11.23-12.24



토라진 그녀와 사프란을 넣은 **황금빛 파에야**를 먹자. 사프란의 향기는 은은하고, 성질은 따스하며, 맛은 달 짙지근하다. 속이 뜨끈해지며 원기가 살아나는 지양강장 효험도 훌륭하다. 냉랭했던 상대의 표정이 태양처럼 환해진다. 팽팽하던 긴장감도 일순 푼, 하고 끊어진다. 왜 고대로부터 사프란을 황금보다 귀하게 여겼는지 단숨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CAPRICORN
12.25-1.19



긴긴 겨울을 통과하느라 기력이 쇠진한 몸은 소화력이 약하고 입맛까지 잃어 웬만한 음식은 당기지 않는다. 하지만 산란기를 맞아 살이 통통 오른 **도다리 뼈회**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소한 감칠맛이 씹을수록 더하며, 은은한 수박 향에 입안이 황홀하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 사랑을 나누기 전 '전희 음식'으로 먹기에 부담 없다는 점도 미덕이다.

AQUARIUS
1.20-2.18



때로 캄사이신의 매운맛은 상대와 거리를 좁히고 마지막 장벽을 무너뜨리는 효험을 발휘한다. 맛있는 매운 **닭발볶음**을 가운데 놓고, 소주잔을 기울여가며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라. 매운 불 향기는 술적해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끈끈한 식감은 대화에 감칠맛을 더한다. 이틀날 두 사람의 얼굴에 비친 생기 발랄한 윤기가 닭발의 '콜라겐 효험'만은 아닐 거다.

PLAYBOY

TASTES:

공간, 시계, 차, 예쁜 여자...
〈플레이보이〉의
고집스러운 취향을 모았다.

최근 한식의 맛에 빠진
평화육 김정식 셰프의 손

MY WAY - BAR - TECH - FOOD - SPACE - WATCH - ITEM - CAR - SWEETHEART

THE CHEF YIM JUNGSIK

한국인 최초의
미쉐린 2스타 셰프가
곰탕을 만들고
냉면을 뽑아낸다.
'평화옥'의 임정식은
그렇게 한식의
본질에
더 가까워졌다.



2년 동안 매일 냉면을 먹었더니 정말 냉면집 사장이 됐어요. 냉면은 현재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국 음식 같아요. 그리고 국밥.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해외에는 그런 식문화가 없거든요. 캐릭터가 확실하죠. 해외 어디에 내놔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북한과 남한의 국물 요리, 냉면, 국밥을 내놓는 곳. 그래서 이름도 '평화옥'이에요. 한국의 노포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앙에 긴 커뮤니티 테이블을 만들고 혼자 온 손님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각두기나 찬을 자유롭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요, 그누구도 한식을 정의 내릴 순 없어요. 하루에 1천 그릇 정도 파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매운양곰탕이 600그릇 정도 되고요. 쇠고기로는 낸 육수가 베이스인데, 고춧가루를 넣어서 육개장처럼 얼큰해요. 평양냉면은 몇 주 전부터 시작했어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한 100번 정도? 메밀이라는 식재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잘 마르고 부러져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올랐어요.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는 다 뺐어요. 심플하게 가려고요. 매운양곰탕은 숙성시킨 고춧가루 양념장을 넣어 기존 하얀 곰탕과 다르게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식의 매운맛을 좋아해요. 냉면은 면, 고기 그

리고 직접 담근 백김치. 이 세 가지 조합만 잘 맞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았어요. 면은 약간 꾸덕꾸덕한 식감으로 완성하고 잘 익은 백김치를 올려요. 마지막으로 고기는 최대한 얇게 썰어서 넉넉하게. 먼저 냉면 육수 한 번 마시고, 고기와 백김치로 싸서 먹고 마지막으 백김치 국물을 살짝 넣어 먹어보세요. 곰탕에 각두기 국물을 넣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픈 초기엔 정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정식당'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시스템을 잡아가는데 애먹었어요. 컴플레인도 많았고요.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다가 잠깐 자고 다시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잠깐 쓰러졌다가 다시 나오기를 며칠 반복했는데, '아,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어요. 체력 관리는 전혀 못해요. 아마 5

월까지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맛은 기본인 것 같아요. 요즘 공간의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공간이 주는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정식당을 운영하지만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가성비를 따지면 안 돼요. 먹으러만 오는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만 가도 정말 화려하고 멋있거든요.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

나올 정도죠. 그래서 코스 요리보다 단품 요리로 눈을 돌리는 요리사도 많은 것 같아요. 평화옥이 잘되면 평화옥의 다른 브랜드를 내고 싶긴 해요. 아직 생각중이지만. 요리사가 아니어도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디자인 쪽으로요. 새롭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혼자서 공상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사무 쪽은 정말 소질 없고 감성적인 작업이 저

아쉬웠던 것보다는 좋은 일, 만족스러운 일이 더 많았어요. 운도 좋았던 것 같고, 또 남보다 빨리 시작해서 지금은 안정을 찾았죠. 지나간 것은 정말 지나간 대로. 평소에도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죠. 뉴욕에 정식당을 낸 것도 잘한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는데, 무모해서 가능했던 일 같아요. 여물지 않은 판단으로 갔지만요.



서 저는 투자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구조가 더 많아져야 하고요. 한국에는 실력 있는 요리사가 정말 많은데, 노력하는 만큼 가격도 못 받고 안타깝죠. 내년이면 벌써 10년이에요. 정식당을 시작한 지 딱 10년. 한편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고객이 레스토랑에 충성할 필요는 없다.' 고객은 언제든 떠날 수 있거든요. 한국에 좋은 식당도 많고 또 다이닝은 더 이상 기호 식품이 아니잖아요. 파인다이닝은 세계적으로 침체됐어요. "Fine dining is dead."라는 말이

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글씨는 읽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잘 못 읽어요. 그런데 공간 만드는 일은 재밌더라고요. 평화옥 도면도 직접 다 그렸어요. 천장의 세부부터 바닥 소재, 타일 그리고 조명까지도요. 수저, 젓가락, 곰탕용 그릇까지 디자인했어요. 스테인리스가 사용하기는 편한데,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수저랑 젓가락이 자주 없어져요. 비싼 건데... 소주잔, 맥주잔, 물컵까지 만들어볼 생각이예요. 그리고 중앙 테이블에 타이타늄으로 만든 항아리까지 올리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요즘은 소스에 폭 빠졌어요. 외가가 미국에서 있어서 항상 타바스코소스가 있었거든요. 라면에 뿌리기도 하고 30년 가까이 먹었죠. 스리라차소스는 먹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매운맛, 단맛, 신맛, 감칠맛까지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결정적으로 본질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에요. 마케팅 비용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브랜드가 같이 작업하고 싶어할 만큼 승승장구하죠. 본질이 확실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식당이든 브랜드든 어떤 식으로든 말예요. ❶

'정식당'은 2009년, 임정식 셰프가 오픈한 뉴 코리안 레스토랑이다.
2014년, 신사동에서 지금의 청담동 자리로 이전했고, 2018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서 2스타를 획득했다.

NOW BOTANICAL GIN

스토리와
개성으로 무장한
크래프트 진이 핫하다.
그중 식물성 재료로만
블렌딩한
보태니컬 진의
세계.



골드 프레임의 다용도 트롤리는 **까레**,
8각형의 실버 트레이는 **알레시** 제품



PLAYBOY'S CHOICE

1 THE KING OF SOHO

총 네 번 증류한다. 단식 구리 증류기로 두 차례 증류한 뒤 코리앤더, 자몽 껍질, 안젤리카 뿌리, 계수나무 등 12가지 식물성 재료를 넣고 두 번 더 증류한다. 강한 주니퍼베리와 코리앤더 아로마에 싱그러운 시트러스 아로마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41만원**

2 PORTOBELLO ROAD NO.171

런던의 전설적인 바텐더 제이크 버거의 손에서 탄생한 진으로 너트 맥과 계수나무에서 나는 독특한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 스파이시한 아로마로 진 중에서도 개성이 강한 편이지만 두터운 마니아 층을 자랑한다. **31만원**

3 JUNIPERO

샌프란시스코 앵커 브루잉 컴퍼니의 개성 있는 DNA를 담았다. 12종 이상의 보태니컬 재료로 증류했는데, 각 개성을 살리기 위해 병입 전 따로 여과를 하지 않은 것이 특징. 도수는 49.3%다. **43만원**

4 MARTIN MILLERS

영국 사교계 핵심 인물이던 마틴 밀러와 그의 친구들이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프리미엄 진. 주니퍼베리를 비롯해 각종 재료를 각각 증류한 뒤 다시 합쳐 2차로 증류하는 방법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하다는 아이슬란드 광천수를 블렌딩해 알코올 향이 적고 마일드한 편. 1999년 첫선을 보인 뒤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진'으로 기록됐다. **33만원**

5 ROCK ROSE SCOTTISH GIN

스코틀랜드 최북단에 위치한 네넷 베이 증류소의 드라이 진이다. 장미 뿌리, 갈매나무, 로언베리, 블루베리 등 18가지의 보태니컬 재료로 만드는데, 모두 증류소 주변 농가나 야생에서 수급한 것들이다. 특히 섬세한 프루츠 아로마와 플로럴 아로마가 도드라진다. **40만원**

프리미엄 진이 쏟아져 나오더니 이제는 스몰 배치의 보태니컬 진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성장했다. 초반에는 영국이 주도적이었으나 곧 벨기에, 독일, 미국 등이 동참했고, 현재는 일본이 수준 높은 보태니컬 진을 생산한다. 여기서 '보태니컬(Botanical)'이란 진의 원료로 쓰이는 모든 식물성 재료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주니퍼베리, 안젤리카 뿌리, 코리앤더 열매 그리고 감초가 들어가야 비로소 진이라 할 수 있다. '보태니컬'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넣고 증류했느냐'에 따라 진의 퀄리티와 개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HOW TO ENJOY

진 피즈

진을 베이스로 레몬 주스, 소다로 믹싱한 칵테일. 신맛과 약간의 쓴맛이 조화롭다.

Ingredients 주니페로 진 11/2oz, 레몬 주스 1/2oz, 설탕 2ts, 소다 · 레몬 필 · 얼음 적당량씩

1 셰이커에 주니페로 진, 레몬 주스, 설탕을 넣고 흔든다. **2** 얼음을 채운 글라스에 ①을 붓고 소다를 채운다. **3** 레몬 필로 장식한다.

네그로니

시트러스 아로마가 강한 리큐어인 캄파리, 안티카를 진과 섞은 칵테일. 이탈리아에서는 식전주로 마신다.

Ingredients 락 로즈 진 11/3oz, 캄파리 1/4oz, 안티카 포물러 1/2oz, 오렌지 필 · 얼음 적당량씩

1 글라스에 얼음을 채운다. **2** ①에 락 로즈 진, 캄파리, 안티카 포물러를 차례대로 붓고 가볍게 젓는다. **3** 오렌지 필로 장식해 마무리한다.

화이트 레이디

오렌지 껍질로 만든 프랑스 리큐어 코엥트로와 레몬 주스 그리고 진을 섞었다. '하얀 귀부인'이라는 뜻의 칵테일.

Ingredients 킹 오브 소호 진 11/3oz, 코엥트로 1/3oz, 레몬 주스 1/3oz, 얼음 적당량

1 셰이커에 킹 오브 소호 진, 코엥트로, 레몬 주스를 넣고 흔든다. **2** 얼음을 채운 글라스에 ①을 붓는다.

BEST BAR

화이트 바

국내에 처음으로 모히토를 소개한 장본인이자 디자이오 코리아의 앰배서더였던 장동은 대표의 화이트 스피릿 바다. 진의 매력에 빠져 약 2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희귀 진을 공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70여 종의 보태니컬 진을 한자리에 모았다. 한 병에 50만원을 훌쩍 넘는 것도 있다. 화이트 바는 희귀 진을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 또한 선보이는데, 커스터마이징한 자체 토닉 파우더까지 갖추고 있다. 진 외에 다른 화이트 스피릿인 보드카, 테킬라, 백주 등도 즐길 수 있다.

③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80길 30 심도 빌딩 B1
☎ 02-6207-7429



TEFAL

초고속 블렌더 울트라 블렌드 쿡

분쇄와 요리가 동시에 가능한 블렌드가 등장했다.

3만2000RPM의 초강력 모터와 6종 칼날이 탑재된 이 블렌드는 100℃로 내용물을 끓이는 히터 기능이 추가됐다.

433×265×392mm
34만9000원



CUISINART

에그 쿡커

간단한 요리가 때로는 가장 어려운 법. 삶은 달걀은 물론 수란과 오믈렛까지 머신 하나로 가능하다. 삶은 달걀은 최대 10개까지 동시에 조리할 수 있다. 트레이가 쉽게 분리돼 세척도 간편하다.

165×200×160mm
6만4900원

WMF

고메 안티 오우더 슝

거품 없이 손, 도마, 칼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해주는 스테인리스 비누다.

일반 비누처럼 흐르는 물에 사용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반영구적이다.

WMF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한 스테인리스 크로마간(Cromargan)으로 만들어 내구성도 뛰어나다.

50×90×20mm
3만원

주방이
더욱 섹시해지는
10가지 물건.

KITCHEN EDGE



MENU

와인브래더 카라페

바이 놀 아키텍스

기존 디캔터 대비 10배 이상의 산소를 와인에 공급한다.

그것도 단 2분 만에.

와인 병 입구에 디캔터를

끼우고 뒤집으면

와인이 흘러내리면서

디캔팅되는 원리다.

50.8×101.6×177.8mm

54.95달러

(약 6만원)

store.

menudesignshop.com

WILLIAMS SONOMA

스마트 온도계

음식을 잘라보거나 매번 주방으로 드나들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아이템이다. 끝에 달린 탐침이

음식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현재 온도와

목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간다.

146.05×63.59×76.2mm

199.95달러(약 21만7000원)

www.williams-sonoma.com





NESPRESSO

바쥬오

고압 추출 방식 대신 센트리퓨전 회전 추출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 네스프레소의 커피 머신이다. 최대 7000RPM의 초고속 회전 추출로 더욱 농밀한 크레마와 보디감의 커피를 추출한다. 게다가 23종의 캡슐을 자동 인식해 캡슐마다 최적의 커피를 추출하는 스마트함까지 갖췄다. 기존 네스프레소 캡슐은 호환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할 것.
231.9×335.2×325.1mm
29만9000원

MENU

비어 포머

투명 컨테이너에 맥주를 약간 따른 뒤 뚜껑을 덮고 버튼을 누르면 고운 입자의 거품이 완성된다. 완성된 거품을 마시던 맥주 위에 살포시 따르면 마지막 한 모금까지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76.2×175.26mm
9.95달러
(약 1만800원)
store.
menudesignshop.com



CHEFSTEPS

줄 수비드

이 머신 하나면 집에서도 품나게 저온 조리 가능하다. 한 손에 들어오는 슬림한 본체에 조작도 단순한 편. 특히 최근 출시한 로즈 컬러가 반응이 좋다.
47×280mm
199달러(약 21만6000원)
www.chefsteps.com/joule

CUISINART

콜드 브루 메이커

콜드 브루 커피는 긴 인내심을 요구한다. 짧게는 1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데, 아시아 최초로 출시된 이 메이커는 단 25분이면 추출이 완료된다.
180×330×250mm
14만9000원



PANCAKEBOT™

팬케이크봇

팬케이크 전용 3D 프린터. 그릴과 디스펜서뿐인 꽤 단순한 구조지만 결과물은 기대 이상으로 정교하다. 팬케이크봇 웹사이트에서 도안을 그리고 그 도안을 프린터로 옮기면 도안과 똑같은 팬케이크가 완성된다.
728.98×444.5×381mm
299.95달러(약 32만원)
www.pancakebot.com



“보름달이 뜨기 전, 카탈루냐산 초콜릿 소스를 바른 성게를 먹고 잠에 들면 기묘한 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
살바도르 달리

GET



성게 스크램블드에그

스크램블드에그에 생크림, 성게를 넣어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극대화했다. 성게가 익숙하지 않은 이라도 달걀과 함께 거부감 없이 성게의 매력을 음미할 수 있는 요리다.

Ingredients 달걀 2개, 생크림 3큰술, 성게 1큰술, 메추리알 노른자 1개, 소금·포도씨 오일 적당량씩

Recipe 1 불에 달걀, 생크림, 소금을 넣고 고루 푼 뒤 성게 1큰술을 넣고 섞는다. **2** 달군 팬에 포도씨 오일을 두르고 ①을 넣어 스크램블드에그를 만든다.

3 성게 껍질에 ②를 채우고 메추리알 노른자와 남은 성게를 올려 장식한다.

WET

우리가 '성개알'이라
알던 것이 바로
성개의 생식선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여기 빠르게
스태미나를 채워주는
네 가지 성개
레시피를 제안한다.
순서만 잘
따르면 흠뻑 젖는 건
시간문제다.

photography
by
park jaeyong



초콜릿 소스를 얹은 성개와 관자 카르파초

신선한 성개와 조개관자에 씹싸래한 다크 초콜릿 소스를 곁들였다. 카탈루냐 출신의 살바도르 달리가 매일 밤 즐겼던 요리로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단짠'의 묘한 조합이 중독적이다.

Ingredients 관자 2개, 성개 2큰술, 래디시 1개, 레몬즙 1큰술, 소금·레드 소렐·초콜릿 소스 적당량씩

초콜릿 소스 다크 초콜릿 10g, 코코아 파우더 2/3큰술, 양파 1/4개, 당근 1/6개, 셀러리 1/3대, 다진 마늘 1작은술, 레드 와인 1/2컵, 닭 육수 2/3컵, 토마토 홀 1/2컵, 월계수잎 1장, 포도씨 오일·소금·후추 적당량씩

Recipe 1 관자는 얇게 저며 레몬즙과 소금을 뿌려두고 래디시는 얇게 썬다. **2** 초콜릿 소스는 분량의 재료를 넣고 뭉근하게 끓여 만든다. **3** 저며둔 관자 위에 성개, 래디시, 레드 소렐을 얹은 뒤 초콜릿 소스를 뿌려 완성한다.



성게 크림소스 파스타

심심할 수 있는 크림소스에 한 스푼의 성게로 풍미를 더한 파스타. 중간중간 입안에서 툭툭 터지는 연어알과 성게가 주는 식감 또한 일품이다.

Ingredients 오징어 먹물 파스타 면 120g, 성게·연어알 1큰술씩, 두료 적당량 **성게 크림소스** 양파 1/4개, 마늘 2톨, 생크림 1컵, 성게 2큰술, 소금·포도씨 오일 적당량씩

Recipe 1 성게 크림소스를 만든다. **2** 오징어 먹물 파스타 면은 소금을 넣은 물에 약 6분간 삶은 뒤, ①에 넣고 한소끔 볶는다.

3 파스타에 소스가 적당히 흡수되면서 졸아들면 소금으로 간한 뒤 옮겨 담고 성게, 연어알, 두료를 올려 장식한다.



성게와 캐비아를 얹은 비프 타르타르

쇠고기도 성게 못지않은 훌륭한 스테미나 요리다. 발사믹 식초와 디종 머스터드의 새콤한 소스로 쇠고기 타르타르를 만든 뒤 녹진한 성게로 마무리했다.

Ingredients 쇠고기 안심 120g, 샐러트 1/3개, 케이퍼 3알, 발사믹 식초 1/2 작은술, 디종 머스터드 1 1/2, 올리브 오일 1큰술, 성게 1큰술, 캐비아 1작은술, 소금·후추·딜 적당량씩

Recipe 1 쇠고기 안심은 0.5cm 크기로 잘게 썰고 샐러트와 케이퍼는 곱게 다진다. **2** 불에 ①과 발사믹 식초, 디종 머스터드,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를 넣고 섞는다.

3 원형 틀에 ②를 채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다음 성게와 캐비아, 딜을 올린다.

소리의 즐거움 그리고 하이엔드 오디오의 가치에 눈을 뜬 이들은 소망한다. 자기만의 오디오룸 또는 홈시어터를 갖는 날을. 하지만 이 과정이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어서 전문 인스톨러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소리의 하이엔드 오디오룸을 설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신사동 가로수길 안쪽에 위치한 오드 메종은 설계와 구매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테레오와 홈시어터가 선사하는 감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

0.001%를 밀도는 고장률에 부가티와 마이바흐 등 명차에 공급되는 카오디오로 명성이 높은 독일 브랜드 버메스터, 아방가르드한 외형과 달리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뽐내는데 매력 포인트인 미국 브랜드 오마, 스타인웨이 의 공식 마크를 획득한 브랜드인 스타인웨이 링도르프는 오드 메종에서 만날 수 있는 하이엔드 오디오의 일부. 이 중 스타인웨이 피아노로 연주한 음반을 스타인웨이 링도르프로 듣는다면 마치 눈앞에서 실제 공연을 접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드 메종은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며 세계 최고의 스피커라 칭송받는 카르마를 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기도 하다. 오디오만 최정상급인 게 아니다. 공간 자체에 들인 정성 또한 눈여겨볼 만한데, 청음실에 소리를 흡수하는 벽과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기에 적합한 전류를 선별해 소리를 극대화하는 건 기본. 현대 작가 김화원의 상들리에 영상작품이나 임스, 미스 반 데 로에 등 디자이너 의자들이 놓인 이곳은 하이엔드 오디오를 둘러싼 라이프스타일까지 엿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른 오디오 전문점과 차이를 둔다. 이런 차별화는 독일의 버메스터 본사 직원들의 탄성을 자아낸 데 이어 방한한 에스토니아 대통령도 오드 메종을 찾게 만들었다. 이쯤 되면 프라이빗 청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터. 청음 신청은 예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한 달 이상 대기 리스트가 있다니 서두를 것. 제주 방문 일정이 있다면 애월읍에 위치한 오드 메종 제주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

🕒 11AM ~ 7PM (주말 6PM까지) 예약제 운영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15-6
☎ 02-512-4091 🌐 www.ode-audio.com

ODE MAISON

알뜰한 MP3 사운드를 벗어나,
온몸을 전율케 하는
하이엔드 오디오의 세계로.
오드 메종에 발 딛는 당신 앞에
펼쳐진 길이다.



ΩMA

GEWALTIG MILL AUDIO

3



- 1 개성 있는 디자인의 오마 아이로닉 스피커
- 2 60개 이상의 기술 특허를 보유한 명품 헤드폰 울트라손
- 3 스타인웨이 링도르프 시스템이 세팅된 지하1층 시네마 홀
- 4 1층에는 라이라 북스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다.
- 5 2-Way 방식의 혼 기반 스피커로, 크기에 관계없이 뛰어난 출력을 내는 오마 미니
- 6 가로수길 안쪽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오드 메종
- 7 울트라손 헤드폰은 최대 40% 낮은 음압으로 장시간 청취해도 귀의 피로도를 최소화한다.
- 8 전 제품을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버메스터 제품으로 채워진 공간



7 8

BDSM

수신호로 전하는 메시지.



**COME
TO
ME**

“이리 와”

ROGER DUBUIS

전사의 세계에서 모티프를 빌려온 로저 드뷔의 엑스칼리버. 이 컬렉션을 상징하는 검 모양의 시침과 분침, 트리플 러그와 플루티드 베젤은 물론이고, 대형 케이스 내부를 화려하게 수놓은 스킴레톤 구조와 SLN이 함유된 화이트 골드 인덱스는 중세기사 전설 속의 영웅, 아서 왕의 독보적인 대담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47mm의 티타늄 소재 케이스와 레드 컬러의 알루미늄 소재 스킴레톤 플랜지의 대비가 강렬한

러버 스트랩의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스킴레톤 더블 플라잉 투르비옹' 워치는 **ROGER DUBUIS** 제품

GET NAKED “벗어”



BREITLING

브라이틀링이 1957년에 처음 선보인 슈퍼오션은 해수면 아래에서의 상황을 서포트하는 다이버 워치로서 기술적 심미적 부분 모두를 만족시켜왔다. 이 역사를 잇는 '슈퍼오션 II 42' 워치는 최신 기술의 집약체로서 브랜드의 자긍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모델이다. 대형 숫자 인덱스와 야광 표기로 높아진 가시성, 수심 500m 깊이까지 완벽하게 방수하는 견고함,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기관 COSC가 인증한 기계식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선사하는 정확함까지.

42mm 다이얼 사이즈와 더욱 슬림해진 케이스로 편안한 착용감을 강조한 스틸 브레이슬릿의 '슈퍼오션 II 42' 워치는 **BREITLING** 제품



**BEND
DOWN**
“엎드려”

HUBLOT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에 골드와 세라믹, 탄탈륨과 러버를 결합한 디자인의 만남. 워블로의 체어맨, 장 클로드 비버가 창조한 이 모델은 기존 럭셔리 스포츠 시계의 문법을 산산조각 낸 브랜드의 정수를 보여주는 제품이다. 이름 또한 그 파격적인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빅뱅'. 여기 더해진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와 42시간 파워 리저브, 수심 100m 방수 기능은 21세기 하이엔드 워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41mm 사이즈의 로즈 골드 소재 다이얼에 구조적인 무늬가 있는 러버 스트랩이 더해진 '빅뱅 골드' 워치는 HUBLOT 제품



SEX NOW “지금”

TISSOT

스위스 시계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상징이 된 건,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슬로건으로 삼은 티쏘 같은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1853년 스위스 로로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창립한 이래, 럭셔리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사랑받는 티쏘. 그중 여기 소개하는 'PRS 200'은 이런 티쏘의 장점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수심 200m 방수 기능과 잠수 시 수압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사파이어 글라스를 장착한 스틸 브레이슬릿의 'PRS 200' 워치는 **TISSOT** 제품

RUB ME

부드럽고
쫄득한
고무
소재
물건을
모았다.

photography
by

park jaeyong

Basketball

고무나 가죽, 또는 이를 합성한 소재로 만드는 농구공. 일반적으로 농구공은 우레탄 바닥이나 실내 스타디움같이 고른 바닥 면에서 사용할 경우 평균 3~4년, 흙 바닥의 경우 5~6개월의 수명을 갖는다. 그 시간 동안 몇 천 번, 또는 몇 만 번 튕겨질지는 천차만별. 농구공에 있어 탄성과 내구성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NBA 공인구 브랜드인 스팔딩과 콜라베이션한 폴리우레탄 소재 농구공은 **VALENTINO**, 양쪽에 놓인 실리콘 소재 장난감 '애스 오브 언 앵젤', '닥터 워즈'는 모두 **BROAD CITY** by **PLEASURE LAB** 제품





Joystick Cover + Massage Brush

브러시로 몸을 쓸어내는 보디 브러싱. 작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이 그루밍 법은 피부 마찰로 체온을 높일 뿐 아니라 고여 있던 림프를 자극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인기를 얻는 중이다. 아무래도 피부를 자극하는 용도인 만큼 브러시를 선택할 때엔 되도록 천연 소재를 고를 것. 내 피부처럼 소중한 물건을 위해서도 고무 소재는 현명한 선택이다. 조이스틱 실리콘 커버는 본체의 흠집 방지는 물론, 추락 시 충격 완화 그리고 겨울철에는 배터리 효율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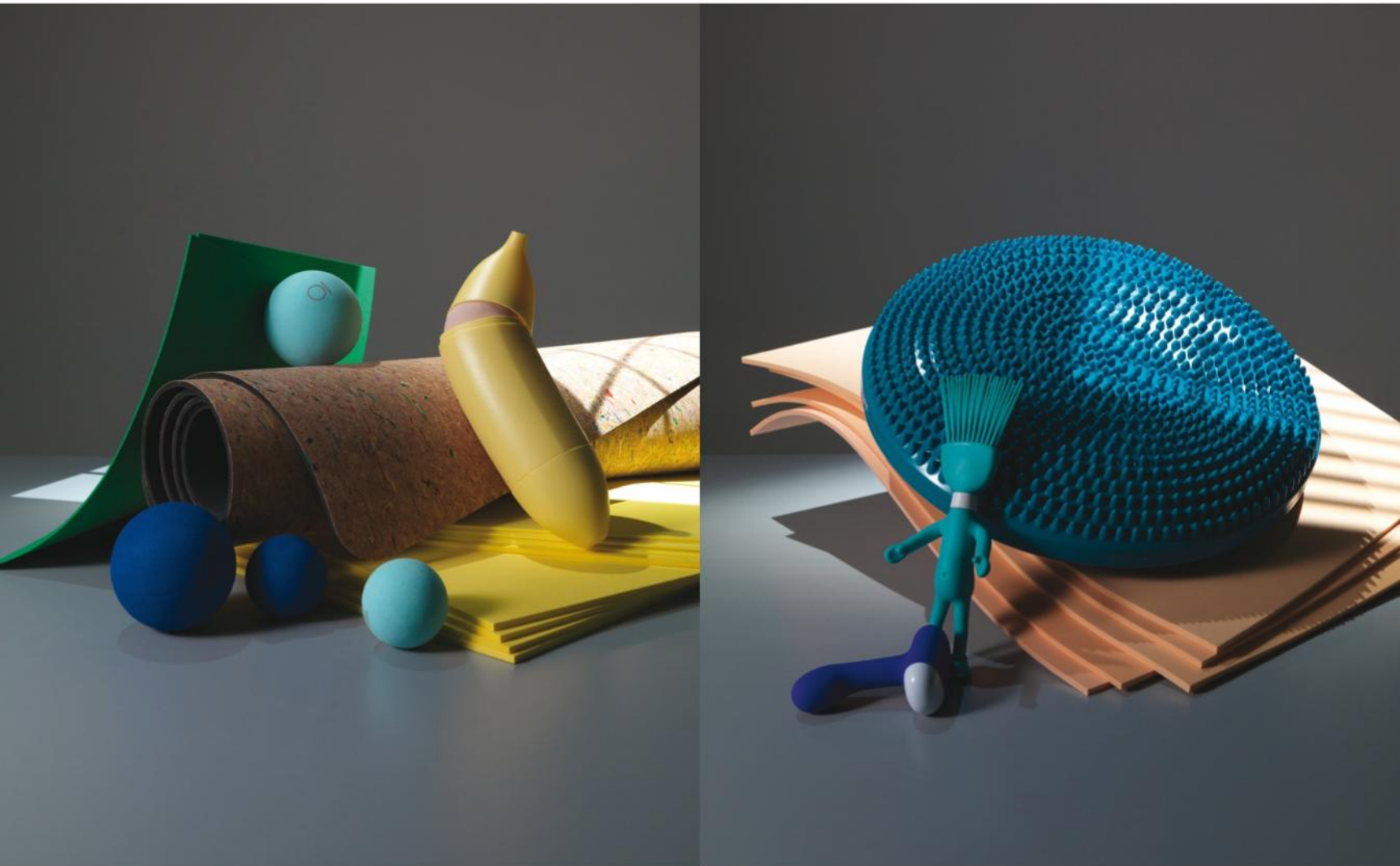
(왼쪽) PS4용 듀얼쇼크 4와 실리콘 커버는 **SONY**,

새싹 모양 장난감 '블룸'과 잎사귀 모양 장난감 '라이프'는 **LEAF by N19** 제품

(오른쪽) 뒷면은 거품을 내는 용도로, 아랫면은 마사지용으로 사용 가능한 천연 고무 소재 샤워 브러시는 **SILTEQ by MONETA**,

간전지 충전형의 5단 진동 기능 컵케이크 모양 장난감은 **SHIRIZINN by N19**,

USB 충전형의 6단 진동 기능 립스틱 모양 장난감은 **WOMANIZER 2 GO by PLEASURE LAB** 제품



Sports Equipment

스포츠만큼 고무가 애용되는 분야도 없다. 요가 매트는 운동 시 바닥의 충격을 흡수하며, 마사지 볼은 자극을 부드럽게 완화하는 데 탁월하다. 고무가 보호의 기능만 가졌다 생각하면 오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기능 또한 갖췄으니, 여기 소개하는 에어 패드가 그 예다. 맨발로 밟고 올라서 평소 하던 '훅트' 동작들, 예컨대 스쿼트나 푸시업 등을 해보면 기본 근육은 물론 균형을 잡는 근육까지 총동원됨을 느낄 수 있다. 오돌토돌 튀어나온 돌기는 혈액순환 기능까지 제공한다.

(왼쪽) 친환경 코르크에 천연 생고무를 더한 '마이 아티스트' 요가 매트, 코발트 블루와 파라다이스 컬러의 '마이 마사지 볼'은 모두 **MY ROLLER**, 바나나 모양의 트레이닝 장난감 '플레저나나'는 **IMTOY by PLEASURE LAB** 제품

(오른쪽) 밸런스 운동에 탁월한 에어 스테퍼 패드는 **TUNTURI**, 실리콘 소재 페이스트리 브러시는 **HEADCHEF by MONETA**, 플러그형 '샌프란시스코' 장난감은 **OOH! by N19** 제품

Sneakers

최초의 운동화는 신발회사가 아닌 타이어회사에서 탄생했다. 밑창이 고무로 된 운동화는 가벼울 뿐 아니라 걸을 때 또각대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운동화의 영문 이름이 스니커즈(Sneakers; 살금살금 걷는 사람)가 된 건 여기서 유래한다. 오늘날 운동화는 물론이고 구두의 밑창으로도 쓰이는 것은 마찰력이 커 타이어 원료로 사용되는 뷰틸 고무창, 그리고 이보다 고가이지만 내구성이 뛰어난 고무 합성 소재 비브람 창이다.

고무 솔이 돋보이는 안드레아 폼필리오와의 컬래버레이션 스니커즈는 **ONITSUKA TIGER**,
건전지 충전형의 10단 진동 기능 아이스크림 모양 장난감은 **SHIRIZINN by N19**,
마시멜로 모양 슬리브는 **ZEMALIA by PLEASURE LAB** 제품



IMPROVE YOUR ABILITY

자동차는 들끓는 욕망을 싣고.

photography by
min sungpil



**BMW 520d xDrive
M Sport Package**

가격 7050만원

엔진형식 디젤 배기량 1995cc

변속기 8단 자동 휠베이스 2975mm

공차중량 1770kg

크기 L4936×W1868×H1479mm

최대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0.8 kg·m

복합연비 13.9 km/l

CO₂ 배출량 136g/km

Gentlemen's Quality

늘 1등 아니면 2등이었다. BMW 5 시리즈는 작년 출시 이후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 순위 상위권을 양보하지 않았다. 인기 비결은 단연 패밀리 세단으로 안정감 있는 주행에서 느껴지는 품위와 '반전 매력' 같은 스포트 모드의 짜릿함. 처음 시동을 걸면 부드럽고 정숙하게 인사를 건네다가도, 운전자가 원하면 커다란 차체를 힘차게 밀고 나가며 스릴을 선사한다. 패밀리 세단의 품위와 질주를 위한 뜨거운 심장까지 갖춘 셈. 게다가 지난 6세대 BMW 5 시리즈의 유일한 흠이라 불리던 단점까지 7세대로 넘어오며 말끔히 정리했다. 차 가격에 비해 무겁다는 말엔 100kg 넘게 감량한 차체로 답했고, 패밀리 세단임에도 실내 공간, 그중에서도 뒷좌석이 좁다는 평엔 여백만 듯이 넓어진 공간으로 대신했다. 뒷좌석은 두 사람이 뒹굴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넓다.

이해연이 신은 구두는 **UNIPAIR**, 스타킹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지성현이 입은 팬츠는 **BOSS**, 구두는 **UNIPAIR** 제품





Smart New for Two Cabrio

가격 2890만원 엔진형식 H4B 터보 배기량 898cc 변속기 6단 듀얼 자동 휠베이스 1870mm 공차중량 995kg 크기 L2695×W1660×H560mm

최대출력 90마력 최대토크 13.8 kg·m 복합연비 23.8 km/l CO₂ 배출량 97g/km

Small For Two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의 장점은 '작아서 좋다'는 점뿐이다. 작아서 좁은 골목에서 후진 없이 유턴이 가능할 때도 있고, 2.5미터 남짓 공간만 있으면 수평 주차도 할 수 있다. 게다가 900cc도 안 되는 배기량임에도 리어엔진에 후륜구동으로 시속 120킬로미터쯤은 가볍게 가속한다. 웬만한 세단의 차체 강성만큼 단단한 포투의 하체는 운전하는 '맛'까지 놓치지 않았다. 기능을 알차게 콕콕 눌러 담은 소형차다. 포투는 이름처럼 딱 두 명만 탈 수 있는데, 컨버터블 모델이라 햇볕이 좋은 날엔 천장을 열고 하늘을 볼 수도 있다. 포투의 마지막 장점은 역시 작아서 상대와 더 밀착된다는 것.

이혜연이 입은 플라워 패턴의 미니 드레스는 **ALL SAINTS**, 뷔스티에 톱은 **ETAM**, 구두는 **ALDO**, 지성현이 입은 화이트 셔츠는 **SOLID HOMME** 제품



Cadillac Escalade

가격 1억 2780만원

엔진 6162cc, V8 가솔린

변속기 8단 자동 방식 AWD

휠베이스 2946mm

공차중량 2650kg

크기 L5180×W2045×H1900mm

최대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2.2 kg·m

복합연비 6.9 km/l

CO₂ 배출량 259g/km





The Overwhelming

에스컬레이드와 비교할 만한 모델은 아직 없다. 그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나타낸다. 비슷한 덩치의 차는 있지만, 럭셔리 SUV 모델 사이에서 에스컬레이드의 입지는 확고하다.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풀 사이즈 SUV.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창밖을 내다보면 버스가 아니고서야 다른 차들이 평소보다 작게 느껴진다. 덩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토록 우람한 차라면 운전자와 시승자 모두 든든함을 느낄 만하다. 에스컬레이드는 최대 7명까지 탈 수 있으며 천연 가죽과 원목, 카본으로 우아하게 설계한 실내가 특징이다. 이 널찍한 차는 긴장한 남자가 앞좌석에서 팔다리를 쭉 뻗어도 맨 뒷좌석까지 닿지 않을 만큼 넓다. 안에서 어떤 일을 벌여도 몸이 쑥스러울 일은 없을 듯. 듬직한 에스컬레이드는 묵묵히 비밀을 지켜 줄 것이다.

이혜연이 입은 브라지어는 **WONDERBRA**, 지성현이 입은 슈트와 셔츠는 모두 **SOLID HOMME** 제품

photography
by
kim jiyang

비닐봉투는 SUPREME 제품



SUPREME PORN

빨간 슈프림의 슈퍼 파워.

플레이보이와 컬래버레이션한 캡 모자는 SUPREME 제품





토시오 마에다의 작품이 프린트된 롱 슬리브 티셔츠는 **SUPREME** 제품

반스와 컬래버레이션한 스니커즈는 SUPREME 제품





오리지널 페이크와 콜라보레이션한 티셔츠는 **SUPREME** 제품

캡 모자는 모두 SUPREME 제품





노스페이스와 콜라베이션한 이노락 점퍼는 **SUPREME**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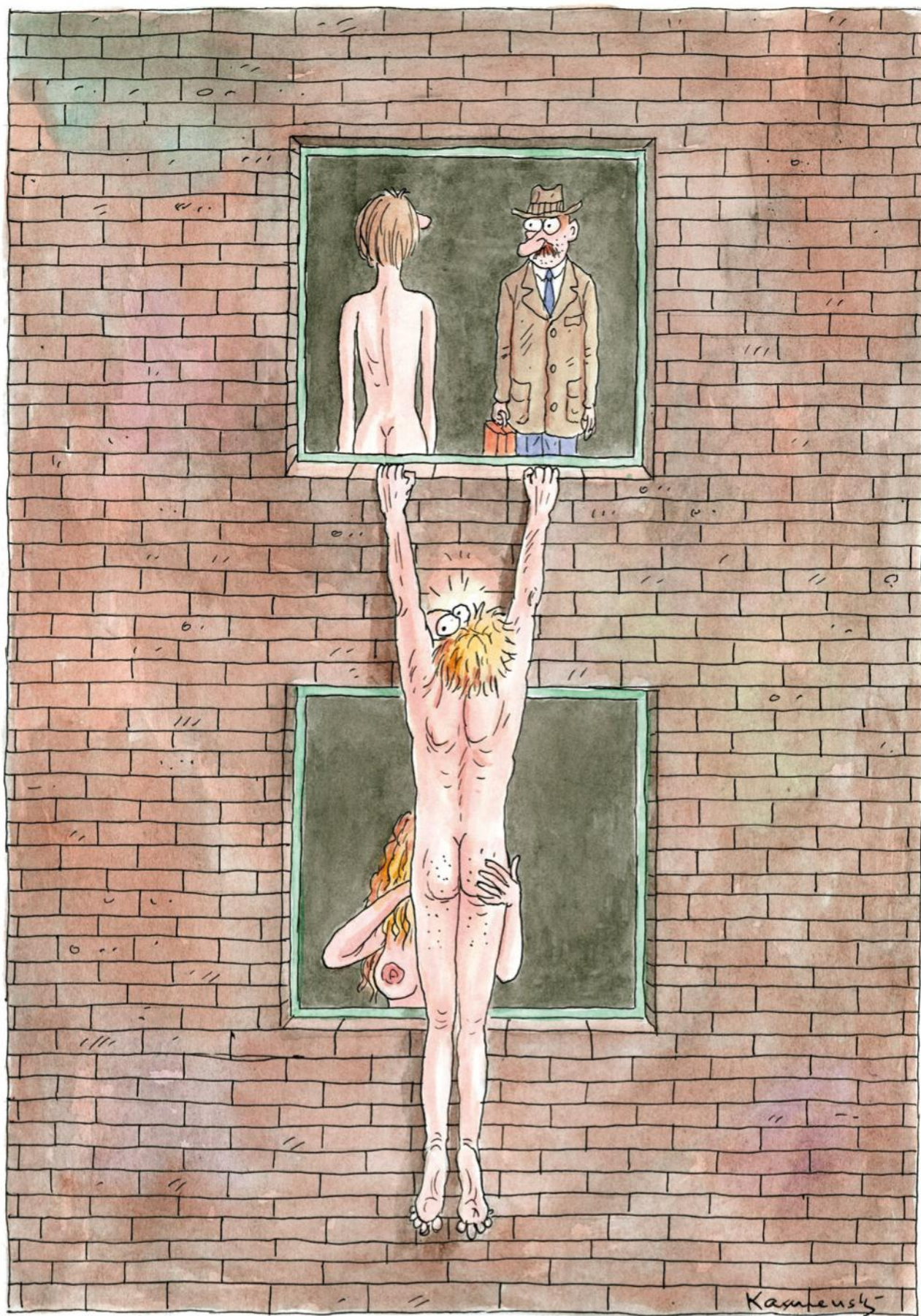
점퍼는 SUPREME 제품



Special Thanks to Park Junkyu, Choi Seunghyuk, Choi Minyoung



• assistant editor kim sunhee
• illustrator marian kamensky



PLAYBOY

TALKS:

정치, 사회, 문화, 섹스
그리고
〈플레이보이〉가 만난 사람들.



©shutterstock

SEX ISSUE - ADVISOR - GUIDE - SEX TALK - POET'S EYE - TV - 20Q - HER - PLAYBOY INTERVIEW



Playboy's Runway

파리와 밀라노, 런던과 뉴욕에서 열린 2018년 F/W 시즌 멘즈 컬렉션. 여기서 발견한 가장 섹시하고 유틸리티 넘치는 피스들.

1 Night Diggers 네온 컬러 트렌드의 장점이 부각되는 건 당 연 밤 시간이다. 당신이 밤에 어디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든 간에, 루이 비통이 제안한 이 차림이라면 적어도 차에 치이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을 거다. **2 Bedtime Story** 메종 마르자엘라 쇼에 등장한 베개의 정체는 가방이다. '글램 슬랩'이라 이름 붙은 이 가 방이라면 어디서든 편히 그녀와 머리를 맞댈 수 있을 듯. **3 Bise xual** 사실 멘즈 컬렉션 런웨이에 스커트가 오르는 건 하루이틀 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 도 현실. 여기 드리스 반 노튼의 연출법이라면 꽤 현실적이지 않 을까?

Let's Get Physical

섹스어필과 카리스마. 바로 CR북의 편집장이자 스타일 리스트, 카린 로이펠트의 작업을 대표하는 단어다. 파리 <보그> 편집장 시절 강렬한 이미지들을 창조해온 카린 로 이펠트 특유의 스타일 언어는 현재 그녀가 수장을 맡고 있는 CR북에서도 유효하다. 1년에 두 번 발간하는 CR 북 이 이번 시즌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운동 장 비 브랜드 테크노짐과 함께한 캘린더 때 문. 스티븐 클라인이 카메라를 잡은 이 캘린더 안에서 파워풀한 모습을 연출한 여성들의 면면 또한 화려한데, 지지 하 디드, 캔디스 스와네포엘, 조앤 스몰스, 정호연, 그리고 12월호 <플레이보이 코 리아>의 커버 모델 에니코 미힐릭 등 톱 모델들이 그 주인공이다. 전설적 포토그래퍼 기 부르맹 의 사진을 연상케 하는 열두 개의 이미지는 헬스장에서 섹시한 순간을 꿈꾸는 남성들의 상상력 그 자체!



THIS MONTH IN SEX

BEING KIM

KARDASHIAN



Welcome To The New Era

그래미 어워즈와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미투'로 시발된 페미니즘 운동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참 석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맞춰 입은 검정색 옷차림은 이 들의 메시지만큼이나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 이 중 가장 시선을 끈 차림을 <플레이보이>가 꼽았다. 그 영예의 주 인공은 배우 스티브 볼드윈의 딸로 부와 미모, 명성을 안 고 태어나 성공적인 모델 커리어를 쌓고 있는 헤일리 볼 드윈. '내게 두려움이란 없다, 다 덤벼!'라 말하는 듯 공격 적인 볼륨, 그리고 옷차림이러니!



© Louis Vuitton, Maison Margiela, Dries Van Noten
© Technogym © Hellophoto

화려한 런웨이부터 시대정신을 반영한 캠페인까지, 황당하거나 재미있거나 유익한 섹스 및 성 관련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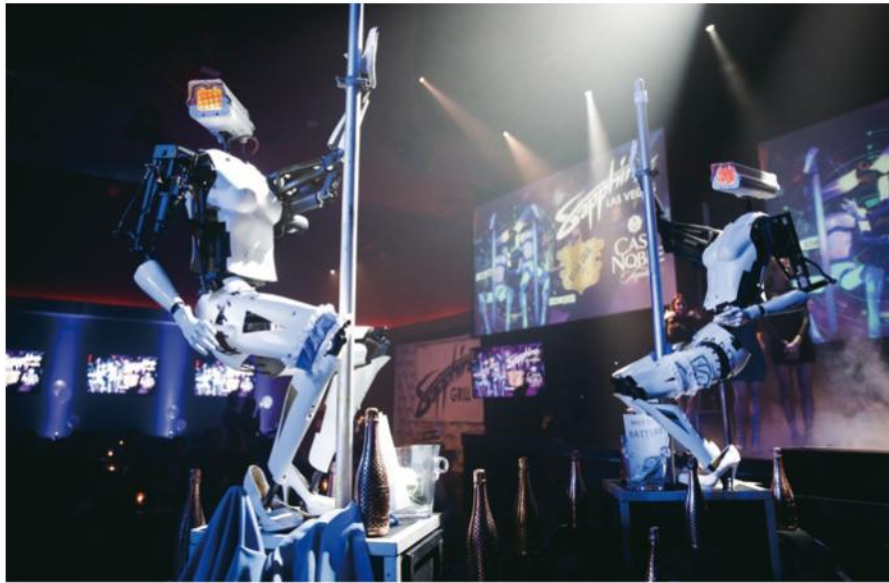


숨은 카다시안 찾기

유명해서 유명한 그녀 김 카다시안. 그녀가 새 시즌의 광 고 캠페인까지 접수했다. 첫 번째는 라프 시몬스가 지휘 하는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뿐 아니라 메인 라인의 광고 캠페인에 김 카다시안은 물론 톱 모델 캔들 제너를 포함 한 카다시안 자매들을 동원, 우월한 (골반) 유전자를 자랑 했다. 두 번째는 그녀의 남편 칸예 웨스트가 이끄는 패션 브랜드 이지(YEEZY)의 인스타그램 캠페인이다. 이미지 에는 마치 파파라치가 촬영한 듯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김 카다시안의 모습이 담겨 있다. 놀라운 건 플래티넘 블 론드 컬러로 염색한 긴 헤어에 태닝한 듯 고무잡잡한 피 부로 무심하게 거리를 걷는 여성이 사실 모두 카다시안 은 아니라는 사실. 카다시안의 친구이자 유명해서 유명 했던 패리스 힐튼, 디자이너 새넌과 새너드 클레몽 자 매, 파워 뷰티 블로거 크리스틴 노엘 크롤리 등이 그녀로 분한 것. 여기엔 물론 카다시안 또한 섞여 있어, 팬들의 숨은 그녀 찾기 게임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

SEX IN HIGH TECH

©Helophoto



I'm in Love with a Stripper

“로봇의 머리를 CCTV로 대체한 건 감시카메라를 통해 누군가를 바라보는 관음증에서 영감받았다.” 아티스트 자일스 워커는 지난 1월 2018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폴댄스 기능을 탑재한 스트리퍼 로봇 ‘로보 트윈스’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로봇이 실제 클럽에 진출했다. 라스베이거스 사파이어 젠틀맨 클럽에서 실제 폴댄서와 공연했다고.

동반자

지난해 인공지능 남성용 섹스 로봇을 만들어 화제를 모은 리얼보틱스가 이번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야심찬 로봇을 내놓는다. 남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섹스로이드 제작을 발표한 것. 얼굴, 키, 성격, 목소리 등을 주문 제작할 수 있으며 성기의 모양과 크기까지 고를 수 있다. “단순한 로봇이 아닌 동반자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다.” 리얼보틱스의 포부는 이렇다.

Robot Wife

요리, 청소 등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집에 있다면 삶은 편리해질 것이다. 만약 그 로봇이 섹스까지 할 수 있다면, 단순한 로봇으로 볼 수 없다. 최근 남성, 여성용 섹스 로봇을 만들어 화제를 모은 리얼보틱스가 발표한 이론은 이렇다. “지금까지 발표한 로봇을 토대로 2019년엔 집안일과 섹스가 가능한 로봇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다.” 실제로 리얼보틱스는 청소, 요리, 섹스 기능을 각각 탑재한 로봇을 발표해왔다.



©Realbotix



110000

평창 올림픽에 콘돔 11만 개가 배포됐다. 지난 소치 올림픽보다 1만 개가 늘었고, 선수당 37.6개를 써도 되는 양이며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다. 콘돔은 선수촌뿐 아니라 메인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의료센터에도 비치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확산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기부했다.” 평창 올림픽에 뿌려질 콘돔 중 10만 개를 기부한 국내 회사 컨비니언스의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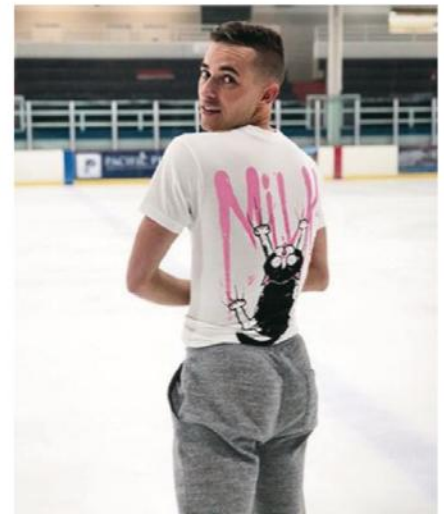
징역 175년

지난 30년간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근무하며 최소 156명 체조선수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가 있다. 이름은 래리 나사르, 미시간주 법원의 로즈마리 아킬리나 판사로부터 최장 징역 17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만행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을 찾은 피해 선수만 100여 명에 달하며 그들은 재판장에서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SEX AS OLYMPICS

One And Only

애덤 리폰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피겨 선수이자 미국 선수 중 커밍아웃한 유일한 게이 선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밝혔고 미국 내 다수 방송과 매체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다. “게이는 나를 정의하는 말이 아니다. 피겨 선수로서 단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이다. 내 성적 취향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애덤 리폰이 목에 건 금메달은 수십 개에 달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두 번의 올림픽 출전은 실패했다. 하지만 리폰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평창의 얼음판 위에 섰다.



©Shutterstock





©Heliophoto

Wood You?

우디 앨런의 신작 <원더 휠>이 스크린에 걸려 있는 와중에, 수양딸 딜런 패로가 그의 지속적인 성폭력 사실을 재차 폭로했다. 차기작 <레이니 데이 인 뉴욕> 개봉이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콜린 퍼스를 포함한 많은 배우들이 그의 작품에 다신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미투(#MeToo) 운동을 촉발시킨 '주적'이나 다름없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을 두고 "충알도 아깝다"더니, 마지막 충알을 쫓은 건 다름 아닌 우마 서먼이었다. 그는 지난 2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행 시도 및 성추행에 대한 얘기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MeToo IN KOREA

서지현 검사의 용기와 최영미 시인의 분노, 한국에도 진작부터 '미투'가 있었다. 2016년 트위터를 중심으로 촉발된 #오타쿠_내_성폭력, #문단_내_성폭력, #미술계_내_성폭력... 그리고 2018년, 그것이 검사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던 시인(소문은 이미 무성했으니)과 연극계 거물에게까지 본격적으로 도달했다.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서지현 검사의 말이다.

COMMON SENSE

출처 NHS, BuzzFeed UK

잠시 짚고 넘어가는 당신의 섹스 상식.

1 발기된 페니스의 평균 사이즈는?

- ① 5.5~6.3 inches(14~16cm) ② 6~6 inches(15~16.5 cm)
- ③ 6.3~7.2 inches(16~18cm)

2 클리토리스에 있는 말초 신경의 개수는?

- ① 80개 ② 800개 ③ 8000개

3 오르가슴에 가장 도움이 의상은?

- ① 티셔츠 ② 무릎 보호대 ③ 양말

4 오르가슴을 연기하는 남녀의 비율은?

- ① 90%의 여자, 15%의 남자 ② 70%의 여자, 30%의 남자
- ③ 50%의 여자, 50%의 남자

5 정상적인 섹스 중 소모하는 칼로리는(1분 기준)?

- ① 3~5kcal ② 10~15kcal ③ 20~30kcal

6 'Anorgasmia'의 뜻은?

- ① 성불감증 ② 전신 오르가슴 ③ 스쿼팅

7 남성이 한 번 사정할 때 소모하는 칼로리는?

- ① 40kcal ② 10kcal ③ 1kcal 미만

8 첫 바이브레이터가 생산된 해는?

- ① 1902 ② 1950 ③ 1969

①-8'②-7'③-6'④-5'⑤-4'⑥-3'⑦-2'⑧-1' : 음용

“

“기본 좋아요, 좀 긴장되긴 하네.
가슴이 두근거려요.
내 '거기'(Vagina)도.”

— 카디 비

“감히 우리의 발언권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
딱 한 마디만.
시간 다 됐어요(Time's Up).
동일하지 않은 임금,
성차별, 권력 남용,
그 어떤 종류의 추행이든 모두.”

— 자넷 모네

”

말과 말

'타임즈 업'으로 연대한 골든글로브가 그랬던 것처럼, 그 래미 또한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월 28일 열린 제 60회 그라미 어워즈에서, 참가자들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흰 장미를 옷에 달거나 손에 들고 시상식에 등장했다. 카디 비와 자넷 모네는 그곳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을 표현한 예다. 두 뮤지션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

playboykorea.com

MUSIC & SEX

JT is Back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2004년 이미 슈퍼볼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른 적이 있다. 재닛 잭슨의 가슴 노출 해프닝이 벌어졌던 바로 그 해다. 그리고 14년이 지나, 신보 <Man of the Woods> 발매와 함께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섰다. 솔로 데뷔 음반의 'Cry Me a River', 최근작 'Suit & Tie', 프린스 추모 무대로 꾸민 'I Would Die 4 You'까지, 'Sexyback'이 돌아왔다.



©Heliophoto



©Heliophoto

Netflix Ru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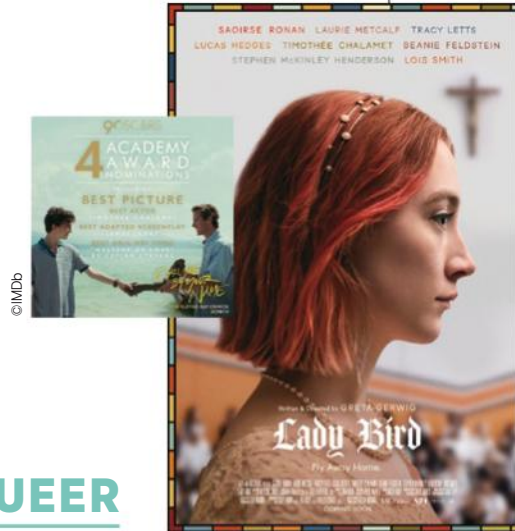
제56회 에미상 어워드 '최우수 리얼리티 프로그램' 수상에 빛나는 <퀴어 아이>가 넷플릭스로 돌아왔다. 뉴욕의 내로라 하는 다섯 명의 게이 펍 파이브(Fab Five)가 미국의 평범한 남성들을 변신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멤버를 구성해 약 10여 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시즌 10이 방영된 뒤 미국 내 성소수자들의 달라진 사회적 위치와 시선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IMDb

Queer Up

두 편의 퀴어 영화가 선댄스 영화제는 물론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휩쓸 예정이다. <레이디 버드>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 각각 5개,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는데, 특히 배우 그레타 거윅의 감독 데뷔작이자 자전적 스토리를 담은 <레이디 버드>는 제2의 <문 라이트>로 불리며 다관의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QUEER E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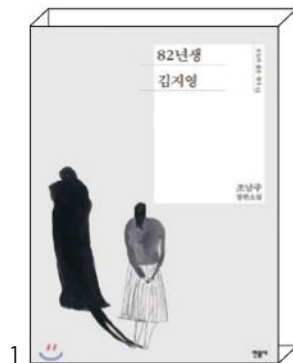
뜨거운 까칠남녀

"동성애 방송을 내보내면 청소년이 매춘으로 전락하거나 성폭행을 당해 에이즈 감염에 노출될 것", "하늘을 거스르는 집중도 안 하는 희한한 성행위에 반대한다." EBS <까칠남녀>가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 편을 방송한 후 시청자 게시판에 게시된 의견이다. 방송 폐지와 출연자 하차를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렸다. 논란이 증폭되자

패널 중 한 명인 은하선 작가에게 개인적 결격을 이유로 하차를 통보하기에 이르지만, 결국 <까칠남녀>는 6월 중영 계획을 앞당겨 조기 종영을 결정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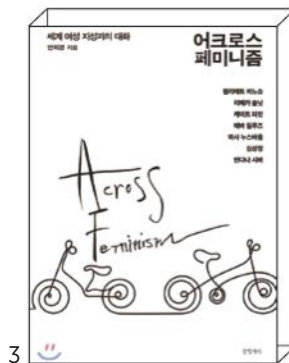
ENTER THE FEMINISM



1



2



3



4



5



6

시작이 반

아직도 페미니즘에 동의할 수 없다면, 아직도 페미니즘을 잘 모르겠다면? 당대의 교양이자 시대정신을 습득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6권의 페미니즘 입문서.

1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1982년생 김지영의 삶을 통해 지금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30대 여성의 평범한 삶을 조명한다. '성차별적인' 진짜 삶.

2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창비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탐구했다.

3 <여크로스 페미니즘>

안희경, 글항아리

첼리에트 비노슈, 심상정, 리베카 솔닛을 비롯한 8인의 여성에게 듣는다. 변화를 만들어온 개인의 증언과 페미니즘의 언어.

4 <길 위의 인생>

글로리아 스타아님, 학교재
1934년생인 글로리아 스타아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페미니스트이자 시민운동가다. 20세기 미국을 '살아낸' 그의 회고록이자 역사.

5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리베카 솔닛, 창비

우스꽝스러운 남성들의 '맨스플레인'에 관한 일화부터 그것이 단지 일화에 그치지 않는 구조적 폭력이라 사실을 증명한다.

6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인, 교양인

여성의 눈으로 본 사랑과 인권과 정치와 사회. '남성언어'로 이뤄진 세상에 의문을 표하며,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선을 제시한다. ㉠

C.D.,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Q: 개인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게 싫습니다. 동물은 사랑하지만, 제가 만난 몇몇 여자는 저보다 반려견을 우선시했거든요. 데이트 일정도 반려견의 식사, 산책 시간이 언제나 따라 정해지 정도였어요. 문제는 지금 교제 중인 여자도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 상황에 제가 그녀에게 반려견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전달해도 되는 걸까요? “반려견 대신 나를 인생의 ‘넘버 원’으로 삼아줄 수 있겠니?” 이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자칭 ‘밥맛없는 놈’이 되는 건 아닐까요? **A:**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당신의 질문은 ‘개 키우는 여성’이라는 전제 관련 문의가 아니라는 점부터 명확히 해두고 시작할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넘버 가릴 것 없이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일지 몰라요. 반려견을 무지개다리 건너로 떠나보낸 남자를 본 적이 있나요? 나는 개를 잃은 어떤 남자가 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서글프게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울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남자들도 개를 보살피는 데는 여자들만큼이나 정성을 쏟는 편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맞아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늘 개를 우선시해요. 그런데 그래야 마땅한 일 아닌가요?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연명할 수 있는 무력한 생명체예요. 나는 그걸 잘 알아요. 나 자신이 복서를 키우는 사람이니까요. 개가 가끔씩 개판을

치냐고요? 그래요. 우리 개는 내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에도 세 번이나 내 작업을 뒤흔들었어요. 개가 내 자유를 침해하느냐고요? 당연히죠. 그런데 나는 개 때문에 그런 불편을 겪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입양 서류에 서명한 거고, 당신은 개 키우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면 무슨 일을 겪을지를 알면서도 그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반려견에 쏟는 관심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건 아이가 있는 싱글남녀에게 자식에게 쏟는 관심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거랑 비슷한 일이에요. 그러니,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나라면 “나를 그녀 인생의 ‘넘버 원’으로 삼아달라고요 구해서 ‘밥맛없는 놈’ 소리를 들을 위험”을 감수하지

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입 밖에 내자마자 그녀는 당신이 밥맛없는 놈이라는 걸 깨달을 테니까요. 그녀를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그녀의 개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작업에 최대한 빨리 착수하세요. 당신의 집에서 밤을 함께 보내자며 그녀와 반려견을 초대하세요. 개 침대를 구입하고요. 그 개는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 그 동물의 환심을 사는 건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솔직히,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 남성들은 미덥지가 않아요. 반려견의 주인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책임을 떠맡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당신은 반려견을 챙기는 와중에도 여전히 당신과 어울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그녀를 존경해야 할까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고양이 집사를 찾든지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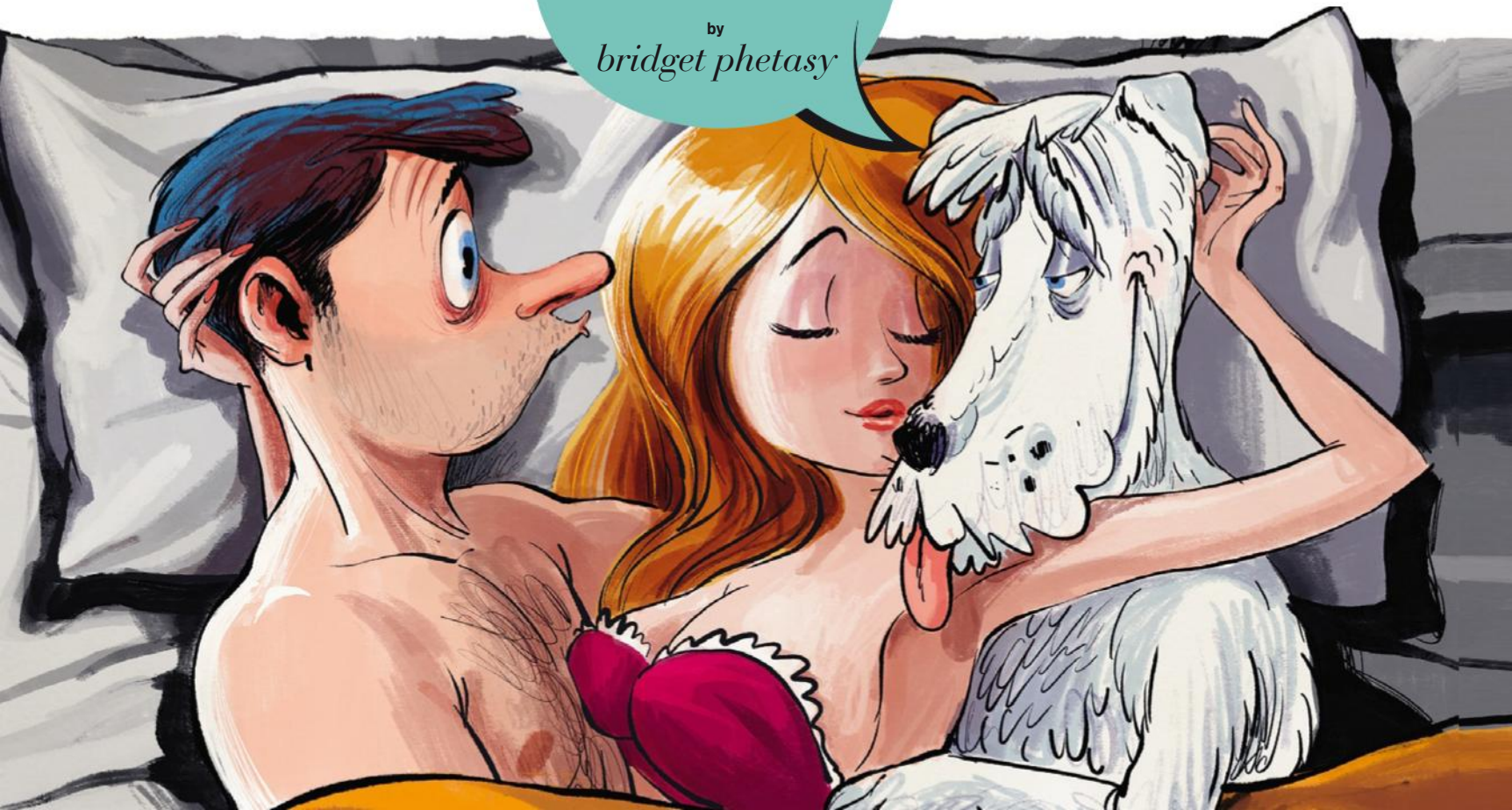
C.A., 아이오와주 대븐포트

Q: 소도시에서 몇 년째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데이트 앱을 켤 때마다 똑같은 사람들(그중 일부는 내가 이미 데이트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맞닥뜨립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낯선 사람들과 알맹이 없는 문자를 주고받고 나면 늘 행한 기분만 남습니다.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다고 심하게 적극적이고 들뜬 분위기를 풍기는 메시지를 보내면 여자들이 짜증을 내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나치게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나는 대도시에서 살아요. 그럼에도 똑같은

A BOY AND HER DOG

반려견에게 밀려 쫓겨난 놈은 보릿자루 신세가 된 남자의 기를 살려줄 한마디는 무엇일까? 스리섬을 즐기는 여자친구를 둔 남자에게 해줄 조언은? 미국 <플레이보이>로 낯아선 남자들의 깊은 고민에 섹스 칼럼니스트 브리짓 페타시가 확신에 찬 말투로 조언한다.

by
bridget phetasy



기분을 느껴요. 싱글로 살아온 기간이 무척 길 경우, 당신이 사는 도시는 그곳이 어디건 좁은 동네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심정 이해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은 독신생활을 즐기며 오랜 기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알맹이 없는 문자를 주고받은” 만남들 덕에 생기 없는 좀비처럼 지내는 대신, 넘치는 활력을 주체 못하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 2세를 얻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게, 그런 일이 곧바로 일어날 거라는 뜻은 아니예요. 상황에 진전이 없다고 싫증 내지 마세요. 조바심도, 사람들이 그런 일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당신 모습을 좋게 봐주는 일은 결코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연애를 오래 굶은 사람이 풍기는 페로몬 냄새를 지구 반대쪽에서도 맡을 수 있답니다. 멘붕에 빠진 사람들은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결정은 그들의 품격에 어울리는 상대보다 격이 떨어지는 상대를 골라 정착하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여성하고 짝을 맞출 때 절대로 내비치지 말아야 할 게 그 여성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러니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천생연분도 지금 저 밖 어딘가에서 의미 있는 상대를 찾고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세요.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내 조언이요?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때 행동했던 방식하고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대상을 마음에서 놓아버린 순간에 그 대상이 당신을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요묘한 자연의 법칙이에요. 장담하는데, 일단 싱글 생활을 다시 받아들이면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천생연분이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P.S., 캘리포니아주 웨스트할리우드

Q: 콘돔을 끼고 하면 오르가슴이 느껴지지 않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여자들하고 ‘안전한 섹스’를 하는 게 무척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여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 상대 여성에게 ‘노콘’으로 하자고 요청하는 건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 제 생각이 맞는 거죠? **A:** 어떤 사람의 잠자리 기술이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첫 징표는 그 사람이 안전한 섹스를 거부하느냐 여부예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뜰했어요. 콘돔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남자가 콘돔을 끼면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 상대 여성에게 경고 시그널을 발령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경험 많은 사랑꾼이 아니거나, 유부남이거나, 안전한 섹스를 실천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시그널을요. 남자가 소지하고 있던 장화를 신고 나타나면, 상대가 쏠씨 좋은 사랑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럴

경우, 이러니저러니 따질 일도 없고 질문을 퍼부를 일도 없죠. 당신은 성생활을 즐겨온 기간의 대부분을 상대 여성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오다가 얼마 전에야 다시 싱글이 된 사람인 것 같군요. 만약 그렇다면,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콘돔은 독신생활에 동반되는, 짜증스럽지만 의무이자 필수품이에요. 그러니 콘돔에 더 빨리 익숙해질수록 성생활의 질도 더욱 향상될 거예요. 다음은 당신 같은 분들에게 유용한 몇 가지 트릭이에요. 가장 얇은 콘돔을 사용하세요. 그리고는 콘돔 안과 밖 양쪽에 물이 묻어도 반응하지 않는 윤활액을 두어 방울 바르세요. 이 트릭은 대체로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거예요. 남자들은 혼잣말을 하고는 하죠. “나는 콘돔을 끼기만 하면 흐물흐물해져버려.” 그런 증상을 극복하세요. 집에서 자신을 위로하는 동안 콘돔 끼는 연습을 해보고, 계속 착용한 채 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요. 안전한 섹스가 곤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마추어적인 시각을 일단 극복하고 나면, 그게 유익한 결과를 얻기 위한 당연한 선택일 뿐 아니라, 전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노콘’으로 하자고 요청하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녀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나선다면 뭐, 그녀야 상대의 선택이죠. 당신이 반드시 홍콩에 갈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과 그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거기에 보내줘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L.B., 일리노이주 시카고

Q: 올해로 31살이 됐습니다. 제가 한 사람에게 정착하고 자식을 가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옳은 건가요? 나는 그런 준비는 돼 있지 않는데, 어떡하죠? **A:** 애기 못 들었나 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로, 있잖아요, 철이 드는 나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기분 이외의 다른 기분을 느껴야만 하는 의무는 없어요. 결혼과 2세 출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정서적 책임을 짊어질 준비를 하는 등의 중요한 일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고,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이런 행로를 밟는 건 아니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일부 일처와 자식들에게 여하는 일 같은 중대사를 겪을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진정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해온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정생활에 하루씩 다시 구속당하면서 살아가는 신세라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인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난제들을 던져대잖아요. 준비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꼭 참고 견뎌내야 하는 대상을 맞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 아니예요.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땀’ 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S.S.,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

Q: 여친과 저는 다른 여자를 불러 스리섬을 즐긴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친이 다른 남자도 불러서 스리섬을 하고 싶어 해요. 그녀가 다른 남자랑 한다는 생각이(사실은 다른 남자의 ‘똥똥이’가 제 거기에 근접해 있다는 생각이) 제 흥분을 싸늘하게 식게 만드는 데도 그런 스리섬에 참가해야 옳은 건가요? **A:** 판타지를 꿈꿀 때 볼곤 서게 만드는 요인과 실제로 접한 현실에서 똥똥이를 단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잦아요. 남자들의 뇌와 똥똥이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남자들이 ‘MMF 포르노’(여자는 1명, 남자는 2명 이상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시청했을 때 보이는 반응을 연구해봤더니, 정액을 평소보다 더 많이 발사했어요. 발사하는 힘도 평소보다 세고, 다시 발기하는 데 드는 시간도 짧아졌고요. 우리, 이런 현상을 생물학자들이 쓰는 용어인 ‘정자(精子) 경쟁’ 탓으로 돌리도록 해요. 그러니, 직접 시도해보고 난 다음에 그러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여친의 소망을 들어주는 게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이 스리섬이라는 여정에 나설 때 당신이 “내가 이 플레이에 다른 똥똥이가 끼여 든다는 생각을 즐거워할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이렇게 밝혔던 게 아닌 한, 그간 그녀에게 빚을 진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녀에게 그걸 즐길 기회를 한 번은 줘야 공평해요. 그런 경기를 펼쳐봤는데 경기 중 단 한 순간도 즐거웠던 적이 없다면, 그런 경기를 다시 벌일 필요는 결코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똥똥이가 그녀가 다른 남자와 똥구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한다는 게 밝혀질 경우, 축하해요. 당신이 모르고 있던 취향을 찾은 걸, 당신은 음탕한 네토라레예요.

J.E., 네바다주 리노

Q: 여친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주최한 바비큐 파티에 가느니, 연말정산 서류 작업을 하는 쪽을 택할 정도로요. 그런 자리에 가면 영양가 없는 수다에 억지로 끼어들어야 하니까요. 우리 관계는 끝장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A:** 인간관계에서는 타협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신 얘기를 보니, 타협하는 솜씨가 별로인 것 같네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당신이 맺은 모든 인간관계는 끝장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영양가 없는 수다에 끼어들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 같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신 여친의 친구들은 그녀가 어떤 사람 인지를 잘 보여주는 선명한 지표라는 거예요. 그녀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당신과 그녀의 관계를 박살내려는 사람들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자리에서 탈출하세요. 갈수록 악화되기만 할 테니. ❶

BOYS, BE TIDY

보이지 않는 자신감.



제모는 단지 짜릿한 섹스 라이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위생과 청결의 '신세계'이기도 하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음모의 모근이 깊고 두꺼우며 평균적으로 술이 많다. 항문의 경우 약 2.5~3배가량이다. 제모는 고질적인 사타구니 습진과 쓸림, 가려움증은 물론 화장실을 다녀온 뒤 말 못할 찢찢함까지 해결해준다. 그래서 보이질리언(Boyzilian)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보이'와 '브라질리언'의 합성어로 남성 제모를 일컫는 신조어다.

브라질리언의 시작은 뉴욕 맨해튼에서다. 1992년, 브라질 출신의 '7자매(J 시스템즈)'가 고안한 뷰티 시술로 배우 기네스 펠트로스는 "사랑하는 J 시스템즈, 당신들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라며 극찬했다. 이어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속 캐리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는 에피소드가 방영되면서 '대박'을 쳤고, 곧 네일과 페디 케어처럼 보편화된 뷰티 케어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애인 손에 이끌려 왁싱을 경험한 남자들이 급속도로 가세한 모양새다.

보이질리언도 크게 왁싱과 레이저 제모로 나뉜다. 왁싱은 녹인 왁스를 헤어 위에 펴 바른 뒤 스트립(제모용 테이프)을 붙였다가 곧으면 함께 떼내 헤

어를 제거하는 방법. 모근부터 각질과 피지까지 완전히 제거해 부드러운 피부를 얻는 대신 아찔한 고통이 따른다. 시술 2주 후부터 헤어가 자라기 시작하니 4~6주 사이에 리터칭 받는 것을 추천한다.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가 피부 4mm 안으로 침투해 모근을 태워 제거하는 방법으로 헤어 재생을 늦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왁싱에 비해 시술 후 부드러움은 덜한 편. 보이질리언은 주로 남성 왁서를 두고 있는 왁싱 숍과 남성 의료진으로 구성된 남성 전문 제모 클리닉에서 시술받을 수 있는데, 여성 왁서가 상주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스트립이 떨어지다가면서 주는 고통에 온 신경이 집중돼 민망함은 그새 잊게 될 테니. 여성 왁서 앞에서 발기가 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남성들도 많은데, 시술 직후 자극으로 초반에는 발기가 될 수는 있지만 금세 안정을 되찾는다고. 그리고 왁서가 시술 중 페니스를 잡는 등 특별한 터치 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왁싱과 레이저 제모 시술 후 관리는 필수다. 3~5일간은 사우나와 수영장 등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공공장소는 피해야 한다. 또 피부에 자극이 되는 행동도 금물.

태닝이나 스크럽은 2주 후부터가 적당하다.

보이질리언 세계에 입문했다면 디자인에 눈을 돌려볼 차례. 보이질리언 중에서도 생식기와 항문 제모를 퍼빅(Pubic) 케어라 한다. 미국판 <코스모폴리탄> 서베이에 따르면 90%가량의 남성이 자신의 퍼빅을 다듬는다고. 그중에서 69%가 잘 다듬어진 형태의 퍼빅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17%가 올 누드라고 답했다. 미국 내에서는 약 12가지 디자인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치구(배꼽과 생식기 사이의 볼록한 부분)의 헤어를 자연스럽게 남기고 페니스 주변의 헤어를 모두 정리하는 '업타운', 치구의 헤어를 사다리꼴로 정리하는 '타잔', 치구의 헤어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고환의 털만 남기는 '메트로', 치구의 헤어를 초승달처럼 남겨 두는 '하프문', 치구의 헤어를 정사각 형태로 정리하는 '그랜드 슬램'까지. 왁싱과 레이저 제모 모두 다양한 디자인으로 가능하지만 처음일 경우 올 누드를 추천한다. 뽀뽀하고 구불구불했던 헤어가 시술 후 한 층 가늘고 가지런하게 자라기 때문에, 또 시술할 수록 헤어의 재생 속도가 더디고 모가 부드러워져 더욱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해볼 수 있다. 

AFTER CARE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남성 청결제는
Jaclyn 제품



오일프리
코코넛 슈거 스크럽은
Lycor 제품



민감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컨디셔닝
알로에 젤은 Allongs 제품





MINI INTERVIEW

A: 무무왁싱스튜디오 대표 장정윤

Q: 정말 제모를 하는 남성이 늘고 있나?

셀럽도 즐겨 찾는 무무왁싱스튜디오의 경우 남녀 비율이 40:60다. 청결, 미용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 찾는다. 관계 시 맨살이 닿기 때문에 성적 쾌감 증대 효과가 있다. 또 운동 중 헤어로 인해 움직임이 불편하고 땀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해결하려는 이들의 방문도 늘고 있다. 20~30대 젊은 층뿐만 아니라 40대에게도 인기가 많다.

Q: 추천하는 디자인은?

디자인은 정말 다양하다.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은 아직 적지만 이니셜, 하트 모양 등을 요구하는 남성도 있다. 중급 정도라면 올 누드 혹은 배의 헤어를 살린 큰 삼각형 모양의 디자인을 추천하고 싶다. 아니면 치구 쪽 헤어는 남겨두고 고환, 항문, 페니스 뒤의 헤어는 모두 제거하는 디자인도 깔끔하다.

Q: 시술 후 관리 요령이 있다면?

각질 케어는 필수다. 일주일에 2~3회 스크럽을 사용해 각질을 제거하고 인그로운 헤어를 방지하는 제품을 구비하라. 솔트 계열의 스크럽은 제모 후 상처 난 모근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녹는 타입의 슈거 스크럽이 좋다. 잠자기 전 제품으로 관리하고 속옷은 입지 않고 자는 걸 추천한다. 혈액순환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PLACES FOR BOYZILIAN

무무왁싱스튜디오

아로마 테라피를 결합시킨 왁싱 숍. 제모 부위와 범위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큐빅 왁싱 프로그램에는 '비키니라인', '디자인 브라질리언'(중급), '플레이보이 브라질리언'(고급)이 준비돼 있다. ☎ 9만~18만원 ☎ 02-541-0310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61길 27 에스빌딩 3층

비에라 왁싱

일본 브라질리언 왁싱협회(JBWA)에서 인증하는 정식 자격증을 취득한 왁싱들이 있다. 천연 꿀 성분의 고급 왁스를 사용하며 비키니, 중급, 고급, 스페셜로 세분화된 보이질리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8만~20만원 ☎ 02-566-2063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골드로즈 2차 315호

JJ 뷰 클리닉

남성 전용 제모 클리닉으로 의료진과 전 스태프가 남성이다. 피부 4mm 이상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고출력 '스무스클 레이저'로 시술한다. 게다가 무통이다.

☎ 삼각라인 50만원(5회), 브라질리언 150만원(5회)

☎ 1599-5962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폴라빌딩 13, 14층

WAXING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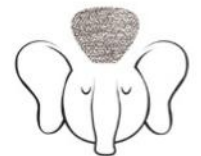
Soldier



Up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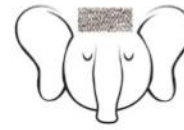
Tarzan



Stud Muffin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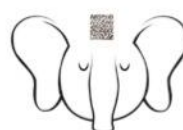
Endzone



Pilot



Half Moon



Grand Slam



Hot Shot



Light Bulb



Acomoclitic

SEX, LIES AND

포르노에도 로맨스가 필요하다

멜로도 아닌 포르노를 얘기하면서
웬 로맨스 타령이냐고?
모든 섹스에는 로맨스가 필요하니까.
그것이 영상일지라도.

by
박훈희

박훈희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섹스 칼럼을 쓴다.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으며, <어됐어, 좋았어?>를 출간했다.

‘본격 연애 & 섹스 고민 상담’을 테마로 하는 팟캐스트 <코스모 라디오: 섹빨간 연애>를 진행하면서 새삼 깨달은 진실 하나, 비교적 섹스 토크에 솔직한 남자 게스트들도 포르노 영화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대화를 꺼린다는 사실이다. “서양물을 선호하세요, 동양물을 선호하세요?”라는 흔한 질문에 남자들은 ‘푸헷’ 짧은 폭소를 터뜨릴 뿐 신뜻 답을 하지 않았다. 내심 ‘여자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다니’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남자들조차 ‘혼자만의 비밀 폴터’만은 절대 들리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그저 “여자친구와 야동까지 공유할 수는 없지 않아요?”라고 반문했다. 동감한다. 나도 포르노 영화만큼은 혼자 보고 싶으니까.

내 인생 최악의 포르노는 10여 년 전 옛 남자친구 A가 보여준 필름이었다. 그날 밤, 혼자 사는 나의 집에 방문한 그는 “우리 야한 거 볼까?”라고 물었고,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야하다’고 평한 그 필름이 권태기에 접어든 우리의 밤에 뭔가 자극을 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판타지의 세계로 안내해줄지도 모른다고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AV 동영상은 나를 조금도 흥분시키지 못했다. 남자의 페니스가 여자의 버자이너를 파고들어가 피스톤 운동을 하는 클로즈업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면서 나는 ‘이게 야하다고? 대체 어떤 장면이 야한 거야?’라고 의문을 가졌을 뿐이다. 당연히 했다. 거기에는 서로를 탐하는 남녀의 끈적거리는 눈빛도, 그 혹은 그녀의 호흡을 거칠게 만드는 뜨거운 애무도, 신음을 뱉어내게 하는 손가락의 움직임도 없었다. 그저 남자와 여자의 알몸과 생식기가 있을 뿐이었다. 심드렁한 나의 표정을 눈치챈 그는 “별로 재미없구나?”라며 동영상을 정지시켰다. 그날 이후, 그는 헤어질 때까지 나에게 야한 동영상을 권한 적이 없었다.

제목만으로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책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남녀가 섹스를 하는 장면만으로도 내가 쉽게 달아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신기하리만치 내 몸은 로맨스가 전혀 없는 에로스에 반응하지 않았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포르노 무비를 보면서 무슨 로맨스를 바라느냐?” 물론 내가 바라는 로맨스는 달콤한 대화나 남녀 간의 ‘밀당’이 아니다. 순애보적 사랑은 더더욱 아니다. 에로틱 영화 <인페이스플>의 남녀처럼 감정 수위가 높은 장면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왕이면 대머리 중년 남

자가 아니라 꽃미남이 여자의 온몸을 구석구석 탐하는 장면을 바라는 건 욕심일까? 펜스레 과한 교성을 지르며 손가락을 입에 무는 서양 여자나 여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조금이라도 더 강하고 빠르게 피스톤 하는 남자보다는 서로의 몸을 더욱 바짝 당겨 안으면서 키스하는 로맨틱한 섹스를 보고 싶은 것이 과연 나만의 욕심일까?

이쯤에서 “그렇게 에로틱한 감정을 중시한다면 포르노 영화 대신에 에로 영화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의아해하는 혹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에로 영화 못지않게 포르노 영화를 즐겨 본다는 점이다.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자체에 거부감은 없다. 포르노 영화만의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자의 유두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손과 입의 움직임, 가슴과 배를 지나 정성스럽게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남자의 애무,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남자의 페니스를 애무하면서 짓는 여자의 장난기 넘치는 표정, 삽입 장면에서 보여주는 남과 여의 표정과 교성, 후배위를 변형한 다양한 체위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하반신이 빠근해지는 쾌락을 경험하곤 한다. 이렇게 섹스의 ‘A to Z’를 보여주는 포르노 영화야말로 ‘소장각’이다. 최근엔 레즈비언 포르노 영화까지 카테고리를 넓혔다. “선배, 전 레즈비언도 아닌데 레즈비언물이 취향이더라고요”라고 말하는 후배 B의 말을 듣고 레즈비언 포르노 영화를 보니, 이것 또한 신세계였다. 여자들의 밀도

플레이는 확실히 남녀의 밀도 플레이보다 훨씬 즐거워 보였다. 한편 VR로 만들어진 포르노 영화도 경험해보고 싶다. 성인용품 박람회에 다녀온 성인용품숍 대표 C와 VR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 D가 입을 맞추거나 한 듯 “곧 AV도 VR 시대가 올 거예요.”라고 말했다. 눈앞에 섹스 파트너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다는 것이었다. 여성인 C가 “상대와 인터랙티브하게 교감이 될 정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어서 좀 더 개발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리얼했어요”라고 말한 것에 반해, 유부남인 D가 “선배, 이런 정말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VR이니까 너무 생생해요. 여기에 4D 효과까지 더해지면 그때는 정말 여자랑 섹스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될 것 같아요.”라고 전혀 다른 소감을 얘기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다니!

다행스러운 것은 2018년에는 남자 못지않게 여성도 즐길 수 있는 포르노 영화가 많다는 것이다. 내가 즐기는 일본 AV에는 여전히 밀도로 여자를 고문하듯 희롱하고, 절정에 이른 후 남자가 여자의 얼굴에 정액을 사정없이 뿌리는 장면이 많지만, 강간당하면서 오르가슴을 느껴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지는 며느리 이야기에는 여전히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강간 기희물’이라며 여자를 때리면서 섹스하는 남자를 보면 심히 불쾌하지만, 그래도 10년 전에 비해 포르노 영화는 꽤 불만해졌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섹스를 보여주지 않는다. 남과 여가 출연하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를 탐한다. 인터랙티브하다. 어쩌면 옛 남자 A의 포르노 취향도 그의 탓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영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보자. 10여 년 전에 생산된 포르노 필름 대부분이 여자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 소비자였던 남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포르노는 그저 마스터베이션을 할 때 보는 동영상으로 소비됐고, 어떤 포르노 영화에선 남자는 손과 페니스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시청자가 예쁜 여자와 섹스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이 같은 남성 전용 포르노 필름만 아니라면, AV를 환영한다. 나는 포르노 영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로맨스와 에로스가 들어있기를 바라는 것뿐이니까. P

PORNOGRAPHY



그 여자와
그 남자가
포르노를 보는 이유.

©Shutterstock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걸 묻기론 동창 김건욱(가명, 27세, 여성 의류 브랜드 오너)만 한 선택이 없었으니까. 내 질문은 이거였다. “남자들 포르노를 왜 보는 거야?” 그는 크게 한번 웃더니 “뭐긴 뭐야, 네가 지금 섹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혼자 딸X이라도 쳐서 싸고 싶은 거지. 물리적으로 섹스할 여건이 안 될 때, 곁에 있는 (내 오른손을 가리키며) 두 번째 여자친구랑 놀려고 포르노를 켜는 거잖아.”라고 답했다. 늘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야간활동이 왕성한 그의 말은 여자보다는 사정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아니, 남자들이 꼭 딸X이 치려고 포르노를 보는 건 아닐 거야. 현실에선 하기 힘든 ‘괴랄한’ 섹스를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금기시 되는 상황의 섹스라든가, 다양한 체위를 연구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있잖아.” 건욱은 또 크게 웃었다. “네가 무슨 열다섯이냐? 배우긴 될 배워,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너랑 누울 여자

가 섹스에서 뭘 원하는지 파악할 생각을 해.”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야 내가 왜 ‘그 따위’ 질문을 하는지 물었다. 나는 영문 모를 패배감에 순순히 취조에 응하는 용의자처럼 털어냈다. “섹스가 하기 싫어졌어. 닷새 동안 다섯 명과 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귀찮아. 의욕도 없고, 이젠 씻지도 않게 되더라고. 게다가 하는 동안마저 별로인 거야. 싸버리면 끝인 거란 생각에 내내 천장만 보게 돼, 새로 올 게 없는 거지. 그래서 포르노를 검색했어. 뭐라도 새로운 섹스를 보고 싶어서. 근데 포르노는 켜기가 무서운 거야. 무슨 제목들이 그래? 근친이니, 강간이니, 난 막 폭력적인 건 못 보겠어. 근데 네가 획 떠오른 거야. 옛날 네 별명이 ‘야전(야동전도사의 줄임말)’이었잖아. 맨날 애들한테 포르노 링크 보내고, 너라면 알 것 같았어.”

처음엔 좋았으니까, 돌아가보잔 맘으로 포르노를 처음 본 기억을 떠올렸다. 남자가 살을 맞대고 핑구는 걸 본 첫 경험. 영상 속 여자는 아프지만 즐거워 보였고, 남자는 숨차지만 멈추고 싶진 않아 보였다. 그러더니 서거나 눕고, 앉거나 엎드려가며 섹스를 이어갔다. 그때는 체위라는 단어를 몰랐으니까, 글이나 말로는 따라 하기 힘든 섹스를 눈으로 배웠달까. 무엇보다 포르노로 애무의 세계를 처음 경험한 건 ‘섹스=운동’이라 믿던 철부지에게 ‘섹스=함’이란 깨달음을 주었다. 정성스럽게 여자의 가슴을 매만지던 남자의 손이 천천히 유두에 다가갈 때의 진율, 여자가 아끼고 간직하듯 페니스를 입에 넣거나 자극할 때의 희열 등등. 하지만 건욱의 말처럼 배움은 그때 끝났다. 섹스가 수련을 통해 성장하는 무술은 아니지만, ‘대충’ 내가 어떨 때 좋고, 상대는 어떨 때 쾌락을 느끼는지는 알게 됐으니. 하지만 몇몇 체위를 제외하곤 곡예에 가까워 보이는 기이한 자세와 애무까지 섭렵하기엔 내 섹스는 너무 평범했다. 게다가 아무 전사 과정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피스톤 운동과 하나된 남녀의 ‘거기’만 비추는 영상에 점점 흥미마저 떨어졌다. 내 현실의 섹스엔 이유가 있는데, 포르노처럼 다짜고짜 섹스만을 위해 누군가를 만날 일은 없었으니까, ‘비현실적인 섹스’로 가득한 포르노는 자연스레 곁에서 멀어졌다. 선호하는 포르노를 장르, 취향, 상황, 배우 등으로 나눠 찾을 생각은 더 더욱 없었다. 야동에 그만큼 애정을 쏟으며 정리

보고 또 보고

겨울인지 봄인지 심란하기만 한 날,
포르노 보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던 에디터는
더 심란해지고 말았다.

하기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럴 시간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 점차 포르노 폴더엔 틸토 브라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작품이나 <블루 라군> 같은 영화가 채워졌다. 영화로 성욕을 채우는 건 포르노를 대할 때만 다른 범주였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왜 섹스를 하는지 이해했다면, 언제든 섹스 신만 돌려봐도 아랫도리는 불룩해졌으니까. 무엇보다 영화는 포르노를 볼 때 느끼는 죄책감이 없었다, 그게 가장 좋았다.

“솔직히 난 섹스보다 야동 보면서 자위하는 게 더 좋아.” 책임질 일도 없고, 손과 스마트폰 그리고 휴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해소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일까?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쏘아붙이려던 찰나. “네가 원하는 모든 구성을 갖춘 야동을 원하는 만큼 찾을 수 있는 세상이야. 섹스는 섹스고, 자위는 자위고, 포르노는 포르노인 세상이라고. 뭐든 각자 취향대로 하는 거야. 정해진 게 어딴?” 건욱은 잠깐 피식 웃었지만 도장 찍듯 말했다. “한국은 예로 영화밖에 못 만들게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AV 시장 규모가 크잖아. 이젠 원하는 대로 카테고리를 나눠 찾을 수 있어. 게다가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인 유명 커뮤니티도 있어서 자료 공유도 얼마나 빠른데.” 종합하자면 ‘맞춤 야동 추천 시스템’ 같은 걸까. 건욱은 작년 초에 개설된 모 사이트 AV 배우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직접 포르노를 업로드하는 건 되지 않고, 관리자도 있어서 나름의 ‘건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우스를 확확 돌리며 커뮤니티를 누볐다. 찾는 수고를 덜어주고 원치 않는 포르노를 필터링할 수 있다니. 커뮤니티 게시판을 가득 채운 건 유저가 찾고 싶은 포르노를 캡처해서 올린 게시물이었다. 클릭 해보니 ‘휴지 끈 긴 형들이 귀신처럼 사진 속 포르노의 품년부터 배우 이름, 제작 연도와 레이블까지 알려주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보니, 바지 앞쪽이 쪽 ‘썩긴다.’

밥 딜런의 시선

이 꾸며진 불안을 보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겉으로 알려진 업적과 명예, 그리하여 드리워진 이미지와 후광만 반복 복제하듯 주입받게 된 어떤 인물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이 사람이 낯설어졌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도 선명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여 낯익은 이가 낯선 이가 된다.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사진 한 장이 촉발시킨 이 느낌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유심히 들여다본다. 그는 사진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수십 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 그 얼굴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읽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그러니 이것은 일종의 시간 여행이자, 시간을 무화시켜 나 자신의 현재를 먼 옛날의 그를 통해 점검하려는 이상한 거울 놀이일 수도 있다. 그는 물론 내가 아니다. 그런데 왠지 내가 이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그를 통해 나를 이야기한다.

사진 속의 그는 (지금보다) 젊어 보인다. 대략 40대 초·중반 정도? 조금 심통 난 표정이다. 앙다문 입술은 어쩐지 심란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화가 난 듯도 싶고, 의지를 결연히 다지는 것 같기도 하다. 검은 선글라스 안에 감춰진 눈이 무얼 말하는지 짐작할 순 없지만, 부술부술한 헤어스타일과 안경테 바로 위에서 억지로 구긴 듯 물려 있는 미간은 짜증스러워 보인다. 그는 왜 화가 난 걸까. 어쩌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감정의 무모한 파동이 대상 없는 불안을 조장해낸 건지도 모른다. 정확히 누가 언제 찍은 사진인지, 무슨 노래를 열심히 부르던 시절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역사적 정황들이 사후적으로 밝혀내는 한 인간의 표정엔 그 어떤 진실도 없다. 유명 인물일수록 자신만의 솔직한 표정을 갖기란 어

려운 법이다. 그러니 아예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물론 이 유명한 인물에 대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저 낯선 곳을 여행하다 만난 한 남자의 표정이라 생각하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자. 망상인지 모르지만, 왓슨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그의 눈이 비열하게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내 심정이 지금, 그러하기 때문이다.

눈을 감추면 표정이 드러나지 않고 약점을 감출 수 있으며 타인의 오해를 줄일 수도 있다. 선글라스는 하나의 완충막 같은 것이다. 그것은 세계의 빛을 흡수해 무감각의 지대로 전이되는 소실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신을 지우는 방식으로 더 돌올하게 드러내기.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어둡게 가두면서 정작 스스로는 본래의 것과 다른 빛깔로 세상을 관망하는 것. 그건 세계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기만하는 일이다. 사실 모든 예술은 자신만의 색안경을 통해 들여다본 세계의 표면에 거짓 진실을 착색하는 짓이지 않던가. 아름다움은 고로 자가당착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건 그(녀)의 거짓에 탄복하여 스스로를 완전한 거짓말 속에 매장시켰다는 것과 같다. 어차피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고 진실임직하다고 믿을 만한 어떤 허구가 삶의 한 순간에 커다란 충만감을 전해줄 뿐이다. 사진 속의 그는 선글라스 뒤에 감춘 자신의 진짜 눈빛을 보고 지레 놀란 것일 수도 있다. 스스로 가두어 버린 심연이 교묘한 은폐 속에 거꾸로 드러난다. 그는 화난 척 피곤한 척 웃는다. 아,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그런데, 나의 이런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무대에 자주 서는 자들은 자신의 쇼맨십 자체를 저주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그 저주 자체를 즐기고 희롱한다. 그들은 일상에서의 소를 더 끔찍해한다. 그들 곁에서 그들의 진심을 포장해주는 역할놀이만 한 인내심으로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관객 없이 솔직해지기, 또는 솔직함을 가장해 스스로를 도발하는 아양 떨기. 그건 들어줄 이 없는데 혼자 울어대는 아이의 심사처럼 고립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대개 파괴적이다. 선글라스를 벗고 거울을 들여다볼 때의 황막한 이질감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내는 연기에 몰두한다. 남들을 열광케 하고 묵혀 있던 감정들을 토해내게끔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털끝만큼의 유머도 허용하지 않는 우둔한 자의식이 그들을 괴롭힌다. 그들은 쓴 걸 씹으며 단물을 뱉는다. 사소한 감기몸살을 폐렴이라도 되는 양 늘 아파하면서 그 아픔이 풀이 되고 술이 되는 오묘한 공정 과정을 마치 신의 특명으로 관장하기도 하는 듯 우쭐해하기도 한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버림받기를 즐긴다.

일자로 맞물린 입술을 보아하니 그의 호흡은 안으로 깊게 말려들고 있을 듯싶다. 정체 모를 불안이나 화를 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숨을 오래 안으로 말고 있으면 호흡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과정이 몸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각인된다. 요가나 필라테스의 원리 또한 거기에 기초한다. 평소 자각하기 힘든 몸의 실체와 그것의 윤택 상태가 느껴지는 것인데, 그때 시선은 대개 몸 안으로 굽는다. 소위, '자기 자신을 마주한다'는 건 그런 의미다. 이럴 때에도 선글라스는 유용하다. 자기 자신을 굽어보는 시선이 밖으로 노출되면 왓슨 정신 나가 보이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선글라스 위로 살짝 드러난 미간이 일그러져 있는 것도 그 탓일 것이다. 노래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리듬과 음폭 안에서 가래를 반복하는 심장을 스스로 체감한다는 건 오르가즘을 방불케 한다. 언어는 거짓에 능통하지만, 심장은 그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저 움직이고 팽창하고 줄어들고 멎을 뿐이다. 그렇게 삶의 극적인 한 순간을 얘기하다가 어느 날 고요히 잠들 뿐이다. 그의 매부리코를 통해 흡입된 어느 시절의 공기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 누군가의 술이 되고 꿀이 되었다. 자신이 뱉은 진실과 거짓의 파노라마 속에서 스스로의 미래와 과거를 시간 속에 암장한 채 그는 어느덧 여든에 육박했다. 가장된 평화와 여전히 멀기만 바란다. 물론 내 심정이 지금, 그러하기 때문이다. ❶

by
강정

시인 강정은 1992년 스물두 살 이른 나이에 데뷔해 25년째 시를 쓰며 밥을 먹고 산다. 여섯 권의 시집을 냈고, 네 권의 산문집을 발간했다. 최근에는 <플레이보이>를 통해 첫 단편소설 <유리의 감옥>을 발표했다.



PSYCHO KILLERS

당신의 잠을 먹어치울 올해의 뉴비 <빌어먹을 세상 따위>의 관전 포인트 세 가지.



틴에이지물이지만 청소년은 보지 말 것

넷플릭스는 언제나 드라마의 한국어 번안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어 보이게 짓곤 하는데 <빌어먹을 세상 따위>(The End of the F***ing World)는 다르다. 물론 <빌어먹을 세상 따위>는 17세 소년과 소녀가 답답한 집을 떠나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사랑에 빠지며 성장하는, 흥미로운 동시에 흔해빠진 서사다. 그러나 주인공 제임스(알렉스 로더)와 엘리샤(제시카 바든)는 아직 앳되고 말간 티를 못 벗은 얼굴을 하고서는 가솔과 절도, 강도, 살인 등을 저지른다. 틴에이지물이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드라마. 엘리샤는 상대를 유혹하며 허세를 부리지만 섹스를 영 못하고, 사이코패스를 자처하는 제임스는 중년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다. 기억해보자, 우리의 10대 시절 연애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에 대해. 포장되지 않은 제임스와 엘리샤의 날것 그대로의 풋풋한 로맨스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그 시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 역시.



by
이지혜

문화에 대한 글을 쓰는 이지혜는 흥미롭거나
전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사정없이 쓴다.
그는 얼마 전까지 (ize)의 취재팀장으로 일했다.

사이코패스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주목하라

17세 소년 소녀의 사랑을 떠올리면 청신한 눈동자를 깜빡거리며 서로에게 다가가는 청량한 이미지가 어른거린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옆집의 고양이를 죽이고, 주머니 속에 사냥용 칼을 숨기고, 배에서 피를 왈칵 쏟아내는 이성의 모습을 상상하는 소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제임스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엘리샤를 죽일까 고민하는, 아직 각성하지 못한 듯이 없는 사이코패스다. 엘리샤의 도발에 못 이기는 척 받아주지만, 그의 머릿속은 성욕이 아닌 살해 욕구로 혼미해진다. 물론, 엘리샤는 알리가 없다. 제임스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보인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빌어먹을 세상 따위>가 연애물이기도 한다는 것. 엘리샤가 제임스에게 다가갈 때마다 피를 뒤집어쓴 엘리샤 장면이 스쳐 지나가고, 이들의 연애는 로맨스가 아니라 스릴러의 경계를 넘나든다. 4컷 만화인 동명의 원작처럼 모든 상황은 아주 짧게 때로는 한 컷으로 연출되기도 하며, 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위험한 둘의 연애는 총 8편(1화당 약 20분)으로 아주 긴박감 있게 진행된다. 사이코패스의 사랑의 형태가 궁극한 사람이라면, 첫화를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달리게 될 것이다.

남다른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눈여겨볼 것

어쩌다 보니 살인을 하게 된 제임스와 엘리샤는 경찰에 수배된다. 위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또 다시 자동차를 훔쳐 달아난다. 경찰이 수사를 하며 밝혀지는 이들의 일상은 이들이 왜 '보니 앤 클라이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준다. 좋은 집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란 제임스와 엘리샤의 일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상이란 단어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엘리샤는 의붓아버지로부터 희롱을 당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외면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후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된 제임스 옆에서 아버지는 허허실실 웃기만 한다. 이들이 마주한 어른들은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었다. 정처 없이 걸어가는 두 사람을 차에 태워주고, 물건을 훔친 엘리샤를 놓아준다. 그러나 평범한 가면 뒤에 숨은 이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엘리샤와 제임스를 더한 수렁을 몰아넣는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둘이 함께하면서 비로소 안락함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수많은 죄다. 두 사람이 함께하며 드디어 안정을 얻었지만, 이미 이 세상에 둘이 함께할 만한 공간 따위는 없다. 만약 엘리샤가 물건을 훔치다 잡혔다면, 제임스가 경찰서에 갔을 때 도주하지 않았다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상은 죽음보다 더한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탈주하며 위험한 행복을 찾은 것인가, 침묵으로 감정을 뭉개버리는 일상을 견디며 살 것인가. 이 고민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했을 뿐이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①



20q

: editor yang boyeon assistant editor kim sunhee
hair & makeup artist kim ayoung



THE VOICE ACTOR KANG SOOJIN

성우 강수진은 목소리로 누구든 될 수 있다.

photography
by
kim jiyang

Q1: 오늘은 청자가 아닌 독자를 위해, 목소리 대신 몸으로 연기했어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은 거고요.

Soojin: 카메라 앞에 종종 서보긴 했지만, 제가 시각적 연기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내 표정과 몸짓이 어색하진 않을까, 평소와 반대라 사진을 보고 내 목소리가 연상되어야 하는데,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땠나요?

Q2: 자연스러웠어요. 역시 연기자구나, 똑같이 연기를 하는데 세상엔 마이크를 통해 담긴 목소리 연기만 알려지고 있구나, 할 만큼.

Soojin: 독자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연기는 결국 ‘한 뿌리’라고 봐요. TV 드라마 연기, 영화 연기, 성우 연기는 연기 기술이 다를 뿐 본질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기라는 한 나무에서 자란 다른 가지인 거죠. 뿌리는 같은 나무. 성우도 똑같이 연기를 하는데, 수용자에게 시각적인 정보 없이 목소리만 전달되는 거예요.

Q3: 그게 성우의 매력이지 아닐까 해요. 소리로 무언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일.

Soojin: 맞아요. 수용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영화나 TV 드라마는 상상의 여지가 오디오 연기도 마찬가지요. 시각적으로 강렬해서 그게 감성을 장악하기도 하니까요. 반면에 라디오 드라마는 소리를 단서로 마음대로 상상하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질 테고요. 그런 면에서 요즘 젊은 세대 중 오디오 콘텐츠를 신선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Q4: 예를 들면요?

Soojin: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이고, 비주얼 매체가 강세잖아요. 시각적인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오디오 콘텐츠는 익숙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ASMR이나 라디오 같은 콘텐츠를 신선하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어린 친구들에게 보이는 것 없이 소리로만 가득 찬 새로운

세계인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겨냥한 오디오 드라마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Q5: 가까운 미래에 성우 업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요?

Soojin: 콘텐츠의 형태가 다양해질 거라고 봐요. 청각으로 오감을 자극하고 만족시켜주는, 육감을 일깨우는 라디오 드라마 같은 콘텐츠가 곧 더 생길 거예요. 재밌는 건, 이것이 이미 1960~70년대에 유행한 콘텐츠라는 것. 단지 비디오 시대가 되면서 잊혀졌을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온라인, 모바일 게임에서도 전문 성우의 목소리를 쓰는 일이 많아졌어요. 성우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Q6: 베테랑 성우로서 목소리 연기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매체를 잘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Soojin: 전혀 거부감 없어요. 물론 고전이라 부를 만한 라디오 드라마 같은 콘텐츠는 원형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크게 자라잖아요. 고전 콘텐츠가 잘 보존되어야 성우의 가치도 유지될 거라고 봐요. 그 외엔 오디오 콘텐츠가 다양한 문화와 섞여야 성우 업계에도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거라 생각해요.

Q7: 성우에게 잘 맞는 새로운 플랫폼이 있나요?

Soojin: 최근 몇 년간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웹툰이 요즘엔 소리를 입힌 버전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가 팟캐스트로 이어진 〈와이파이 초한지〉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인기 면에서도 나름 선방한 드라마죠. 그 외엔 KBS와 대형 포털 사이트가 함께 제작하는 오디오 드라마가 있는데, 이 작품은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유입되는 경로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의 반응을 보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는 반응. 웹툰에 소리만 입힌 형태가 아닌 짧은 애니메이션과 님은 새로운 플랫폼 ‘웹툰 애니메이션’도 개발되고 있어요. 몇 십 년 전부터 존재한 오디오 콘텐츠가 젊은 감각을 입은 결과죠. 저는 성우 업계의 미래가 밝다고 봐요.

Q8: 목소리 연기 얘기를 하자면, 처음 대본을 받고 캐릭터를 구현해낼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어떤 건가요?

Soojin: 작품마다 달라요. 한국의 더빙 콘텐츠는 국내 창작물보다 수입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작품을 대할 땐 먼저 원작을 보고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성우가 만들어놓거나 혹은 제작자가 그려놓은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을 테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말화 하는 과정에서 성우가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내느냐, 원작의 결을 이어가느냐 하는 선택이구요.

Q9: 그럼 지난 2월 14일 개봉한 〈명탐정 코난: 감벽의 관〉의 남도일을 연기할 땐 어떤 선택을 했나요?

Soojin: 원작의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한 편이에요. 〈명탐정 코난〉 시리즈는 이미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속 셜록을 많이 차용했거든요. 남도일은 셜록의 차가운 지성을 쏙 빼닮았어요. 만화에서 남도일이 ‘셜록 덕후’이기도 하고요. 제가 목소리로 새롭게 창조하기보다 원작의 성격과 성향을 잘 옮겨오자는 마음이었어요.

Q10: 20년 넘게 남도일의 목소리를 연기했어요. 남도일이 변한 게 있나요?

Soojin: 남도일은 안 변했고, 강수진은 변했네요. (웃음) 남도일은 원작에서도 큰 변화가 없지만, 저는 20년을 살았으니 감성이나 목소리가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성우는 그걸 티 내면 안 되니까, 변하지 않으려 애쓰죠. 성우로서 감사한 건 인간의 신체 기관 중 성대의 노화가 더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환경에 따라 말투나 감성이 변할 수 있으니, 달라질 순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철이 들면 안 돼요. 소년만 화 주인공을 연기하고 있으니까.(웃음)

Q11: 연기에서 놓쳐선 안 될 게 있다면 뭘까요?

Soojin: ‘듣기 좋은 음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놓는 것. 많은 성우와 성우 지망생들이 예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연기



의 본질을 놓치기 십상이에요. 성우에게 목소리는 배우의 외모 같은 거예요. 유명한 영화배우가 잘생기고 예쁘면 보기 좋죠. 그런데 연기를 못하면 관객은 외면하잖아요. 성우도 목소리는 듣기 좋은데, 연기를 못하면 청자는 떠나요. 배우가 예쁜 얼굴에 집중하는 것과 성우가 듣기 좋은 목소리에 집착하는 건 같은 범주의 실수예요. 예쁜 음성보다 개성과 리얼한 연기가 중요해요.

Q12: 최근 외화, 애니메이션 더빙을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전문 성우의 더빙 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나요?

Soojin: 유명한 연예인이 더빙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말씀드렸듯 연기의 본질은 배우와 성우가 같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티켓 파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더빙을 한다고 해서 티켓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는 결과도 있어요. 문제는 더빙 실력은 커녕 트레이닝조차 안 하고 녹음하는 경우예요. 저는 비전문 성우라도 이왕 할 거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목소리 연기를 못하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전문 성우거든요. 리얼하지 않은 더빙을 본 관객이 우리말 더빙은 재미없어, 이럴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목소리 연기 잘하는 사람이 와서 관객들을 놀라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우들도 더 주목 받게 될 거고, 그렇게 시장이 커지면 연예인이 더빙을 하는 것처럼 성우들도 연예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더 생길 테니까요.

Q13: 몇 년 전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한 서유리가 그런 경우죠. 성우가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Soojin: 환영이죠. 업계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실은 서유리 성우의 방송 데뷔를 서포트한 게, 저와 뜻을 같이한 몇몇 선배 성우들의 기획사거든요. 서유리의 성공은 성우 선배로서 지금도 잘된 일이고 보기 좋아요. 하지만 기획사 입장에서 아쉬운 면도 있어요. 제작자로서 서유리 성우가 방송에서 자리를 잡고, 더 많은 성우가 연예계에 진출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물론 성우로서 예능 진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케이스라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그 친구를 동경하며 성우가 되겠다는 지망생도 많고요. 제2, 제3의 서유리가 더 나온다면 성우 업계에도 더 멋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요.

Q14: 한국예술원 성우 전공 교수이기도 해요. 성우 지망생에게만 알려주는 목소리 연기 비결이 있나요?

Soojin: 성우가 연기자라는 걸 인지하는 것. 세상

모든 멋진 성우들의 공통점은 탄탄한 연기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기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우이기 전에 배우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국 공채 성우 시험 경쟁률이 몇 백대 일인데, 눈에 띄는 개성도 중요하고요.

Q15: 처음으로 돌아가는 맘으로, 성우 공채 시험날 기억나요?

Soojin: 자세히는 아니고, 어렵쑤이. 겨울에 KBS 별관 5층 발코니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고, '목욕탕 발성' 남자들이 찌렁찌렁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웃음)



**성우와 배우는 연기 기술이 다를 뿐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요.
연기라는 한 나무에서 자란 다른 가지인 거죠.
뿌리는 하나인 나무.**

저는 시험장에서 북한 사투리 연기를 했어요. 주어진 다섯 개의 시험 대본 중 가장 격정적인 연기를 필요로 했던 대본이었죠. 덜컥 합격했어요. 나중에 들은 건데, 그날 사투리 연기를 한 건 저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Q16: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더 남았나요?

Soojin: 사실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다양하게 했어요. 더 해보고 싶은 건 격정적 멜로의 남자 주인공. 더빙 말고 오디오 드라마였으면 좋겠네요. '찐한' 멜로면 좋겠는데, 그럼 베드신이 빠질 수 없겠고요. 베드

신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일 텐데, 그러려면 청소년관람불가여야겠네요.(웃음)

Q17: 지금까지 목소리 연기한 캐릭터 중 유독 아끼는 게 있나요?

Soojin: 하나를 고르는 건 불가능해요. 우선 <이누야샤>의 이누야샤. 작품 자체가 완성도가 높기도 하고, '츄데레' 남자인데 제가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웃음) 다른 건 <원피스>의 루피도 좋고, <명탐정 코난>의 남도일도 아껴요. <설록>의 모리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외화 더빙 중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작품들. 제가 신세 많이 진 배우예요.(웃음)

Q18: 어떤 신세요?

Soojin: 제 출세작 <타이타닉>이 그가 출연한 작품이니까요.(웃음) 이후로 그가 출연한 영화 더빙은 거의 다 제가 했어요. 지금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전담 성우'로 불리기도 해요. 외화 더빙은 그 배우가 긴 시간 연구하고 수십 번의 테이크를 거쳐 만든 최고의 장면을 목소리로 표현해야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만큼 더빙판은 성우의 연기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하고요. 디카프리오라는 멋진 배우의 목소리를 몇 번이나 연기한 건 뜻깊은 일이에요.

Q19: "애니메이션 성우로 산다는 건 늘 소년성을 간직하고 산다는 의미다." 2016년 <맥스무비>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Soojin: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왜 볼까요? 사람에게는 동심으로의 회귀 본능이 잠재의식 속에 있대요. 심신이 안정되고 편안했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걸 자극시켜주는 게 바로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래서 소년만화의 인기가 유독 높은가 봐요. 저는 소년만화 속 열혈 캐릭터를 자주 연기하는 편이라 소년의 감수성을 잊으면 안 돼요. 감성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도 느껴야 연기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10대, 20대의 젊은 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Q20: 올해로 데뷔 30년이예요. 직접 연기한 <슬램덩크> 강백호의 명대사를 빌려서, "성우 강수진 인생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Soojin: 다행히 지금은 아니고요.(웃음) 음, 작년인 것 같아요. 상복이 있어서 PD협회 성우공로상부터 라디오 성우 쪽에선 대상이라 부르는 KBS 라디오연기대상 최우수연기상도 탔어요. 라디오 드라마는 성우에게 고향 같은 의미거든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임한 라디오 드라마인데, 상까지 받은 거죠. 제 30년 성우 인생을 아우르는 감격적인 순간은 작년인 것 같아요. **P**

“나 저거 해야 해.” 댄스홀 댄스(Dancehall Dance)를 보자마자 반했어요. 그래서 곧장 댄스홀 댄서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무조건 하고 싶을 만큼 맘에 쏙 들었거든요. ‘핫 중에 핫, 크레이지 중에 크레이지.’ 춤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섹시함 중 최고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만큼 관능적이고 섹시하고 자신감이 중요한 춤이죠. 게다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까지 있으니,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나 댄스홀 댄서야.” 그러면 모두 좋아해요. 댄스홀 댄서는 잘 놀고 즐기는 사람이란 말이기도 해요. 댄스홀 댄스는 자메이카에서 시작된 문화이고, 레게에서 파생된 춤이라 원초적이고 편한 매력이 있어요. 댄서들도 내 멋진 춤을 보여주겠어, 라기보다 공연장에 있는 모두 함께 즐기자는 마인드죠. 저도 무대에 오를 때면 늘 생각해요. ‘나 오늘 진짜 재밌게 놀고 갈 건데, 어떻게 해야 관객과 함께 즐거울 수 있을까?’ 이런 맘이 관객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파티는 더할 나위 없죠. 공연장이 아니어도 어디든 댄스홀이 될 수 있어요. 뒷마당이 될 수도 있고, 집 거

실이 될 수도 있죠.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어디든 댄스홀인 거예요. 거울 앞에서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춤. 댄스홀엔 승패가 없어요. 경쟁하는 춤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할 뿐이죠. 오늘 빨간 드레스를 입었다면, 빨강에 어울리는 춤을 추는 게 댄스홀 댄스예요.

제 닉네임인 ‘미스 프라이데이(Ms. Friday)’는 파티퀸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금요일의 여왕. 주말을 가장 화끈하게 보내는, 어떤 파티를 가도 가장 잘 노는 여자죠. 누구나 미스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즐기는 사람이 파티의 주인공이니까요. 몇 년 전에 자메이카에 다녀온 뒤로 댄스홀과 레게 문화에 대한 신념이 더 확고해졌어요. 전보다 더 즐겁게 춤추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댄스홀 댄스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맘도 커졌죠. 꼭 해보고 싶은 건 여자들끼리의 광란의 파티. 그 안엔 질투, 동경, 사랑, 우정 등 수많은 감정이 공존하겠죠. 모든 걸 내보이고 서로 피부로 느끼며 친해지는 공간, 그게 댄스홀이에요. ⑦

THE DANCEHALL DANCER

댄스홀 댄서 리지가 몸으로 전하는 말.

photography
by
yoon sukm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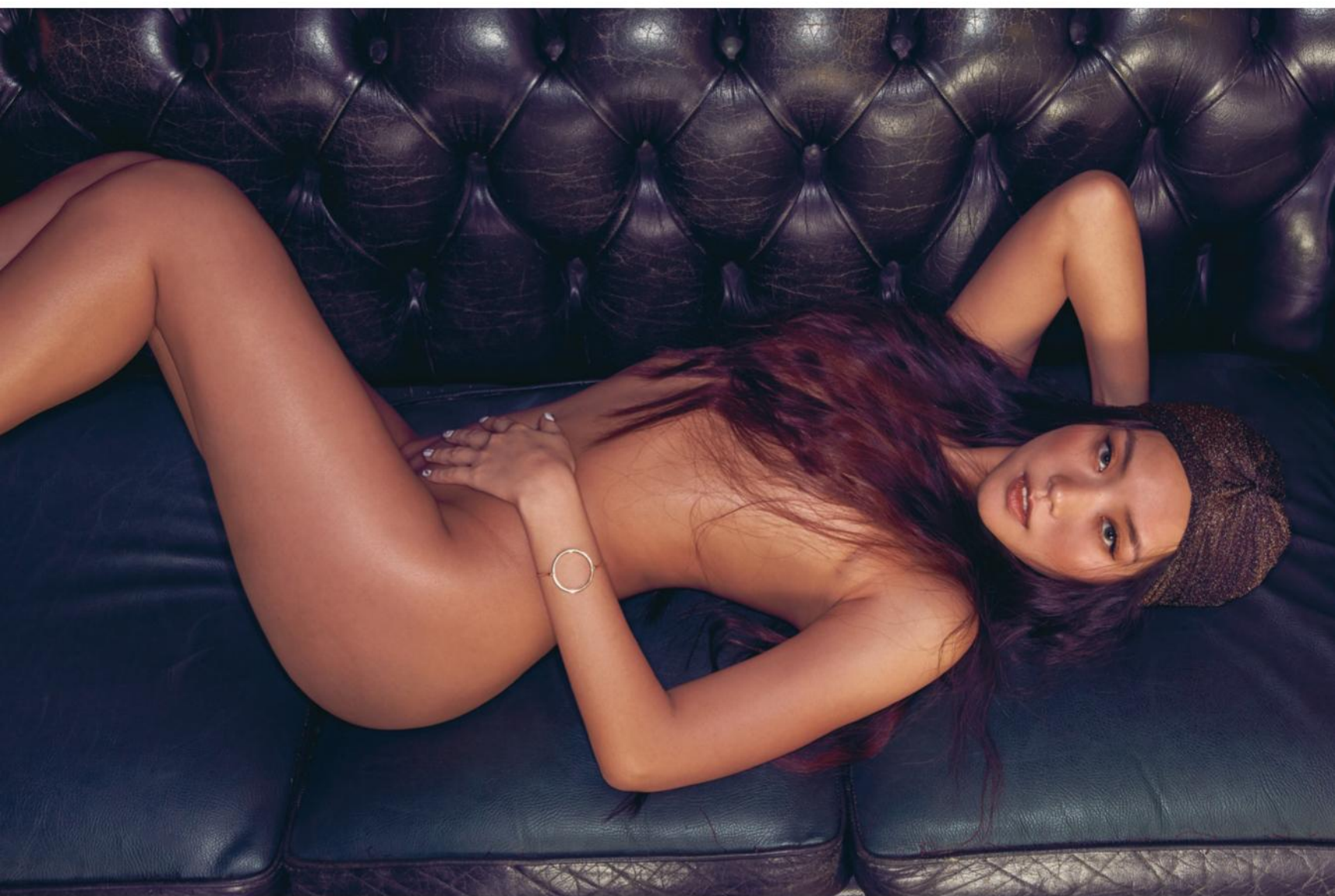






골드 체인 초커와 뱅글은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킷아웃 디테일의 레이스 보디슈트는
ETAM 제품

아프리카 스타일 터번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링 브레이슬릿은 모델 소장품





골드 초커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시어한 니트 원피스는 FOREVER 21 제품

실버 뱅글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반지는 모두 모델 소장품,
레이스 속옷은 ETAM 제품



THE LIMINALITY
**SUNG
KIWAN**

새로운 밴드 맛사를 결성한 성기완은 지금 국경에서 일한다. 시인의 태도로.

photography
by

yoon sukmu





Playboy: 앳싸(AASSA)는 아프로 아시안 사운드 액트의 줄임말이죠, 아프로와 아시안에 어떤 접점이 있다고 봤나요?

Kiwan: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70~80퍼센트는 그 기원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예를 들면 비틀스, 또 2005년부터 EBS 라디오 〈세계음악기행〉을 진행했는데, 그때 서아프리카 음악에 매료됐어요. 3개월 휴가 나서 말리에 다녀왔죠. 수도 바마코의 홍대 같은 곳에서 맨날 잤하고 놀았어요. 그때부터 언젠가 이 경험을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2016년에 3호선 버터플라이를 그만둘 무렵 과연 나는 무슨 음악을 하고 있나, 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음악을 하는 건가 영국 음악을 하는 건가. 그냥 B급 카피인가? 괴롭던 와중에, 그들의 음악에도 일단 아프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 미 남부나 리버풀 백인들의 뭔가가 결합된 거고, 아, 세계의 대중음악이 로컬에 아프로를 붙이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아시아인이니까 아프로 아시안이라 해보자, 생각한 거죠. 운 좋게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아미누랑 보컬 하는 (한)여름이를 만나서 앳싸를 시작하게 됐어요.

Playboy: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속칭 ‘디지털 음악’이 클럽 신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나요?

Kiwan: 그런 게 있다는 건 아프리카에서도 알긴 했어요. 거기 나이트클럽 가면 굉장히 묘한 걸 들으면서 놀더라고요. 물어보면 “무슨 레게야” 그러는데, 보편적 레게는 아니고, 그걸 디깅할 만한 정보가 충분하진 않았고요. 대신 이런 맘은 있었어요. 아프로란 걸 민속음악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전자음악적 요소를 들여온 거죠.

Playboy: 시집과 엮어 낸 솔로 음반 〈리〉와 연결점이 있는 게 아닐까, 짐작했어요. ‘벽지/뜻의 차이’ 같은 곡에서 리듬이나 소리를 활용한 방식이라든가.

Kiwan: 한때는 MPC 3000 같은 샘플러 구해서 리듬도 찍고 그랬어요. 90년대에 99라는 밴드를 결성해 시도해본 적도 있고, 모던 록이랑 힙합을 합쳐보려 했죠. 지금 들어보면 무모하지만, 그러다 뭐가 결정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겼고, 마침 허클베리핀에서 남상아가 탈퇴했다는 얘길 듣고 3호선 버터플라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도 가끔씩 시도는 했어요. ‘벽지/뜻의 차이’ 같은 곡에선 80년대 드럼 머신 사운드를 MPC에 넣어서 돌려보기도 하고, 3호선 음반에서도 ‘나가 더 색시랑 뽀빠야’는 808 사운드를 시뮬레이션한 거고.

Playboy: 재미있는 건, 지난해 발매된 3호선 버터플라이의 5집이야말로 ‘전 자적’이라는 점이죠.

Kiwan: 완전히 일렉트로닉하더라고요. 좋게 들었어요. 멤버들이 하고 싶었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앳싸는 3호선 버터플라이와 완전히 단절된 거냐고. 그렇다기보다 한 사람 밑에 여러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 중 뭐가 어떻게 드러날 지 모르는 거고.

Playboy: 3호선 버터플라이에서 의외로 성기완의 역할은 ‘록’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Kiwan: 그렇진 않았어요. 록은 어떤 면에서 상아가 더 많이 담당했던 것 같고, 너바나나 소닉 유스를 제대로 흡수한 세대니까. 저는 뻗속에 든 음악이 없어요. 예를 들어 크라잉넛한테 핑크 말고 탄 걸 해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드럭에서 핑크를 막 처음 하던 그 과정은 인생관을 비롯한 모든 게 다 걸린 거니까. 남상아 씨 세대도 마찬가지인 듯해요.

Playboy: 소닉 유스나 너바나는 어떤 ‘정신’ 같기도 하죠.

Kiwan: 음악으로 다가오는 한편 정신적으로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헤비 메탈, 그 전엔 레드 제플린, 디스코도 있었고, 어릴 때 라디오에 디스코가 계속 나왔는데, 그 리듬을 괜히 내가 지우려 했던 것 같아요.

Playboy: 음악을 뻗속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의 장르를 거절해버린 거네요.

Kiwan: 디스코 판은 창피해서 길에 일부러 버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까운 판이 많죠. 핑크 플로이드나 레드 제플린이 있었지만 그건 좀 달랐어요. 세대적으로 어떤 음악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런 건 다 금지곡이었으니까. 만약 그때 섹스 피스톨스가 금지곡이 아니었다면, 바로 받아들였겠죠. 그 80년대 초반의 수용소 같은 학교를 다닐 텐데.

Playboy: 레드 제플린이나 핑크 플로이드가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느낌은 아니니까요.

Kiwan: 동경의 대상이죠. 오히려 그런 건 정부가 풀어놓은 거예요. “봐, 이거 동경해. 아니면 다 있어.” 대신 뒤집자는 식인 건 다 금지곡이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다음엔 뭘 해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세대예요. 책임의식도 없진 않고요. 인디 1세대, 1.5세대라고 하잖아요. “재는 계속 톡만 하는구나”보다는 “그래도 뭐가 하려고 하네?” 소리가 낫죠. 생존방식이기도 한 거고.

Playboy: 17년간 몸담은 3호선 버터플라이는 어떤 이유로 탈퇴했나요?

Kiwan: 밴드는 의견의 일치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멤버들한테 강요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고, 밴드는 정말 특수한 모임이에요. 일단 식구죠. 그 다음이 동료예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 파트너고, 그게 한꺼번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오해에서 오는 사건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현실적 결론이 난 거라고 해야 할까?

Playboy: 오래된 관계는 대부분 우발적인 일로 깨진다고들 하죠.

Kiwan: “오늘 나 갈게”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2016년엔 되게 힘들었어요. 다행히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이듬해 3호선 버터플라이 5집이 나왔죠. 나를 내려놓고 다시 배가 향해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속상한 맘도 들었지만, 그 밴드는 그 밴드대로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일 같아요. 앳싸에 에너지를 더 쏟아부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Playboy: 성기완은 충분히 혼자 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세 장의 솔로 음반을 내기도 했고. 하지만 다시 밴드를 시작했어요.

Kiwan: 평생 해본 일 중에 제일 재미있어요. 제가 작곡한 곡이 있다고 쳐요. 밴드 멤버들이 만지다 보면 이쪽으로 갈 거라 짐작한 곡이 저쪽으로 가요. 그걸 잘 놔두는 재미. 그렇게 나온 사운드는 그 사람들의 총합을 넘어서곤 해요.

Playboy: 항상 따라붙는 전위나 실험 같은 말은 어떤가요?

Kiwan: 얼마 전에 전위는 죽었다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전위는 아니고 실험이란 말은 여전히 쓰는데, 그거랑 언저리란 개념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경계에 있는 것? 저는 음악만 하는 것도, 시만 쓰는 것도 아니니까. 시인 황유원의 시집 해설을 제가 썼어요. 그 첫 문장이 ‘나는 국경에서 일한다’예요. 3호선 버터플라이 전국 투어 중에 기차에서 쓴 글이에요. 저는 진짜 글쟁이처럼 서재에서 책 짹 펼쳐놓고 글 써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국경에서 일하면요, 저쪽을 보잖아요? 다른 나라죠. 서울 시민이라면 국경은 멀고 주변엔 다 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국경에선 북한 사람이랑 “밥 먹었니?” 얘기할 수 있겠죠. 금지된 것이라도 거기선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국경에서 일하면 이쪽에선 금지된 걸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고.

Playboy: 음악을 할 때 국경 밖의 시를 보며 다르게 생각하고, 반대로 시의 편에서 음악을 실험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Kiwan: 그렇죠. 경계에서 일하면 아직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뜻이 확정되지 않은 소음이 나한테 뜻이 있는 소리일 수



“도, 미, 술은 명확한 소리잖아요. 하지만 도랑 도삽 사이에도 소리가 있고, 그런 걸 많이 생산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싶어요. 딱 자기가 보는 게 아니면 쓰레기라는 생각이 사회를 경직되게 만드는 거니까.”



있는 거죠. 그게 노이즈인 것 같아요.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도, 미, 솔은 명확한 소리잖아요. 하지만 도랑 도삽 사이에도 소리가 있고, 그런 걸 많이 생산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싶어요. 딱 자기가 보는 게 아니면 배제하고 쓰레기라는 식의 생각이 사회를 경직되게 만드는 거니까.

Playboy: 굉장한 자기 확신 없이는 어려운 일처럼 들려요.

Kiwan: 국경에서 일하면 돼요. 저쪽에 건너갔다 오기도 하고. 또 국경이라고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 사람끼리 맘이 통하는 것도 값진 일이에요.

Playboy: 2004년 박준홍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의 흐름 자체가 멸미한 흐름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Kiwan: 네. 그걸 방법으로 받쳐주는 게 컴퓨터고요. 문서 띄웠다, 음악 프로그램 열었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원고지에 글 쓰다 음악 만들고 싶으면 아예 자리를 옮겨야겠죠. 이런 환경일수록 외골수로 뭔가 하는 분들이 더 값질 수도 있긴 한데, 전 흐름을 따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Playboy: 과거엔 뮤지션 성기완과 시인 성기완이 있었다면, 최근엔 소리를 중심으로 한 곳으로 모인 인상이에요.

Kiwan: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소리에 관한 시를 많이 썼고, 3호선 할 때도 가사를 자주 썼고. 옛날엔 멀티플레이어란 식으로 생각했다면, 이젠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푸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엔 <노래는 허공에 거는 덧없는 주문>이란 책도 냈어요. 가사를 본격적으로 평론한 책이 없더라고요. 문학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서, 글로 쓴 시나 제대로 된 시라고 생각하는 데, 이젠 뒤집히는 중이에요. 제가 요새 강조하는 게 목소리. 텍스트의 시대에서 다시 목소리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이후 축적한 문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음 단계 문명으로 가는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예요.

Playboy: 문자가 유일한 저장매체였던 세월을 벗어나, 이젠 목소리를 순식간에 바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

Kiwan: 다시 구비문학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노래 관련 일을 하며 시를 놓지 않아 다행이다 싶어요. 예전엔 둘 중 하나만 할 걸 그랬나, 고민하기도 했거든요.

Playboy: 특히 한국어 사용 방식에 집중하는 듯 보여요. 일종의 사운드 아트라 불린 <ㄹ>은 물론이고, 앓바음반에서도 특정 구절은 그냥 ‘소리’로 들리죠. “막힌 곳을 뚫어보자, 뚫린 곳을 달려보자”라든가.

Kiwan: 아프리카 말도 그래요. 한글로 ‘하나가 되자’는 곡을 만들었더니 아미두가 “앙아벵켈레나”가 그 뜻이래요. 멋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Playboy: 이젠 가사 쓸 때 뜻보다 소리를 먼저 생각하나요?

Kiwan: 무대 보면 반응을 알거든요. 3호선 버터플라이 곡 중에 폴리에르의 희곡 <돈 주앙>의 대사를 옮겨 쓴 가사가 있어요. 라이브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캐치하기도 전에 노랫말이 다 지나가요. 하지만 티티, 카카! 같은 건 아무 뜻 없지만 관객들이 따라 하죠. 이 발견을 시에도 적용했고요. 뜻보다 사운드가 지나가는 굴곡? 산맥이, 인파가, 강의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그걸 산맥이라 확정 짓는 순간 재미없어져버리고, 사운드는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채 사람들한테 다가갔을 때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Playboy: 그렇다면 성기완의 시는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나요?

Kiwan: 세 번째 시집 <당신의 텍스트> 만들 때부터 그랬어요. 의미 없는 후렴구를 중간중간 넣고, 다른 얘기지만, 제가 86년도에 대학을 갔어요. 그랜 소리보다 의미가 먼저였거든요. 무슨 소리를 지껄이든 혁명을 해야 된다. 물론 그때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뒤집어야 되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지겨워졌어요. 탈피하고 싶었고, <ㄹ>은 아무 뜻도 없잖아요. 기호인데 단지

발음이 좋아서 시집 <ㄹ>을 낸 거고.

Playboy: 3호선 버터플라이의 가사를 쓰던 사람의 말이라기엔, 낙차가 꽤 크게 들려요. 물론 시를 통해 꾸준히 단서를 던지긴 했지만.

Kiwan: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음악평론이라든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남에 대해 쓰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걸 하는데도 설명하지 않으려 들면 안타까워요. 심지어 신비롭게 하는 걸 힙 터진다고 생각하고, 아티스트가 모든 걸 드러낼 의무는 없지만, 어느 순간 한 마디라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Playboy: 시와 곡과 글. 이 모든 걸 지속하는 원동력은 뭔가요?

Kiwan: 결핍과 애착? 결핍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널 좋아했어”라고 고백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좋아했다고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맘이 생겨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사운드를 계속 만들고 보여주는 거죠. “네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작은 대답이라도 듣기 위해. 그리고 애착은요, 내가 나를 어디에 붙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음악에 붙였어요. 근데 포스트잇인 거죠. 앓바 음반 발매라고 써 붙여놨는데, 그게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4월 28일 공연’을 붙여놔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거죠.

Playboy: 나를 음악에 붙였다면, 큰 뜻에서 시와 글도 음악에 포함되나요?

Kiwan: 글은 솔직히 큰 애착이 없어요. 시는 좀 달라요. 태도예요. 시를 읽으면서 배운 거죠. 얼마 전 동사무소를 갔는데, 어떤 직원이 자기는 인감 증명페는 게 너무 좋대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인감을 다 사진 찍어놓고 싶을 정도래요. 인감은 자기 존재의 증명인 데다 그 모양이 예뻐서 계속 보고 싶대요.

Playboy: 시인의 태도란 그렇게 뭔가 발견하는 사람인 건가요?

Kiwan: 그리고 깊이 빠져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시인이예요.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저는 계속 애착을 갖고 붙여나가고 싶어요. 포스트잇이 떨어지기 전에, 사운드는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붙여줘야 해요.

Playboy: 한 번 올린 사운드는 이론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아예 ‘제로’가 되는 건 아니라고.

Kiwan: 내가 한번 올린 파동이 사라지지 않고 아주 조그맣게 수렴돼서 영원히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건 사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손을 떠난 것?

Playboy: 애착과 결핍 안에서 끝내 이루고 싶은 게 있나요?

Kiwan: 하나는 했어요. 두 장짜리 LP 발매.

Playboy: 3호선 버터플라이 4집이요? 생각보다 소박한데요.

Kiwan: 저한테 엄청난 로망이었어요. 첫 번째로 들은 2LP 음반이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인데, 그게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가사를 보니 “We Don’t Need No Education”. 금지곡이 된 거예요. 더 멋있는 거죠. 그리고 비틀스의 <White Album>. 이걸 표지가 없잖아요. 두 장짜리 음반이란 이승에서의 공백하고 관련이 있는, 실체가 없는 엄청난 거구나, 했죠. 글로는 <무의식의 자서전>이란 걸 구상하고 있어요. 자서전을 쓰면 어떻게 쓸래요?

Playboy: 사진 위주 혹은 일대기 형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Kiwan: 근데 무의식의 자서전을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선 분명히 나를 넘어서 거예요. 그게 시인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다 비슷해지는 거죠.

Playboy: 모두의 욕망과 상상에 대한?

Kiwan: 그런 거죠. 의식의 자서전이라면 각자 한 권씩 써야 되지만, 무의식의 자서전은 인류가 한 권 만드는 거예요. 집단창작. 그 한 꼭짓점이란 느낌으로 써야죠. 첫 문장은 썼어요. “나는 40억 년 전에 토성의 띠의 입자였다.” ㉠

春畫

춘화

8명의 사진가가
전국을 누비며 찍은 어떤
봄의 야한 풍경.



강원도 양양

2012

곽기곤

문득 바다에 눈이 내리는 사진을 찍고 싶어졌다. 아내와 함께 무작정 떠났다. 봄에 눈을 만나러 간다니..., 4월에도 눈이 오는 강원 도라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낙산해수욕장. 눈과 바다가 만나는 장면은 몇 번을 봐도 드라마틱했다. 그러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우산을 쓰고 걷고 있는 걸 발견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꼭 집어 말하긴 힘들지만 어딘가 '야한' 느낌을 받는다.

낙산해수욕장은 매년 약 200만 명이 다녀가는 강원도 대표 해변이자 일출 명소다. 바닷가에서 차로 3분 거리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 의상대를 볼 수 있는 사찰인 낙산사가 있다. 양양에는 낙산해수욕장을 포함해 무려 9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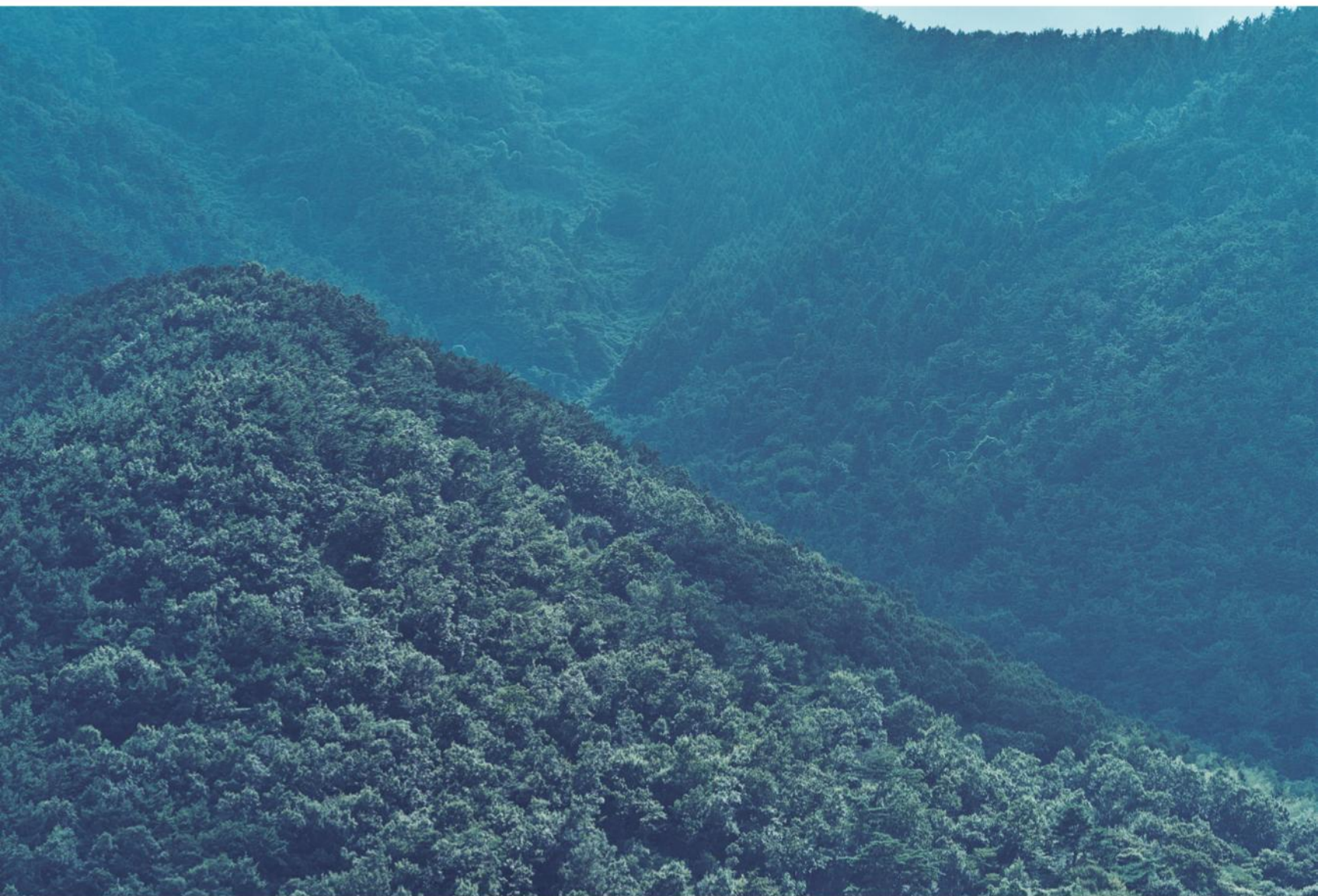
강원도 정선

2017

이윤호

친구 둘과 실없는 농담을 하며 정선 시골마을 여
기저기를 쏘다녔다. 오래된 문방구, 잡화점, 음반
가게... 풍경 사진도 찍을 겸 종종 이런 즉흥 여행
을 가곤 한다. 사진 속 장소는 정선 어딘가에서 우
리 일행이 묵은 숙소다. 명백히 친구들과의 여행
이었지만, 사진만 보면 어딘가 색시해 보인다는
게 재밌다.

강원도 정선군은 구성진 아라리 가락이 흐르는 문화의 고장이다.
화암8경 등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겨울이 지나가는 게 아쉽다면, 여름에도 서늘한 석회암 동굴인
화암동굴에 들어가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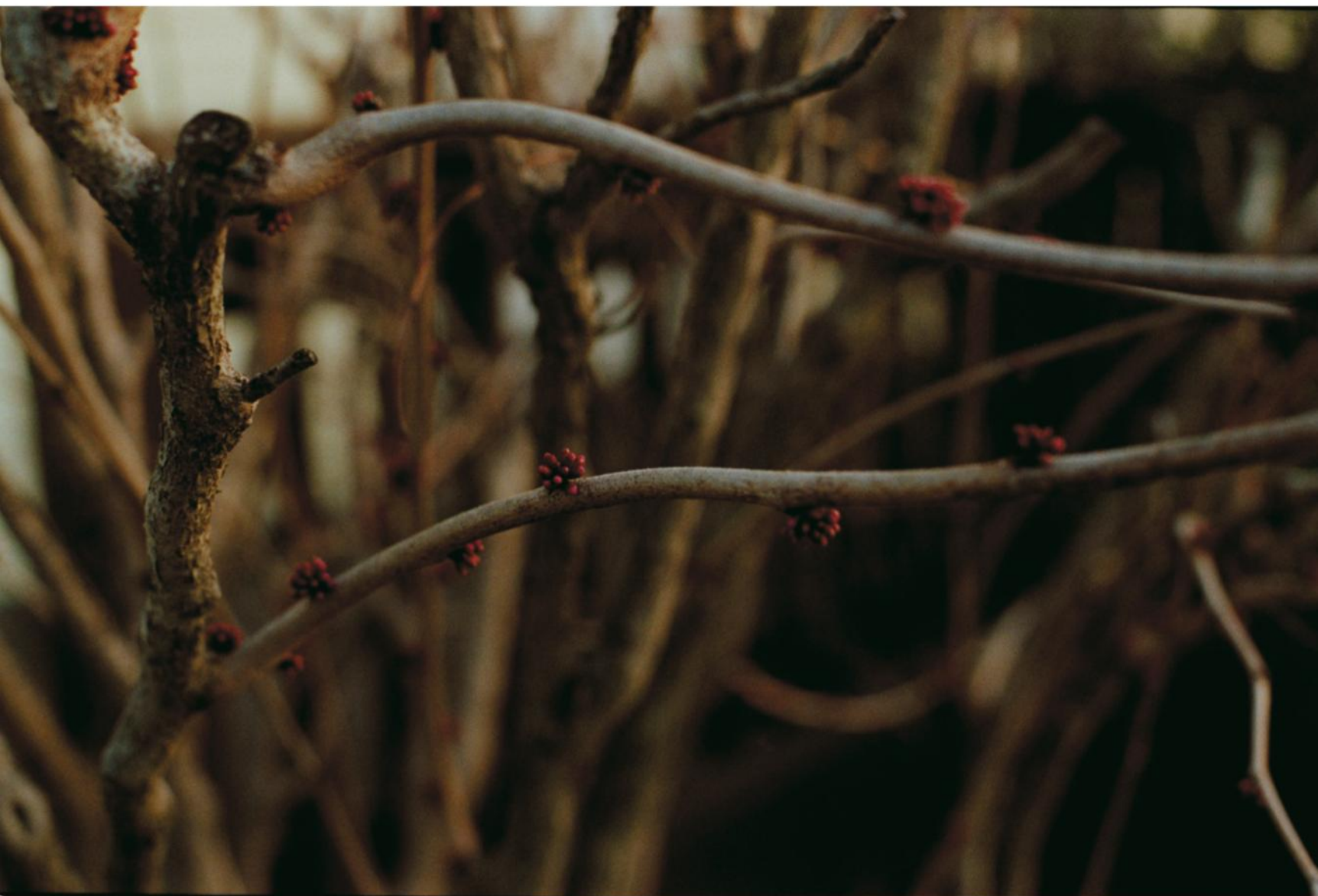
경상남도 거제

2017

표기식

경남 거제에서 영화 포스터 사진을 촬영하고 서울로 향하던 길이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한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산 능선이 이리저리 포개지고 엇갈리는 풍광이 눈앞에 펼쳐지던 와중에, 이 장면을 보고 차를 멈췄다. 안쪽에만 슬며시 드리워진 빛이 참 오묘하게 아름다웠던 이곳은 대봉산이다.

대봉산 생태숲은 지리산과 덕유산 가운데 위치해 있다. 산악지대에서 보기 드문 무성한 갈대 숲이 있는 이곳은, 봄에는 능선을 따라 7km가량 철쭉길이 펼쳐진다.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충청북도 음성

2012

박기숙

2008년 음성으로 이사한 부모님 댁에서 해 질 녘 봄을 맞은 정원을 찍었다. 이 나무는 박태기나무 혹은 밤티나무라고 부르는데, 자기만의 특이한 모양으로 맨살 같은 가지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부모님은 이 나무를 프랑스 귀부인이라 불렀다. 꽃이 더 무성해지면 귀티가 나고 우아하다고.

고딕 양식으로 지은 감곡 매곡성당은 1930년에 설립된 충북 최초의 성당이다. 본래 사제관으로 쓰이던 석조 건물 또한 매곡박물관으로 바뀌어 여전히 건재하다. 음성팔경 중 하나로 꼽히던 봉학산 골짜기엔 현재 봉학골 산림공원이 조성돼 있다. 음성의 진산인 가섭산을 타고 오르거나, 계곡에 발 담그고 쉬거나.





경상북도 경주

2017

장우철

반월성 벚꽃잎이 남천으로 떨어지고, 그 위를 소금쟁이가 지나가는 시간. 남산 곳곳에 숨듯이 서 있는 불상들에게서 눈매며 목덜미며 슬며시 내놓은 발 따위를 남몰래 보는 일. 경주의 봄밤은 얼마나 야하던지, “미소를 띄우며 너를 보낸 그 모습처럼”, 같은 통속의 멜로디마저 제 울음소리처럼 스며든다.

경주 남산 탐곡 마애불상군 일대는 통일신라시대 신인사라는 절이 있던 곳이다. 이곳의 불상과 보살상은 자세와 표정이 각기 다르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는 반월성은 800년간 신라 궁궐이 있던 터로, 초승달 모양으로 생겨반월성이란 이름이 붙었다. 올해 3월 31일부터 제2회 경주벚꽃축제가 열린다.

충청북도 단양

2016

LESS

지방엘 가면 이곳저곳 기웃대곤 한다. 시간 날 때 해두는 로케이션 헌팅이랄까. 소백산 아래 위치한 충북 단양의 구인사는 그러다 들른 곳이다. 기대나 계획 없이, 으레 하던 대로 들어간 지방의 작은 절.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번쩍였다. 신성하고 조용한 절간에 난입한, 커다랗고 번쩍이는 차량. 나는 카메라를 덥석 쥔 수밖에 없었다.

충북 단양에 위치한 구인사는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우리나라 최대 사찰 중 하나다. 소백산 자락 아래,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모양새로 자리한 이 절은 짧은 기간에 크게 발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옥순봉과 도담삼봉 등 단양팔경이 자리한 지역이기도 하다.





경상북도 울진

2016

신선헤

7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정표에 이끌려 당도한 대가실 해변에는 봄비가 내렸다. 어두워 볼 순 없지만 느낌으로나마 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셔터를 눌렀고, 검은 바위와 파도 그리고 눈인지 꽃인지 모를 봄비가 렌즈에 담겼다. 남성적이고 섹시한 찰나.

경북 울진 죽변항에 위치한 대가실 해변은 파도가 부딪혀 만드는 흰 포말이 하트를 닮았다고 해서 '하트 해변'이라 부른다. 죽변 등대와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죽변시장이 가까워 구경하기 좋다. 대가실 해변은 드라마 <폭풍 속으로>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제주시 조천읍

2016

하시시박

남편과 아들 그리고 나. 우리 가족의 첫 여행이었다. 제주시 조천읍을 선택한 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숙소가 그곳에 있다는 점과 숙소에서 바다까지 걸어서 산책할 수 있다는 점이 맘에 들어서였다. 제주는 사계절 언제나 좋지만, 봄의 제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관광객이 덜 붐빈다는 것. 봄을 맞은 제주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 왔다.

조천읍엔 마음 누일 곳이 많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함덕
해수욕장부터 제주 교래 자연휴양림, 돌하르방공원 그리고 크고
작은 오름까지. 바다와 산을 배경 삼아 휴식을 취하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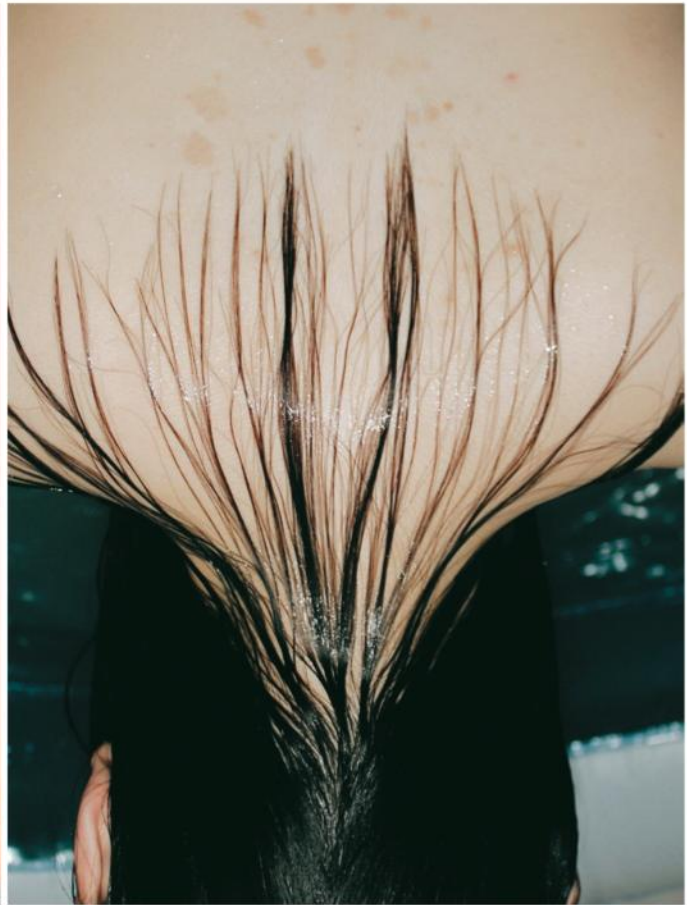
FOREVER YOUNG

사진가 정예진이
거침없이 가까이에서 본 젊음.

photography
by
jung yejin



승기, 다정, 2015



숲, 2014

“관용은 젊음을 유혹할 수 없어요.”

—
에밀 시오랑

정예진(Yenata)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다 4년 전 친구의 카메라를 중고로 구입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진가의 길로 들어섰다.
특별한 계획 없이 친구들과 놀며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을 찍는다. 개인전 <SKIN>, <정예진(소연)>을 열었으며 단체전 <각색>과 <Salon>에 참여했다.

PLAYBOY

LOVES:

새로운 계절처럼
신선한 얼굴과 자유로운 영혼.
3월의 〈플레이보이〉가
사랑하는
여자들이다.



가운처럼 연출한 데님 원피스와
하이웨이스트 데님 쇼츠는 모두 GUESS,
첼시 부츠는 RACHEL COX 제품

PLAYMATE - US PLAYMATE - PLAYGIRL - PLAYGIFT

Da Yang

3월의 플레이메이트
김다영은
봄의 새싹처럼 강인하고 싱그럽다.

photography
by
yoon sukmu





브래지어는 COS,
아웃 포켓 장식의
부츠컷 데님 팬츠는 GUESS 제품

데님 재킷과 쇼츠는 모두 GUESS,
브래지어는 CALVIN KLEIN 제품



데님 쇼츠는 GUESS,
첼시 부츠는 RACHEL COX 제품







브래지와 팬티는 모두 CALVIN KLEIN,
절개 디테일이 있는 데님 팬츠는 GUESS 제품



로고 티셔츠와 의자에 걸친 스트레이트 컷 데님 팬츠는 모두 GUESS,
팬티는 CALVIN KLEIN 제품





생일 5월 21일
별자리 쌍둥이자리
혈액형 A형

DA YOUNG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사진 찍기를 좋아해 가족과 함께 전국 각지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난다. 대학에서 무용과를 졸업한 뒤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 연기를 한 것도, 카메라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게 좋아서였던 것 같다.

어제보다 단단한 사람 기획사를 나와서는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했고, 이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다 지금은 대학 시절 전공을 살려 요가와 발레, 필라테스 강사이자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으려던 것도 있었고, 내 커리어에 대한 욕심도 컸던 것 같다. 다양한 경험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치유와 활력의 요가 요가를 처음 접한 건 대학생 때였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고, 치유받는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어느덧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요가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실제로 회원들이 나와 운동을 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 그지없다. 요가 강사로서 살아가는 일상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내게 관심을 갖고 운동 관련 문의를 하는 분들을 접하면, 요가 강사를 하며 느끼는 보람만큼이나 살아가는 활력이 된다.

두려움 없이 몇 년 전 홍콩 매니지먼트에서 모델 계약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영어도 서툰데 혼자 가서 미팅을 하고 왔다.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혼자 미팅을 한다는 게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에,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칭찬해줬다. 플레이메이트도 내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이상형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가 많은 편이다. 남자친구가 있을 땐 다른 남자 사람 친구와는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이상형을 꼽으라면... 성격 좋고 배려심 많고, 유머러스한 남자!

슈퍼문 아침부터 저녁까지 레슨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룹 레슨은 스케줄을 취소하기 어려운 데다 책임감이 강해 무슨 일이 있어도 대타 없이 진행하려는 스타일이라 더 그렇다. 일만 하며 지내는 요즘이지만, 그나마 하늘을 보며 위안을 찾는다. 하늘에 구름이 예쁘게 떠 있는 날이면 항상 사진을 찍어 돌 정도. 얼마 전에는 새벽 레슨을 위해 나가는 길에 하늘에 뜬 슈퍼문과 맞닥뜨렸다. 커다랗게 부푼 달이 머리 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다가와 정말 환상적이었다. 🌕



@by_juha

티셔츠와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의
슬림핏 데님 팬츠는 모두 GUESS 제품



ON THE WING

천사의 얼굴을 한
3월의 플레이메이트 케일라 가빈.
태평양 북서쪽에서 온 그녀는
자유를 향한
의지로 충만하다.

photography
by
dove shore













KAYLA GARVIN

그녀의 왼쪽 손목에서 작은 깃털 문신을 발견했다. 자유를 상징한다는 그 문신이다. “삶이 무겁거나 지루해지는 걸 막는다고도 하더군요.” 케일라 가빈이 웃으며 말한다. 유목민을 방불케 한 유년 시절, 그로 인한 끊임없는 변화는 그녀에게 포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유연함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천사의 미소를 가진 여성. 플레이메이트로 꿈기에 이만한 조건이 또 있을까?

케일라는 미국 오리건주의 유진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히피처럼 정착하지 못하는 가족 덕에 미국 곳곳을 떠돌았다. “일곱 살 땐 라스베이거스에서 살았어요. 그 후엔 콜로라도로 이사했구요. 모두들 제게 묻더군요. 가족 중에 군인이 있다고,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집사처럼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이런 유년 시절 덕에, 케일라는 어디에 가든 가장 먼저 적응하는 사람이 됐다. “저는 어떤 일에도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진로를 정할 때에도 특유의 유연함을 발휘했다. “언제나 예술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에도 심리학 전공에 부전공으로 미술을 선택하고 그걸로 대학원을 가려 했구요.” 모델 일도 그렇다. 계획에도 없던 일이지만 그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전엔 모델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케일라는 붓을 놓지 않았다. “최근엔 추상예술을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형태를 그릴 필요가 없어 자유롭죠. 그림을 그릴 때면 모든 걸 쏟아낼 수 있어요.”

케일라의 천사 같은 외모, 그리고 가식 없는 따스함은 겉과 속이 항상 다르지만은 않다는 걸 증명한다. 긍정적인 기운으로 주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여자. 바로 그녀를 두고 하는 얘기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 즐거움이 함께했으면 해요.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그녀. 하지만 남자 앞에서는 다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가져야 해요. 그러려면 자신이 원하는 걸 알아야겠죠.” 케일라의 자유로운 영혼은 누구 또는 어떤 것에도 구속될 수 없다. “하루 두세 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에서 좀 벗어나려고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거든요.” 그 순간을 함께하는 행운아는 누구일까?

표현의 욕구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사진은 제 삶의 일부고요. 최근엔 풍경 사진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고 싶어요. 사진으로 접한 뉴질랜드는 너무 아름다워 저도 그곳에서 놀라운 사진들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 자신감은 타고나는 거지만 습득되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자아와 싸우죠. 나이가 들면서 제 내·외면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른 사람이 날 두고 월가월부하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항상 진실해야 해요. **터질 듯한 에너지** 가장 좋아하는 술? 테킬

라요. 테킬라 한 잔 주시면 춤추는 걸 그만두죠. 춤은 이따가 노래방에서 출 테니까! **아이 운동** 체육관에 가는 것을 싫어해요. 운동을 하고 싶으면,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 같은 운동을 즐겨요. 제겐 특별한 운동요법이 없어요. 그냥 몸의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하죠. **유효 기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열심히 살지 않고 이후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지?’ 스스로 되뇌면서,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확실한 순간들을 만들고 싶어요. 가끔 재미없는 일상에 매몰된다면 속도를 줄이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생은 짧아요. 긴장을 풀고 즐겨야 해요. **이상형**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 나를 그렇게 대하는 남자를 만난다면 내 인생은 전환점을 맞게 되겠죠. **SNS 중독** 가끔 SNS에 올리기 위해 어딘가를 가고, 무언가를 하는 이들을 봐요. 아름다운 풍경, 놀라운 순간을 앞에 두고 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들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물론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 줄도 알아야 해요. 📷

Kayla Garvin



태어난 곳 미국 오리건주 유진
사는 곳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kaylajeangarvin



DAY GLOW

그림 같은
웨스트코스트의
황금빛 오후는
모델 재스민 비아누에바의
반짝임으로
완벽하게 완성된다.

photography
by
henrik purienne











IN FULL BLOSSOM



활짝 핀 봄꽃처럼
만개한 그녀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더하는 법.

“Beauty is not caused. It is.”

아름다움엔 이유가 없다. 그저 존재할 뿐.

—
에밀리 디킨슨

각각의 꽃이 노래하듯 리듬감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반지와 펜던트는 18K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아코야 진주 소재의 '찬트' 컬렉션.
불꽃놀이처럼 흩어지는 설유화의 모습을 표현한 반지와 펜던트는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의 '스피리아' 컬렉션으로 모두 **TASAKI** 제품

PLAYBOY

REMINDS:

아트, 소셜, 고전 인터뷰 등 3월,
〈플레이보이〉가 문득 리마인드해주는 것들.

Untitled, 1969, 243.8 x 10.2 x 25.4cm, Pink fluorescent light © Lotte Museum

ARTIST IN RESIDENCE - CLASSIC - MUSIC - CARTOON - FICTION - INTERVIEW CLASSIC - PLAYBACK

ART OF LIGHT DAN FLAVIN

아티스트 댄 플래빈의 빛으로 만든 공간은
감각이 제거되고 원근법마저 파괴된 새로운 유희를 경험하게 한다.



(좌) Untitled(to Shirley and Jason), 1969, Pink and blue fluorescent light, 243.8×10.2×25.4cm
(우) Untitled(to You, Heiner, with admiration and affection), 1973, Fluorescent light and metal fixtures, 121.9×121.9 x 7.6cm each of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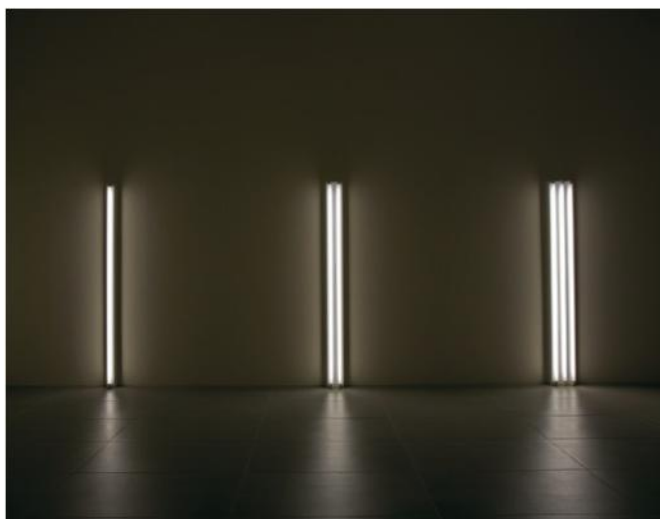
전시실로 들어서면 노란 빛을 내뿜으며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는 형광등 하나를 만날 수 있다. 제목은 '1963년 5월 25일의 사선(콘스탄틴 브랑쿠시에게)'. 댄 플래빈이 처음으로 형광등 하나만을 사용한 작품이다. 그는 공장에서 규격화된 산업 소재인 형광등을 하나의 오브제이자 회화적 색채 요소로 사용해 작품을 완성한다. '1963년 5월 25일의 사선(콘스탄틴 브랑쿠시에게)'처럼 완성한 날짜가 곧 작품 이름이 되고 자신에게 영감을 준 아티스트와 주변 사람의 이름을 제목에 넣어 관람객에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둔다. 부제인 브랑쿠시는 현대 추상조각의 거장으로, 플래빈은 그의 사선 형태의 조각인 '끝없는 기둥'과 자신의 작품을 연관시키고자 했다. 꼭짓점이 잘려 무한히 뻗어나가는 피라미드 형태의 브랑쿠시의 작품처럼 '1963년 5월 26일의 사선(콘스탄틴 브랑쿠시에게)'도 빛을 통해 무한히 확장된다. 플래빈이 미니멀리즘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독특한 작품성 외에도 장소가 그 작품에 담는 공간이 아니라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공간에 형광등을 설치하고 관람객이 공간에 머물면서 직접 경험하도록 만든 것. 작품 '유명론의 셋(윌리엄 오캄에게)'을 보면 알 수 있다. 각각 한 개, 두 개, 세 개의 형광 튜브로 이뤄진 세 그룹의 형광등이 수직 방향으로 공간을 분할하며 서 있다. 여섯 개의 형광등은 밝은 빛을 발하며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점진적

로 늘어나는 배열은 더 많은 형광등이 공간 전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명기구를 주의 깊고 면밀하게 구성한다면 전시장의 공간을 분리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2.4m 길이의 형광등을 모퉁이에 수직으로 설치하면 모서리 공간을 물리적인 구조와 빛, 이중으로 생긴 그림자 등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빛으로 인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에서의 경험은 생성되고 소멸하는 환영을 통해 황홀한 순간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빛으로 만든 거대한 통로 '무제(당신, 하이너에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큰 규모의 작품으로 1.2m의 형광등을 60cm 간격으로 배열해 반대쪽 끝까지 초록빛 구조물이 공간을 가로지른다. 초록색에 대한 관심은 그의 첫 장벽 작품인 '녹색을 가로지르는 녹색(녹색을 사용하지 않았던 피트 몬드리안에게)'에서 알 수 있다. 피트 몬드리안의 이름을 부제에 인용한 것은 녹색을 사용하지 않았던 몬드리안이 빠트린 녹색을 전면에서 사용하면서 위트를 더한 것. 다수의 녹색 형광등이 만들어내는 거대 장벽은 실제 공간과 시각적 경험의 간극을 생성하며 관람객을 압도한다. "나는 구조와 현상을 넘어서서 나의 아이콘에 비움의 마법을 투영시키고자 했다. 이것이 나의 예술이다." 그런 그의 예술적 궤적을 보여주는 초기작 14점이 국내 최초로 전시된다.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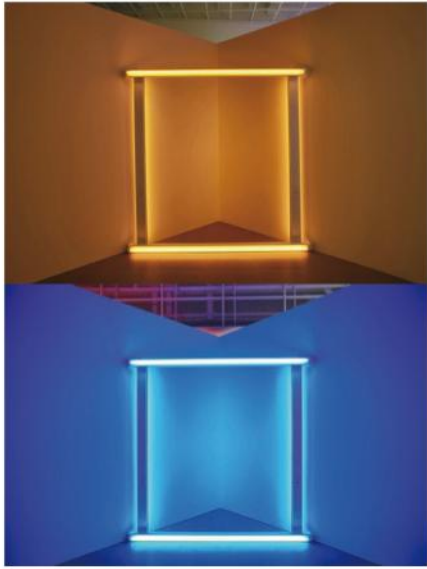
The Diagonal of May 25, 1963(to Constantin Brancusi), 1963, Fluorescent light and metal fixtures, 180,3×177,8×1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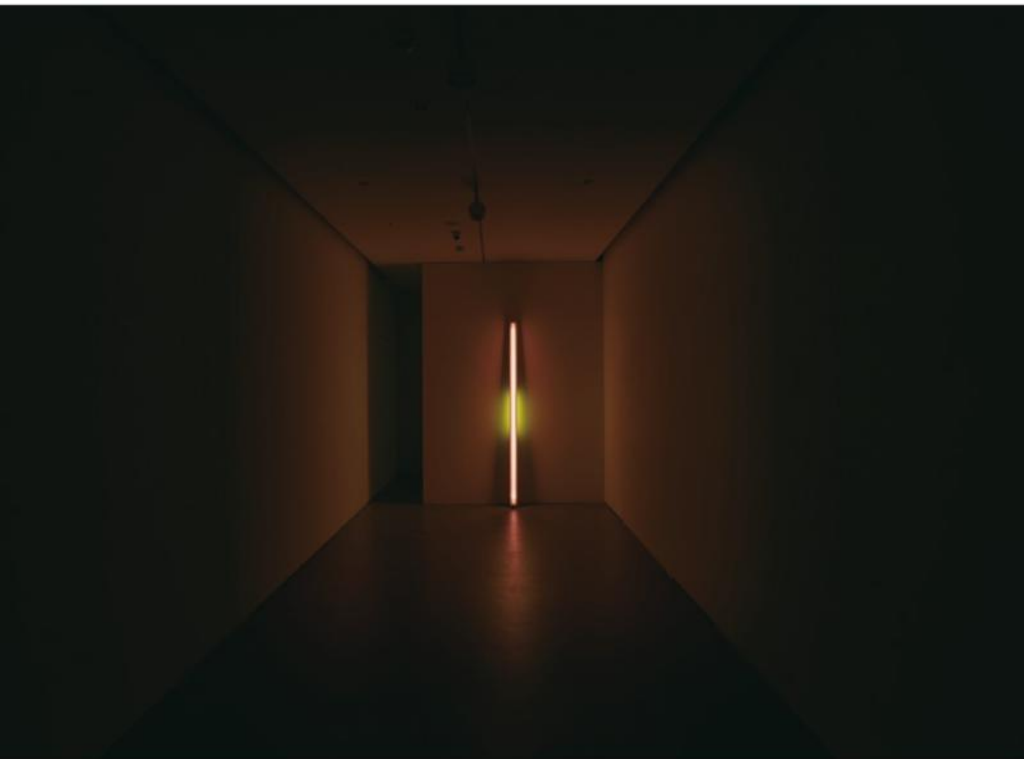
The Nominal Three(to William of Ockham), 1963, Fluorescent light and metal fixtures
243,8×10,2×12,7cm_243,8×20,3×12,7cm_243,8×30,5×1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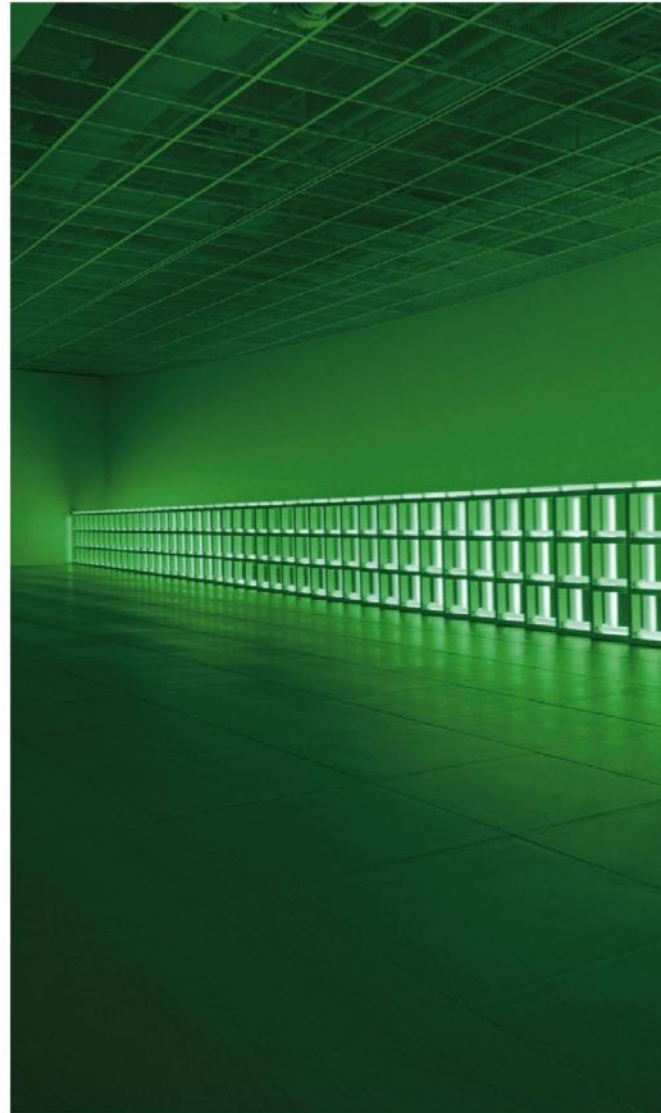
(자) Untitled(to Shirley and Jason), 1969, Pink and blue fluorescent light, 243,8×10,2×25,4cm
(우) Untitled, 1969, Pink and yellow fluorescent light, 243,8×10,2×25,4cm



(위) Untitled(to Christina and Bruno), 1966~71, Yellow fluorescent light, 243.8×243.8×12.7cm
 (아래) Untitled(to Karin and Walther), 1966~71, Blue fluorescent light, 243.8×243.8×12.7cm



Untitled, 1969, Pink and yellow fluorescent light, 243.8×10.2×2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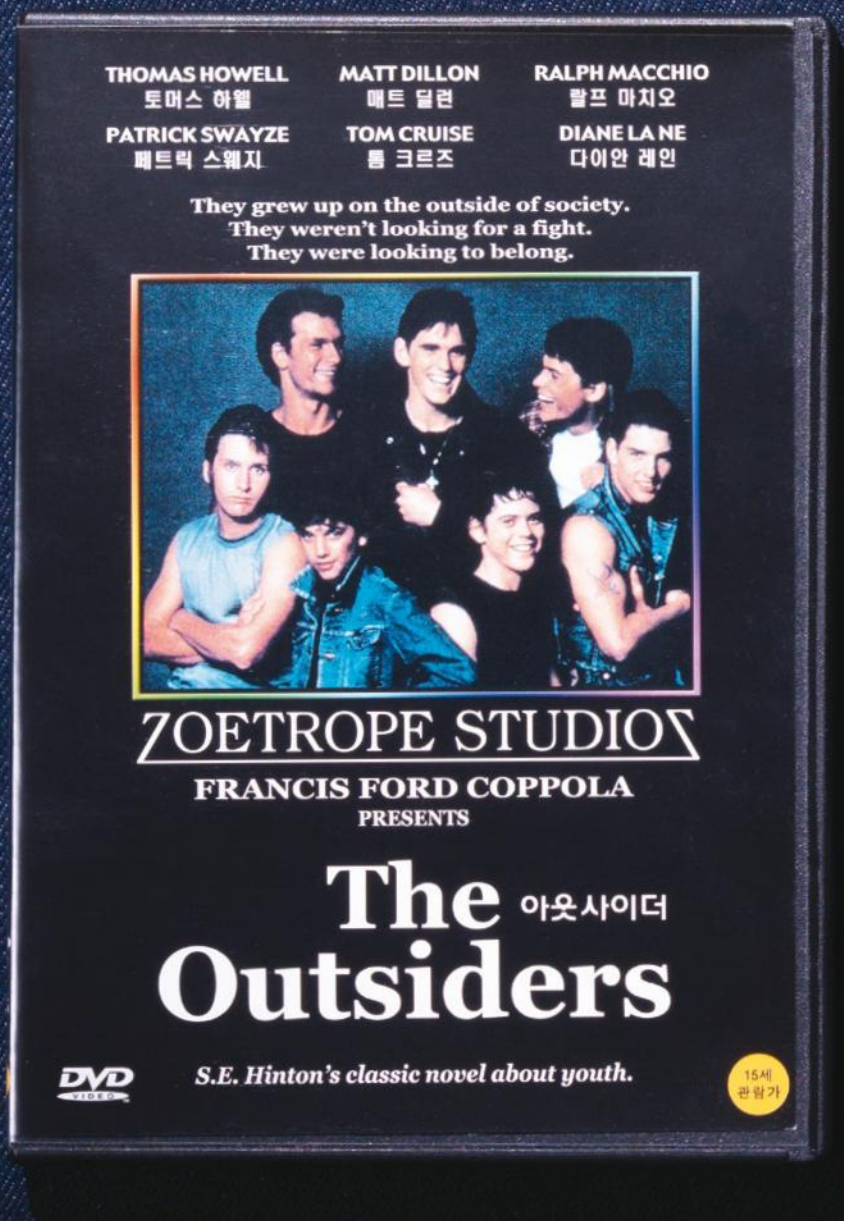


댄 플래빈은 1933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1963년, 형광등을 소재로 한 '1963년 5월 25일의 사진(콘스탄틴 브랑쿠시에게)'이라는 작품을 선보인 후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개척했다. 특히 산업사회를 대변하는 기성품 형광등을 예술에 도입해 미니멀리즘 문맥에 새로운 형식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뮤지엄에서 개관전으로 댄 플래빈의 기획전 <댄 플래빈, 위대한 빛>을 개최한다.
뉴욕 디아 아트 파운데이션(Dia Art Foundation)에서 전시된 1963년부터 1974년까지의 작품을 똑같이 재현했다.
📅 1월 26일~4월 8일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 타워 7층 ☎ 1544-7744



Untitled(to You, Heiner, with admiration and affection), 1973, Fluorescent light and metal fixtures, 121.9×121.9×7.6cm each of 58



FRANCIS FORD
COPPOLA
THE OUTSIDER

청춘은 막연한
 내일이 아닌 불안한
 오늘을 산다.



몽글한 <열정(세인트 엘모의 열정)>과 분방한 <조찬 클럽> 이전, 좀 더 거칠고 어두운 <아웃사이더>가 있었다. 팝의 절정의 시대에 밴 모리슨과 폴 뉴먼, 마거릿 미첼을 권하는 조숙함이라 말할 수도 있다. 막 14살이 된, 문학과 영화를 좋아하는 주인공 포니보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친구와 도피 행각을 벌인다. 그는 산속에서 눈부신 석양을 보며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Nothing Gold Can Stay'를 친구에게 들려준다. "금빛인 것은 오래 머물 수 없다"며, 황금빛이 분명한 찰나의 청춘처럼, <아웃사이더>의 모든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지고 또한 갑작스럽다. 처음 본 상대와 사랑에 빠졌다가 갑자기 싸움이 터지고, 칼을 꺼내 들고, 사람을 찌르고, 불이 나고, 거기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영웅이 됐다가, 돈을 훔치고, 총에 맞아 죽는다. 포니보이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멋지게 읊은 뒤 이렇게 말한다. "외우기는 했지만 뜻은 잘 몰라." 과연 젊음이란 그런 것일 터. 삶의 의미는커녕 내일도 모르는 날들. 도시 북부 빈민가에서 싸구려 맥주를 마시며 머리에 잔뜩 기름칠을 하고 청바지 뒷주머니에 나이프를

꽂고 다니는 '그리저'의 삶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항상 죽고 싶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죽고 싶지 않아. 내가 해보지 못한 일과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 누구의 보호도 없어 그저 서로 뽕뽕 뭉칠 뿐인 '그리저'들은 구질구질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소동을 피우다 다치기 일쑤다. 하지만 놀랍게도 혹은 당연하게도, 도피 행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포니보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내일보다 그렇게 애증의 오늘을 살 뿐. 조연을 맡은 근육질 천방지축 톱 크루즈, 극중 다부진 리더 패트릭 스웨이지, 그리고 당시 가장 빛나던 별이 차지독한 아웃사이더 맷 딜런의 진짜 청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대부>와 <지옥의 묵시록>의 1970년대를 보낸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는 이 1983년작 영화에서 포니보이의 단짝, 겁쟁이지만 누구보다 용감한 소년 조니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한다. "황금은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것 같아. 모든 게 새롭잖아. 금빛으로 남아, 포니보이. 금빛으로 남아." ❶

AMBIENT INTELLIGENCE

앰비언트는 암전하기만 한
음악이 아니다.

앰비언트는 장르처럼 통용되는 말이지만, 그 자체로 어떤 분위기를 뜻한다는 점에서 느슨하다. 하우스, 힙합, 록처럼 음악적 특징과 큰 연관이 없어 별도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장르명과 달리, 이름만으로 알아챌 수 있다. 형용사로 ‘주변의’ 혹은 (음악과 조명 등이) ‘잔잔한’이라는 사전적 의미, 박자, 화성, 가사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앰비언트’한 음악이라면 대개 그렇게 불린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장르라기보다는 스타일에 가깝다. 음반 데이터베이스 및 상거래 웹사이트이자 집단 지성의 장인 디스콕스(Discogs) 역시 앰비언트를 장르가 아닌 스타일로 구분한다. 올바르게 볼 순 없지만 범종교적 의미가 희석된 뉴에이지와 혼용되기도 하며, 비슷한 용례로 실험적 음악을 포괄하는 익스페리멘탈과도 좋은 친구다.

1978년 〈Ambient 1: Music For Airport〉를 시작으로, 네 장의 앰비언트 연작을 내놓은 브라이언 이노는 〈Ambient 1: Music For Airport〉의 라이너 노트에 선언하듯 이렇게 썼다. “앰비언트는 고요함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유도하기 위한 음악입니다.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여러 층위의 청각적 흥미가 공존해야 하며, 그것이 흥미로운 만큼이나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흡사 고급 무공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그만큼 앰비언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 또한 없을 것이다.

즉, 앰비언트를 듣는다는 것은 주변 소리와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주변 소리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게 결국 BGM 아니냐 물을 수 있겠으나, 앰비언트는 거기에 그치는 것을 거부한다. 브라이언 이노의 말대로 청각적 흥미가 존재하며, 음악에 젖어 꿈꾸듯 망상하거나 잠에 빠지기보다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음악. 또한 BGM으로 취급한다면 시끄럽게 떠들든 탄짓을 하든 상관없겠으나, 결국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고요함을 유지(무시)한다는 것은 곧 음악에 집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 셈이다. 내 주변을 ‘서라운드’하는 유일한 소리로서 말이다. 실제로 디스콕스에서 ‘Surrounding’이란 키워드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압도적으로 앰비언트와 익스페리멘탈 음반의 노출 건수가 많

다. 총 1천1백여 장의 음반 중, 약 400개에 가까운 개수.

신호탄을 끊은 브라이언 이노를 비롯한 앰비언트 음악가들은 이 음악을 섬으로 대하기보다 전진하는 맘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또한 앰비언트는 전자음악가가 꼭 한 번씩 도달하는 기착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앰비언트의 키 플레이어로 존경받는 음악가들 중에서도 록 밴드 록시 뮤직 출신의 브라이언 이노는 물론이고 YMO의 호소노 하루오미와 사카모토 류이치, 일렉트로 펄크 뮤지션으로 경력을 시작한 프랑스의 월리 바다루(Wally Badarou)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그들이 젊을 때는 신나는 굿판을 벌이다 휴식을 취하고자 앰비언트로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고요함 속에 자신을 섬세하고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음악으로서의 쾌감 때문이 아닐까. 앰비언트 하우스, 앰비언트 테크노 등 앰비언트의 유전자를 품은 댄스 음악이 ‘IDM’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또한 좋은 증거다. IDM은 ‘인텔리전트 댄스 뮤직’의 줄임말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감상적 이기보다 이성적 접근이 더욱 어울리는 음악.

새삼스럽게 탄생한 지 꼭 40년이 된 이 음악,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에릭 사티나 존 케이지 또는 일군의 독일 크라우트록 뮤지션들로부터 원류를 찾으면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앰비언트를 오늘의 관점으로 다시 듣는다. 눈에 띄는 상업적 성과가 드물기에 되레 새롭게 들리기도 한다. 제 식대로 앰비언트를 받아들인 신에 음악가들도 가세했다. 죽었다 살아난 장르에 꼭 달라붙는 ‘리바이벌’의 거대한 조류는 아니지만, 꼭 앰비언트가 그렇게 들리듯, 이 음악은 고요했을 뿐 전진을 멈춘 적이 없다.

브라이언 이노는 2013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앰비언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악기인 신시사이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역사적 백그라운드 없는 악기를 연주할 때, 당신은 근본적으로 사운드를 설계하게 됩니다. 새 악기를 디자인하는 거죠. 신시사이저는 끊임없는 미완성의 악기입니다.” 앰비언트 또한 그렇다. ②

AMBIENT 3

DAY OF RADIANCE

LARAAJI

PRODUCED BY BRIAN ENO



1

1 VITO RICCI <I was Crossing a Bridge>, 2015

'프라이빗 프레스'를 비롯해 어디서 이런 걸 찾았나 싶은 음악가들의 음악을 발굴하고 다시 편집해 재발매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레이블 뮤직 프롬 메모리는 특히나 실험적 앰비언트에 관해서라면 독보적이다. 그 이름은 비토 리치의 1985년작 <Music From Memory>에서 따온 것이기도 한데, 비토 리치는 "80년대 뉴욕 언더그라운드 신의 소리 없는 영웅(Unsung Hero)"으로 불리며 영화, 연극, 댄스 등을 가리지 않고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던 도시의 음악 및 공연계에서 은근히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음악 장르는 물론이고 그 것이 쓰이는 형태마저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그의 압도적 전성기가 궁금하다면, **Music From Memory**

2 SUZANNE KRAFT <Talk From Home>, 2015

LA 출신으로 현재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수잔 크래프트의 데뷔 음반이다. 언뜻 프랑스 출생의 독일인이거나 북유럽 여성 이름 같은 수잔 크래프트는 본명이 아닌데, 그의 차가운 듯 서정적인 음악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Talk From Home>은 그가 유럽으로 본격적인 유통되기 전 어느 겨울에 녹음한 음반이다. 햇살은 여전하지만 밤이면 공기가 부쩍 쌀쌀한 캘리포니아의 겨울이 담긴 게 아닌가 짐작해볼 수 있다. 멜로디 애즈 트루스는 뮤직 프롬 메모리와 함께 동시대 앰비언트의 물결을 이끄는 레이블로, 수잔 크래프트는 이후에도 동 레이블에서 1장의 솔로 LP를 비롯한 여러 음반을 발표한다. **Melody As Truth**

3 HIROSHI YOSHIMURA <Pier & Loft>, 2017

일본은 YMO 이래 전자음악에 관해서라면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다. '재퍼니즈 인베이션'이라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시 일본의 전자음악가들이 각광받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다. 직업적 의미가 아닌 장인으로서의 사운드 디자이너란 말이 합당한 요시무라 히로시는 1983년, 이 음반에 수록된 7곡을 세이부 백화점 국제 패션쇼를 위한 음악으로 만들었다. 당시엔 카세트테이프로만 발매됐고, 지난해 처음 LP로 제작됐다. 음반 이름처럼, 그리고 실제 패션쇼가 열린 부둣가의 어느 로프트에서 바다를 내다보는 것 같은 넓고 깊은 소리가 담겼다. **17853 Records**

4 FINIS AFRICAE <El Secreto De Las 12 (The Secret of 12 O'Clock)>, 2013

앰비언트라고 꼭 전자적인 필요는 없다. 필드 레코딩과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조합해, '자연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 또한 충분히 앰비언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소 '에스닉'한 성격을 띠다 말할 수도, 피니스 아프리카는 브라질 밴드로, 멤버부터 악기까지 그들이 조합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을 찾아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듯한 음악을 만든다. 'The Wizard', 'Magical Ceremony in the Pond' 등 곡 제목부터 판타지물에 나오는 대자연을 그리는 듯하다. 영화나 소설이나 가사가 달린 음악으로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2013년 컴필레이션 형태로 재발매됐다. **EM Records**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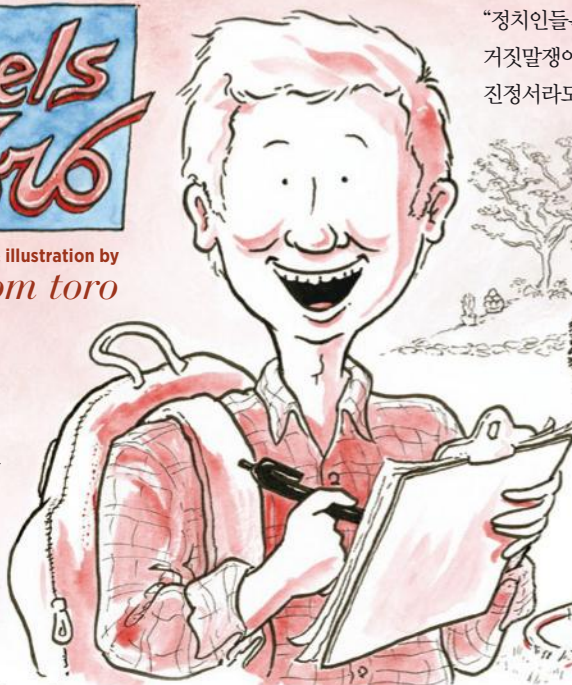


3

Travels with Toro

story & illustration by tom toro

샌프란시스코에서
캔자스시티로 이사 온 건
최근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새로운 이웃과
친해질 겸, 유권자 등록을
받으러 다니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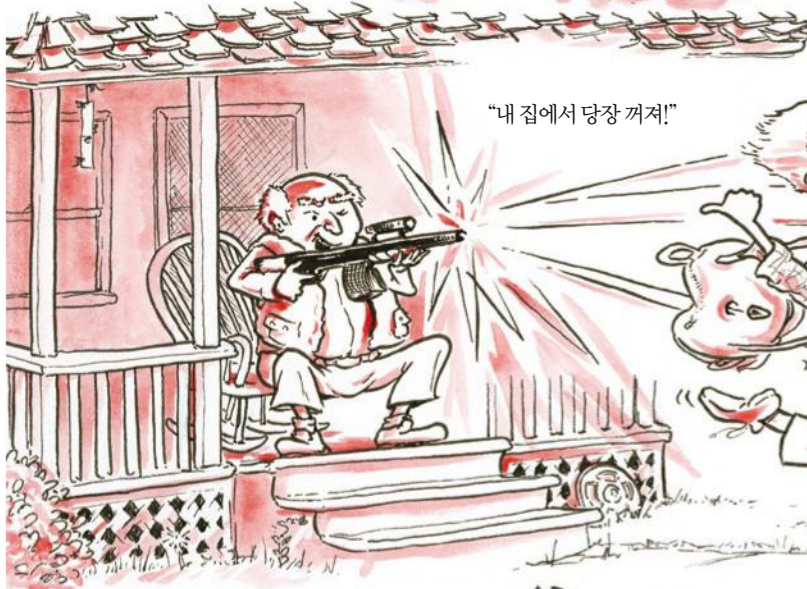


“정치인들은 대부분 남자야. 그들은 대체로
거짓말쟁이지. 거짓말을 그만하겠다는
진정서라도 가져왔니?”

“엄마! 아빠가
전화 받으래요!”

“엄마 없다고 해.”

재닛은 실용주의가 아직 건재
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어떤 날엔 아저씨와 칼과 총기 방침
에 대한 아주 박진감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진짜 문제는 이거야, 진보적인
선거운동원에는 어떤 바비큐
소스가 어울리는가?”

“모든 사람의 몸에
전자칩을 박아버려야 해.
그럼 등록이 훨씬
쉬워질 테니까.”

“난 네가 파시스트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

“난 오바마에게 투표를
했어. 하지만 그건 탬파에서
살 때였지. 이것 좀 잠깐
잡아줄래? 내가 주민등록을
옮겼나 모르겠네. 이것도 좀
들고 있어봐. 어쨌든,
난 인터넷으로 등록하겠어.
넌 귀찮게 하긴 싫거든.”

그러는 동안, 이본느는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잔디와 함께 여러 이슈를
제게 날리기도 했지요.

“뭐라고?”

트로이 아저씨는 고장 난 제도
를 고치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이려고 다니다니,
너 참 용감하구나...”

그리고 수잔은 대안적 사실에 대해 몇 가지
를 알려줬습니다.

**ALTERNATIVE
FACT**

선택 가능한 사실

FACT

사실



점심을 먹으며 샌프란시스코의 친구들이 나의 새로운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했어요.



“캔자스가 콜로라도에서 얼마나 멀지? 콜로라도는 대마초가 완전 합법인데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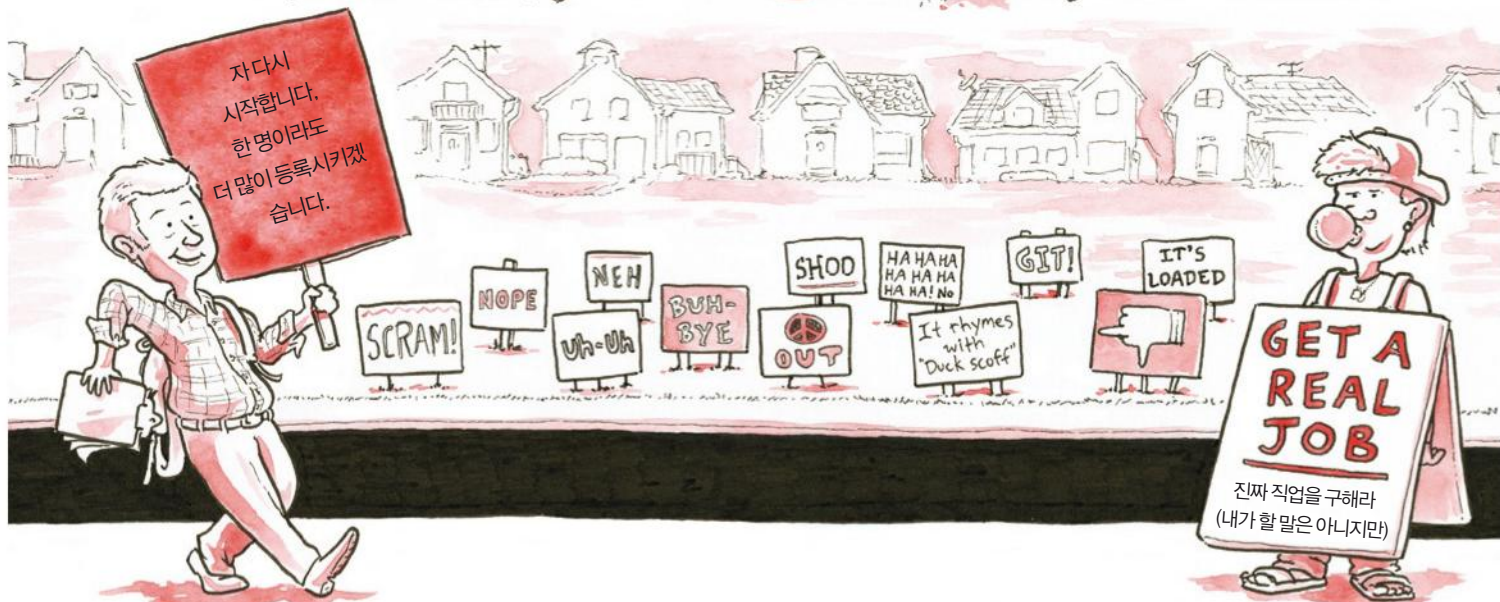
“야, 내가 계속 말했잖아.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정이 있냐 없냐라고. 우리는 사람들을 배려하지만 그들은 아닌 거야.”



“유권자 등록은 시작일 뿐이야.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받아야 할 것들이 쌓여 있다고. 무공해 에너지, 여성인권, 비핵화, 불법이민자들의 사면, 난민 구제, 검찰의 독립, 의료보험 국영화, 무상 육아정책, 유아원 의무교육, 유기농 급식, 상아수입금지, 동성결혼합법화, 안락사합법화, 대마합법화...”



“잠깐만, 너 이사 왔니?”





Supercops

메레디스는
늘 탁월한
학생이었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진.

by *liesl schillinger*

그해 봄, 트레버와 닐은 AP(Advance Placement, 미국의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 전에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고급 과정) 화학 교실에서 메레디스를 몰래 훑쳐보던 중 그녀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다리를 꼬지 않는다는 걸 알아내고 쾌재를 불렀다. 그들은 오늘 메레디스가 어떤 속옷을 입고 올 것인지를 놓고 날마다 내기를 걸었다. 속옷의 무늬-꽃, 꿀벌, 사탕, 또는 땀땀-는 폴로셔츠와 머리에 묶은 가느다란 리본 색깔에 맞춰 로테이션을 돌았다. 그녀가 강박적으로 '깔맞춤'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그들은 그 사실이 무척 재미있었다. 그걸 알아낸 이후로는 속옷 예측이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어떤 팬티를 입을지 짐작하는 시합을 벌여 승패를 일일이 기록했고, 주말이 되면 그 주의 승패를 합산해 점수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1리터짜리 스무디를 사줬다.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메레디스가 대학 교수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그들은 그걸 놓고서도 내기를 벌였다. 트레버는 그 소문이 100퍼센트 사실일 거라고 말했지만, 닐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내기에서 이기려면 진지하게 수사관 노릇을 해야만 했다. 팬티를 추적할 때는 교실 앞으로 나가 실험실 벽장에서 분젠 버너나 비커를 꺼내 책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레디스의 의자 아래를 힐끔 훑쳐보기만 하면 됐다. 그녀는 다리를 꼬지 않고 조심성 없이 앉아서 자신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교과서에 몰입했다. 때로 뒤로 몸을 젖히고는 엘라와 수다를 떨었는데, 그럴 때면 팬티가 더 잘 보였다. 그들은 그녀가 교수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 더 정교한 전략을 짜내야만 했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야간투시경과 몇 가지 장비를 구입하며 작전용 차트들을 작성한 그들은 자신들을 '슈퍼캡스'라고 불렀다.

메레디스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최근 벌이기 시작한 '과외활동'을 그녀의 고등학교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세상에서 하는 행동이라 생각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그 얘기를 대놓고 물어보더라도-학교에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너드(Nerd)거나 신심 깊은 침례교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메레디스는 다리를 째 벌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어도 청순녀 코스프레를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할 터였다-그녀는 그걸 부인할 터였다.

브라운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캔자스를 떠날 시기를 몇 달 남기고 있을 때, 메레디스-착한 여학생이자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책벌레, 남동생과 여동생을 끔찍이 챙기는 장녀,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해주는 딸, 노래를 잘 부르고 퍼프 페이스리트를 잘 만드는 재원-는 동부로 떠나기에 앞서 섹스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아이비리그 신입생들을 진저리가 나는 딱분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촌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섹스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을 사람들이 대학교 입학지원서에 덧붙이고는 하는 선택 과목-사진 촬영이나 테니스, 병원 자원봉사-에 다가가는 것처럼 접근했다. 대학 캠퍼스에 발을 디디기 전에 그것에 통달하고 싶었다. 진정한 달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메레디스는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육체적 통과의례를 지도해줄 수 있는 지도교수를 만나 안도

했다. 그 사람은 그녀의 부모님이 강의하는 대학에 재직하는 젊은 교수였다. 여기서 ‘젊다’는 건 교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였다.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는데, 18살인 그녀가 보기에 그건 몹시도, 불가사의하게도 많은 나이였다. 그녀는 그를 톨룸(멕시코에 있는 마야 유적지)에서 알게 됐다. 봄방학 때 그녀의 가족과 대학에 재직하는 다른 두 가족이 떠난 마야인들이 만든 신전으로 가는 여행에 그가 동행하면서였다. 그녀는 어른들이 때를 지어 코바(피라미드 신전이 있는 마야 유적지)를 돌아다닐 때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린 얘기를, 그가 어떤 여자와 결별한 후 딱히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린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다. 톨룸의 바닷가에서, 그는 그녀 가족 옆에 자기 타월을 깔고는 그녀에게 소설가 뒤라스와 단테에 대해 떠들 어졌고, 그린 코코넛을 그녀에게 사주면서 빨대를 꽂아줬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를 교수님이라 부르지 말고 마크라고 부르라고 했다. 여행 마지막 밤, 메레디스는 다른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 슬그머니 빌라를 빠져나가 바닷가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모래밭에서, 야자수들 가운데서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심하게 타 있었는데, 그의 까칠한 수염에 쓸린 턱에서 피가 났다. 까칠한 수염이라니! 그 전까지는, 면도할 필요가 거의 없는 토론 클럽 남자친구들과 애무를 할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몸을 달아오르게 만든 손장난을 칠 때에는 그런 걸 접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 그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았다. 메레디스는 그걸 그의 장점으로 결론 내렸다. 스승님을 찾아다닐 때는 경험이 있는 분을 원하는 법이다.

캔자스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강의 코스에 입문한 그녀는 새로 배우는 과목이 만만찮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그녀는 청바지 위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놀렸던 몇몇 순간들을 제외하면, 그 전까지는 허리 아래 몸을 쓰는 일은 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로라 잉걸스 와일더(소설 <초원의 집>으로 유명한 미국 작가)와 제인 오스틴, 찰스 디킨스, 레프 톨스토이에게서 받아들이던 도덕규범 너머로 교수님과 함께 한 단계씩 나아가갈 때마다 내심 움찔하면서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혐오감을 극복하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고집스럽게 계속 배웠다. 그녀는 알만조(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남편)가 청혼하기 전까지는 키스조차 하지 않았던 로라나 순진한 키티(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캐릭터)가 되는 것을 중단했다. 로드아일랜드(브라운 대학의 소재지)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캔자스에서 스스로 타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벽찬 과제를 수행하는 와중에, 그녀는 가끔씩 교수님이 기거하는 작은 방갈로의 욕실에 걸린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려 갔다.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걸 확인해보려는 양. 그녀는 거울에 비친 주근깨난 얼굴을 지긋이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진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피부가 얼룩덜룩해져 보인다고 믿었다. 설령 피부에 변화가 있더라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데도 말이다. 메레디스는 마크를 수퍼마켓에 보내, 자신이 쓸 아이보리 비누를 사오라고 시켰다. 그 비누의 강력한 세척력이 독특한 성분을 피부에서, 그녀에게서 뽑아낼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아이보리를 쓰니까 피부가 너무 건조해졌다. 그래서 그녀는 피소뎀(저자극성 비누 브랜드)으로 돌아갔다.

이런 교육이 그해 4월과 5월에 간간히 밤중에 진행됐다. 그 두 달간 메레디스는 부모님께 차를 몰고 친구 엘라와 소피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고는 했는데, 그건 어떤 때는 참말이고 어떤 때는 거짓말이었다. 교수님을 그리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아마도 1주일에 2~3번. 저녁을 먹은 다음이나 합창대 연습을 마친 후, 학보사 미팅을 끝낸 후에 그의 거처로 차를 몰고 가면, 그의 거실에는 와인과 음반들—그녀가 잘 모르는 뮤지션인 레온 레드본(Leon Redbone)이나 패티 스미스 같은 사람들의 음반을 틀었다—이 놓여 있곤 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은 자연스레 침실로 이동했는데, 침실에 간 그녀는 장성한 남자의 몸이 움직이는 법에 매료되는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의 감정에 굴복했다. 그에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얼마 있으면 준비를 마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자정이 되기 전에, 술기운이 약간 오른 그녀는 집으로 폭스바겐을 몰면서 캠퍼스 내부의 변화가를 따라 놓인 텅 빈 원형 교통로를 빙빙 돈 후, 꽃그림이 그려진 침대보고 고양이와 독서용 램프가 있는 그녀의 조용한 침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랐다. 복도 아래쪽에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학교로, 1교시 화학 수업으로 차를 몰아 책상에 앉았다.

평소처럼 학기말 시험이 치러졌고 파티와 합창 공연, 구기 시합, 학예회가 열렸다. 5월의 어느 주말에 그녀와 엘라는 치킨 볼로방(닭고기를 넣어 만

든 파이)을 200개나 만드는 것으로 메레디스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garden 파티를 주최하는 걸 거들었다. 하얀 앞치마를 걸치니 익살극에 나오는 시녀가 된 기분이었다. 그 자리에는 마크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시시덕했다. 메레디스는 시치미 토크하고 그와 찰박한 대화를 예의 바르게 나눴다. 그런 후, 당연히, 졸업무도회가 열렸다. 그녀와 엘라와 소피는 트리플 데이트를 했다. 엘라와 메레디스는 반 친구들과, 2학년인 소피는 졸업반 남자친구 조엘과 함께 왔다. 부모님들이 모두 메레디스의 집에 모였다. 그들은 텍시도 차림인 남자애들과 장밋빛과 흰색이 섞인 가운을 입은 공주님들의 사진을 찍었다. 메레디스는 교수를 졸업무도회에 초대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와 소피는 그들 각자가 세운 위업을 은밀히 상의했었다. 두 사람은 각자 그들이 탐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한 노트들을 비교하고 있었다. 소피는 조엘을 사랑했지만, 아직 갈 데까지 간 사이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마도 조금만 있으면 그런 사이가 될 것이다.

메레디스는 두 사람이 사권 지 50일째 기념일을 첫 경험의 날로 정했다. 졸업식이 거행되기 전까지는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자신이 졸업식 전에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집계돼서 ‘미국 고등학교 여학생’의 순결함이라는 미덕을 집계해 보여주는 통계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졸업한 여자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그해야 하는 책임도 짊어지는 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렇지 않다면 페미니즘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경구피임약이 세상에 돌아다니지가 벌써 수십 년이었다. 요즘 커플들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했다. 젊은 여성은 남자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섹스를 즐길 수 있어야 옳다. 그녀를 막아서는 유일한 장애물은 그녀 자신이 느끼는 거리감이었다. 6월 6일에, 마크와 함께 최종적인 장애물을 극복한 후, 그녀는 마침내 “해넌” 것에, 무지라는 버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에 안도했다. 그 직후,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안감 때문에, 순결을 잃은 것이 명예를 잃은 것 같다는 기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이제는 과거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육체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었다.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괴로웠던 건, 그를 사랑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다.

D-데이 전, 메레디스는 거사를 치르고 나면, 소설이나 실생활에서 읽고 봤던 모든 지식과 그녀가 남자에게 몸을 허락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심오하고 압도적이며 열정적인 사랑과 결부되는 세상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목표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에 대해서는 깜빡하고 말았다. 지금이야 그걸 기억해낸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목표에만 정신이 쏠리는 바람에 자신의 마음을 폭력적으로 다뤘던 것일까? 자신이 교수의 열정과 확신에 진정을 다해 부응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존경했다. 자신보다 무척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간택됐다는 사실에 우쭐했었다. 배움을 생각하며 애가 났었다. 그런데 사랑은? 없었다. 수치심을 느낀 그녀는 교수와 마주치는 걸 심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달인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 테크닉들을 갈고 닦는 노력을 계속

플레이를 중단했다. 발끈한 그녀는 의아한 기색으로 물었다. “당신을 갖고 논다니요? 나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녀가 첫 경험을 한 지 딱 2주밖에 안 됐을 때였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환상에 의지해서 욕정을 해소했고, 그 일은 그녀에게 한으로 남았다. 마크는 짜증 섞이고 당황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그 즉시 이해했다. 섹스는 그 자체로는 섹스가 아니라는 걸 그의 눈에서 읽었다. 섹스에는 마음이 중요했다. 그 깨달음을 얻는데에는 뭔가 격정적인 것이, 특별히 어론스러운 것이 필요했다. 그게 그녀가 얻은 교훈의 일부였다. 우리가 결국에, 실제로, 정말로 섹스를 하고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할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무엇을, 어쩌면 그 보다는 덜한 무엇을, 어쩌면 생판 다른 무엇을 갈망할 수도 있다는 것.

가끔씩 메레디스는 저녁이 되면 거뭇거뭇 자란 수염으로 그녀의 턱을 쓰라리게 만드는 장성한 교수

나? 게다가, 그녀는 그 애들에게는 딱히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메레디스는 교수에게 마음이 끌렸다. 적어도 그녀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그에게. 그의 욕정은 자기장처럼 그녀를 잡아당겼다. 거기에는 진짜 감정이 눈곱만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스스로 혼잣말을 할 때조차 그랬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할 때,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프로슈토 에 메로네” 같은 연습된 시나리오 대사를 계속 읊어대며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영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그런 것처럼 또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하는 섹스의 수준이 향상되는 동안, 거기에 익숙해지는 동안, 그걸 즐기 시작한 동안,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그걸 아껴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캔

메레디스는 교수에게 마음이 끌렸다. 적어도 그녀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그에게. 그의 욕정은 자기장처럼 그녀를 잡아당겼다. 거기에는 진짜 감정이 눈곱만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스스로 혼잣말을 할 때조차 그랬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할 때,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하는 동안에조차 그랬다. 그녀는 교수 역시도 자신을 심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프로슈토 에 메로네...” 그가 아직 채 성숙하지 못한 그녀의 허리 아래로 손을 황급히 계속 내리면서 그녀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그걸 험하고 멜론으로 만든 요리라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욕감을 느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매트리스 위에서 몸을 뒹굴며 등을 돌렸다. 그녀가 10대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걸까? 그는 그녀보다 세상을 10년도 더 넘게 산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깔보아만 욕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걸까? 왜지? 그는 그들이 톨룸의 해변에서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했었다는 걸, 캠퍼스에서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영화를 같이 봤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한 걸까? 그는 어쩌서 그런 식으로 그녀를 속이려 애쓴 걸까? 다른 때, 그들이 실제로 그 짓을 하던 중에 그가 통명스럽게 말했었다. “날 갖고 놀지는 마.” 그녀는 즉시

대신 그녀를 가르쳐줄 사람으로 캔자스 고등학교 동창들 중 한 명-특히 〈스타 트렉〉 등장인물의 성대모사를 하고 몬티 파이튼(영국의 코미디언 그룹)의 대사를 인용하는 트레버나 닐 같은-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사내아이들은 입이 쏘고, 마크는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알았다. 교수는 그녀의 부모님과 같은 대학에서 일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런 관계는 남부끄러운 일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메레디스는 고등학교 친구들과하고 땡구는 건 외설적인 짓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 아이들은 그녀와 엘라와 함께 국가장학금 최종 심사대상자 명단에 오른 아이들이었다. 그 애들과는 함께 우노(카드놀이의 일종)와 보글(글자가 새겨진 주사위로 하는 단어 게임)을 하며 놀았고, 신입생 환영회에서 춤을 췄으며, 집안끼리 아는 사이였다. 심지어 닐은 미식가 클럽을 이끌고 있다. 그들이 예로스에 대해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었겠

자스로 이사 오기 전까지 살았던 일리노이에서 진정으로 처음 사랑했던 사내아이하고 그걸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같은 토론 클럽에 속해 있던, 토론을 할 때면 똑똑하면서도 잔인한 모습을 보였던 남자친구. 그녀는 그 아이하고 무슨 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으면서도 정작 그 짓을 하는 건 딱 잘라 거절했었다. 그녀는 14살 때 그 아이와 갈라선 후 1년 넘게 눈물을 흘렸다. 그 아이와 그 일을 했었다면 마크를 겪을 필요는 전혀 없었을 텐데.

그녀는 트레버의 차가 교수의 방갈로 밖에서 방갈로 진입로로 들어서며 내는 자갈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트레버와 닐이 침실 옆에 있는 텀북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그녀는 슈퍼캡스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차가 방향을 꺾어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가는 동안, 트레버는 헤드라이트 밝기를 낮췄고 닐은 조수석에 웅크리고 앉아 엉덩이를 바닥 매트 위에서 빙빙 돌리고 있었다. 불빛을 끈 차는 골목과 교수

의 집 사이에 있는 제멋대로 자란 향나무들 앞을 지난 후, 진입로 끄트머리에서 멈춰 섰다. 트레버는 차를 주차시키고는 글러브 박스에서 쌍안경을 꺼냈다.

“확인 완료,” 그가 콧소리로 속삭였다.

“뭐가 보이는데?” 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잠깐만 있어봐. 초점 맞추는 시간은 쥐야 할 거 아냐.”

현관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거실 창문에 쳐진 블라인드들이 완전히 내려가 있지는 않았다. 넓게 퍼진 은빛 불빛이 비좁은 감시창을 만들어냈다. 날은 흐릿하게 깜빡거리는 그림자들을 볼 수 있었다. 트레버가 스무디 컵을 움켜잡고는 길게 들이켰다.

“빨리 좀 해!” 날이 말했다. “밤새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트레버는 스무디를 내려놓고 쌍안경을 눈에 갖다댔다.

다.

“잠깐, 남자가 일어서고 있어.” 트레버가 말했다.

“잘 적어. 남자가 와인 1병을 가져오고 있어.”

“개가 술을 마시는 거야? 메레디스 술 안 마시잖아, 그렇지?”

“마시는 게 분명해. 잔이 2개 있어.”

“2개뿐이야? 스리섬 아닌 거 확실해?”

“멍청하기는. 노트에 적어. 와인, 잔 2개. 오케이,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있어.”

“지금은 가습 보이냐?”

“그게... 기다려. 둘이 일어나고 있어. 침실로 가는 중이야.”

“대박!” 날은 환성을 질렀다. 그는 <스타 트렉>의 캐릭터인 스팍의 목소리로 내뱉었다. “침대, 침대.”

“좀 닥쳐!”

“다음에는 야간투시경 가져와야겠다.”

“집 안에는 볼 켜져 있거든?”

러낼 수 있게.”

“저것들이 대낮에도 할 거라고 생각하냐?”

“재한테 시간을 줘보자고.”

“트레버!” 날이 갑자기 멘봉에 빠져 말했다. “9시 40분이야! 나는 오후 10시가 통금 시간이란 말이야. 우리, 내일 다시 와야 할 것 같다.”

트레버는 쌍안경을 글러브 박스에 집어넣고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다트를 후진시켰다.

졸업식 전후로 지금까지 몇 주간, 트레버와 날은 조심스럽게 메레디스를 미행해왔다. 학교와 그녀의 집 사이를, 그녀의 집과 교수의 거처 사이를, 그리고 메레디스가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곳들인 엘라나 소피의 집과 피자가게와 캠퍼스 도서관 사이의 모든 곳을. 그녀의 부모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분명했다. 그들은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온 게 틀림없었다. 트레버와 날은 그들보다 더 잘 알았다. 메레디스는 못된 짓을 하느라 바빴

메레디스는 사람들 눈에 그들이 케케묵은 캐리커처처럼 비칠 거라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성적인 미숙함을 해결해줄 멋들어진 해법을 도출해낸 용감하고 명석한 현대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냥 나이 많은 남자의 유혹에 넘어간 순진한 젊은 여성일 뿐이었다. 그날 밤, 방갈로로 돌아온 그녀는 마크와 결별했다.

“안에서 뭐하고 있냐?” 날이 물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쌍안경을 거꾸로 들었잖아, 이 멍청한 놈아.”

“시끄러워, 어두워서 그런 거야, 임마.” 트레버는 쌍안경을 반대로 돌렸다. “둘은 소파에 있어. 메레디스 어깨가 보이고... 브라는 안 하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날이 황급히 수첩에 뭔가를 썼다. 과자 봉지를 열고 과자를 한 움큼 움켜쥐었다.

“가슴도 보여?”

“아니. 남자가 창문에 등을 돌리고 있어. 그렇지만 2루까지 진루한 건 확실해.”

날이 심술궂은 환성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면 볼기를 찹찹찰찰 때리고, 입으로 하겠구나!”

30분 전, 트레버와 날은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나오는 메레디스의 폭스바겐을 미행했다. 미행은 그녀가 교수의 거처 뒤에 있는 골목으로 차를 몰 때 까지 계속 됐다. 그런 후 그들은 편의점에 들러 스무디와 과자를 샀다. 차 안에는 콘 시럽 냄새와 멕시코 음식 특유의 양념 냄새, 소금 냄새가 진동했

다.

“침실은 깜깜하거든.”

“그런 집 반대쪽이잖아.” 트레버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그럼 차에서 내려서 돌아가보자.”

“그러다 저 사람들이 문소리를 들으면 어쩌려고?”

“경기도느라 바빠서 못 들을 거야!”

“우리, 그러다 체포되는 수가 있어.”

날이 어둠 속에서 트레버를 노려봤다. “슈퍼캡이라는 자식이 소심하게 굴기는....”

“오늘 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야. 가는 편이 낫겠어.”

“약한 모습 보이지 마.” 날은 툴툴거렸다. “골목으로 후진해. 걸어서 가보는 거야.”

멀리 떨어진 어둠 속에서 사이렌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다 차츰 사라졌다.

“너무 위험해,” 트레버가 말했다. “다음번에는 일찍 오자. 쌍안경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을 때 말이야. 정원 쪽은 가위도 가져오고, 누구한테 들기라도 하면 정월일 하는 사람들이라고 돌

고, 슈퍼캡스는 그 못된 짓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있었다.

한동안, 그들은 몇 가지 의문을 품었었다. 첫 주에, 하교하는 메레디스를 조심스레 미행한 그들의 주행기록계에는 144킬로미터가 쌓였지만, 성과는 하나도 없었다. 한번은 엘라의 집을 지나갈 때 잔디밭에 있던 엘라의 어머니가 그들을 보고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들은 수사를 포기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메레디스와 엘라와 함께 보글 게임을 했다.

그런데 이튿날, 통금시간 직전에 날의 어머니가 슈퍼에 다녀오라며 그를 심부름 보냈다. 계산을 하고 나오던 그는 메레디스가 출입문으로 들어와 매장 뒤쪽으로 걸음을 서두르는 걸 봤다. 그녀에게는 통금 시간이 없는 게 확실했다. 그리고 그녀가 처방약을 집어 드는 걸 지켜봤다. 그는 탐처럼 쌓인 시리얼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볼 수가 없었다. 전속력으로 차로 돌아온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폭스바겐을 간신히 따라

잡고는 교수의 집 쪽으로 차를 모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가 이 늦은 시간에 약국에서 집어 든 건 무엇이였을까? 먹는 피임약? 아님, 여성용 콘돔? 슈퍼캡스는 알아낼 것이다. 메레디스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닐은 트레버한테 이 사실을 알려 주고 싶어서 좀이 쑤셨다.

7월 초, 메레디스의 아버지는 그녀가 침실에 놔두고 떠난 조심성 없는 편지를 발견하고는 불장난에 대해 알게 됐다. 그 무렵, 그녀는 남자에게 과소평가 받으며 통제를 당했다는 걸 억울해하면서 그 장난을 이미 끝낸 상태였다. 교수는 그녀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캔자스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페페 르 퓨(Pepe Le Pew,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스킵 크 캐릭터)의 안방처럼 보이는 곳으로, 벨벳 커튼이 쳐 있고 비단을 씌운 로코코 양식의 긴 안락의자가 있었다. 그곳이 둘의 관계가 끝난 곳이었다. 그들이 조화로 만든 화관과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로 장식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주문한 달팽이 요리를 기다리며 두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할 때, 메레디스는 사람들 눈에 그들이 케케묵은 캐리커처처럼 비칠 거라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성적인 미국함을 해결해줄 멋들어진 해법을 도출해낸 용감하고 명석한 현대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냥 나이 많은 남자의 유혹에 넘어간 순진한 젊은 여성일 뿐이었다. 그날 밤, 방갈로로 돌아온 그녀는 마크와 결별했다. 그러고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로, 그녀의 10대 시절로 돌아갔다. 직후에 그녀는 엘라를 애플우드나 멕시코 술집에 두어 번 데려가 저녁을 먹었다.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두 사람의 식비를 치렀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같이 먹는 저녁 값을 지불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당신의 저녁 값을 내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냐.' 그녀는 그런 짓을 끝마쳤다는 것에, 교훈을 얻었다는 것에, 교수가 떠났다는 것에 마음을 놓았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남긴 편지를 발견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메레디스가 어머니를 통해 들은 얘기였다. 강하고 젊음으며 자애로운 데다 아이들에 대한 보호심이 각별한 아버지, 메레디스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던 바로 그분 말이다. 어머니는 말했다. 그녀가 저지른 짓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남부끄러운 편지를 남들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 남겨둘 수 있는 거니?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니? 혹시라도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봤으면 어쩌려고? 메레디스는 화한 때문에 흐느꼈다. 그녀가 경솔하게 구는 바람에 아버지가 마음 아파했다는 게 괴로웠다. 그녀는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실험을 벌일 때, 그녀는 마크가 그녀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적이 없었다. 그들의 관계가 들끓날 경우 마크가 곤경에 처할 위험에 대해서만 막연하게 염려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살면서 곤경에 처해본 적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곤경을 겪는 상상은커녕 심지어 그게 무슨 의미일지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반항아가 아니었다. 자신이 교수와 하고 있는 짓을 반항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여전히 정상 궤도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양심과 야심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걸 부모님께 입증할 방법을 몰랐다. 메레디스는 상황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심각했던 적이 없었다고, 어쨌든 그건 분명히 끝났다고 부모님께 담담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건 사랑에 깊이 빠졌다고, 브라운에 가는 대신 캔자스에 남아 그 교수와 결혼할 거라고, 오랫동안 상상했던 밝은 미래에서 벗어날 게 분명하다고 추측했다.

교수는 메레디스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님 때문에 집에 전화를 걸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이 괴로워하는 모습에 트라우마가 생긴 그녀도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 교수는 잘난 체로 가득하고 읽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장황한 편지를 그녀에게 보냈다. 그가 터트리는 분노에 그녀는 얼떨떨했다. 어느 편지에서, 그는 “깊은 구렁텅이에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 네가 세팔자전거를 몰고 가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행간에서 분명 분노한 기색이 엿보였다. 그녀는 그 편지들을 무시했다. 하지만 편지가 계속 날아오자 결국 한 줄짜리 편지로 대응했다. “이렇게 뒷북을 쳐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괜히 그러는 걸까? 메레디스는 그가 진실한 감정을 품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과연 그녀를 자신이 데리고 노는 18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본 적이 있었을까? 어쩌면, 혹시나 그녀가 놓치고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을까?

이해하지 못한 건 슈퍼캡스도 마찬가지였다. 닐과 트레버는 7월 말에 그녀의 집을 들렀다. 그녀와 엘라, 소피는 옥상에서 콜라를 마시고 캣 스트리브스를 들으며 선댄을 하고 있었다. 사내아이들은 사다리를 올라가 여자아이들에게 합류했다.

“너, 돌아온 것 같구나.” 트레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내아이들의 작전을 전혀 모르는 메레디스가 당혹해하며 물었다. “나는 아무 데도 간 적이 없어.”

“얼레리 폴레리.” 닐이 깔깔거렸다.

“닐, 하나도 안 웃기거든.” 메레디스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들 모두를 위한 콜라와 과자를 가지러 사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그즈음, 그녀는 엘라나 소피에게 교수 얘기를 하는 걸 중단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상태였다. 소피는 조엘 얘기를 많이 했다 (이제 그들은 동침하고 있었고, 조엘은 대학에 진학했으며, 그녀는 이듬해 그와 합류할 예정이었다). 엘라와 메레디스는 우편으로 배달된 대학 신입생들 얼굴이 실린 사진첩을 넘기며 그들의 가족들이 한 달쯤 후면 그들을 데려다줄, 캔자스에서 멀리 떨어진 캠퍼스들을 훑었다.

그 다음 주에 메레디스가 기숙사에서 쓸 물건들—시트, 타월, 멀티탭, 옷걸이, 게시판—을 사러 슈퍼마켓에 부모님과 함께 갔을 때, 그녀는 그녀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느끼는 부모님의 자신감을, 새 출발에 대한 부모님의 소망을 감지했다. 겨울 코트를 쇼핑하러 갈 즈음, 동쪽으로 긴 자동차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을 믿는 부모님의 신뢰감이 뿜어내는 빛줄기가 예전의 위력을 되찾았다는 걸 느꼈다. 어쩌나 고마운지 아찔하기까지 했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분들은 어쩌서 그때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걸까? 그녀는 배우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그게 그토록 이상하고 그릇된 일이었을까? 브라운에서, 1학년 때, 그녀는 섹스를 전혀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그걸 할 필요가 없었다.

그걸 하는 법을 몰라서 불안해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토론토 클럽에 있을 때 하던 스타일의 연애—아이스크림, 애무, 그녀가 내키면 허용하는 2루 진루—로, 따스하게 옷을 입은 채로 하는 구애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랑을, 섹스하고 싶다는 욕구가 동하는 걸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❷

이번 인터뷰 진행자는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장 셰퍼드다. 그는 뉴욕 라디오방송국 WOR에서 매주 방송하는 1인 마라톤 토크쇼를 그리니치빌리지의 화려한 무대에서 진행한다. 자신의 소년 시절을 우스꽝스럽게 회상하여 청취자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신랄하게 비판해 온 남자. 이 인터뷰는 맬컴 엑스와 해리 S. 트루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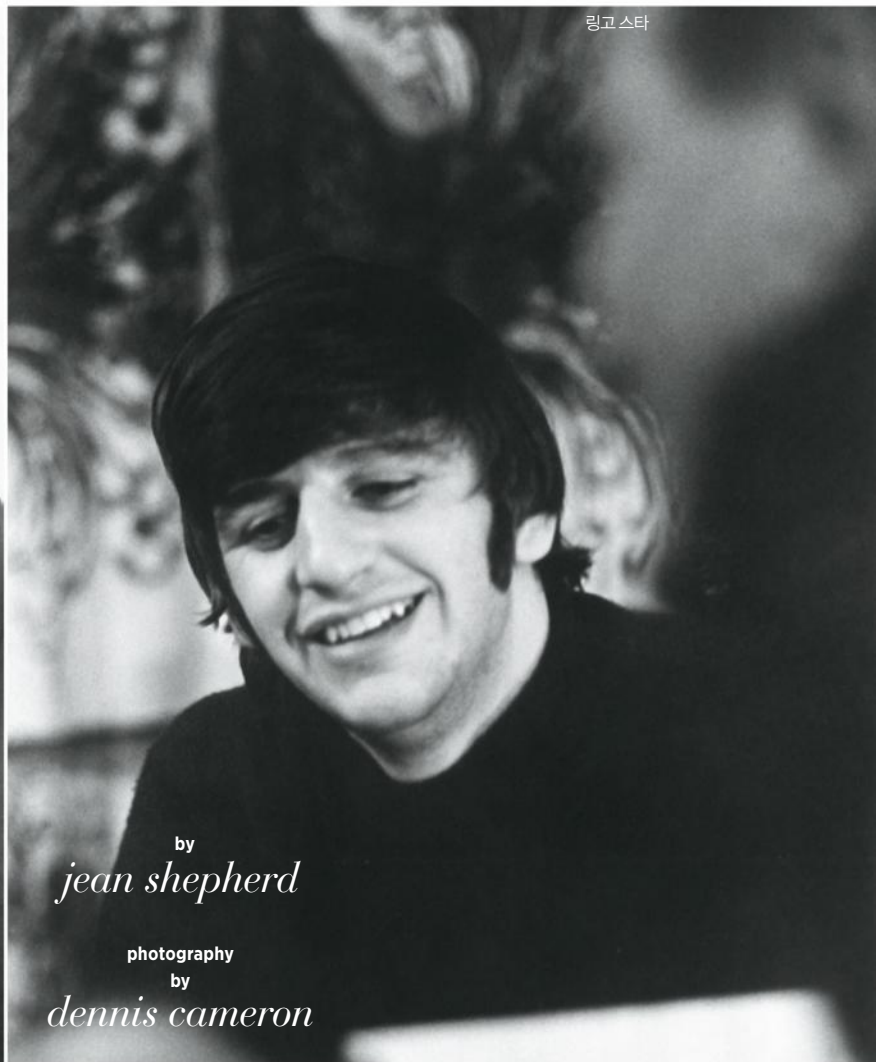
의 거물급 출연자들과 격한 설전을 벌이며 재치 넘치고 말발 좋은 방송 리포터로 활약해온 그의 지면 데뷔작이다. 셰퍼드는 그의 인터뷰 상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영국 곳곳을 누비며 흥겹고 활기차게 투어 중인 비틀스를 에든버러에서 만나 그 여정에 동참했다. 그들을 처음 만난 건 비틀스의 1회 공연과 2회 공연

사이, 비좁고 폭폭 찢는 데다 완전히 난장판인 무대 뒤 분장실에서였다. 런던에서 야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그곳에서 갑작스레 20세기에 현존하는 가장 엄청난 인물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분장실에 들어가자, 그들은 고개를 들어 수상쩍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곧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먹고,



폴 매카트니



링고 스타

by
jean shepherd

photography
by
dennis cameron

THE MOST BELOVED POP BAND **THE BEATLES**

네 명의 리버풀 청년이 영국을 넘어 미국을 점령했고 전 세계를 평정했다.
모두가 그들에게 열광했고 그들의 음악을 열망했다. 뜨거운 무대에서 내려온 비틀스의 경계 없는 모습은 어땠을까? 1965년, 〈플레이보이〉는 공연을 마친 20대의 백만장자 음유시인들과 숙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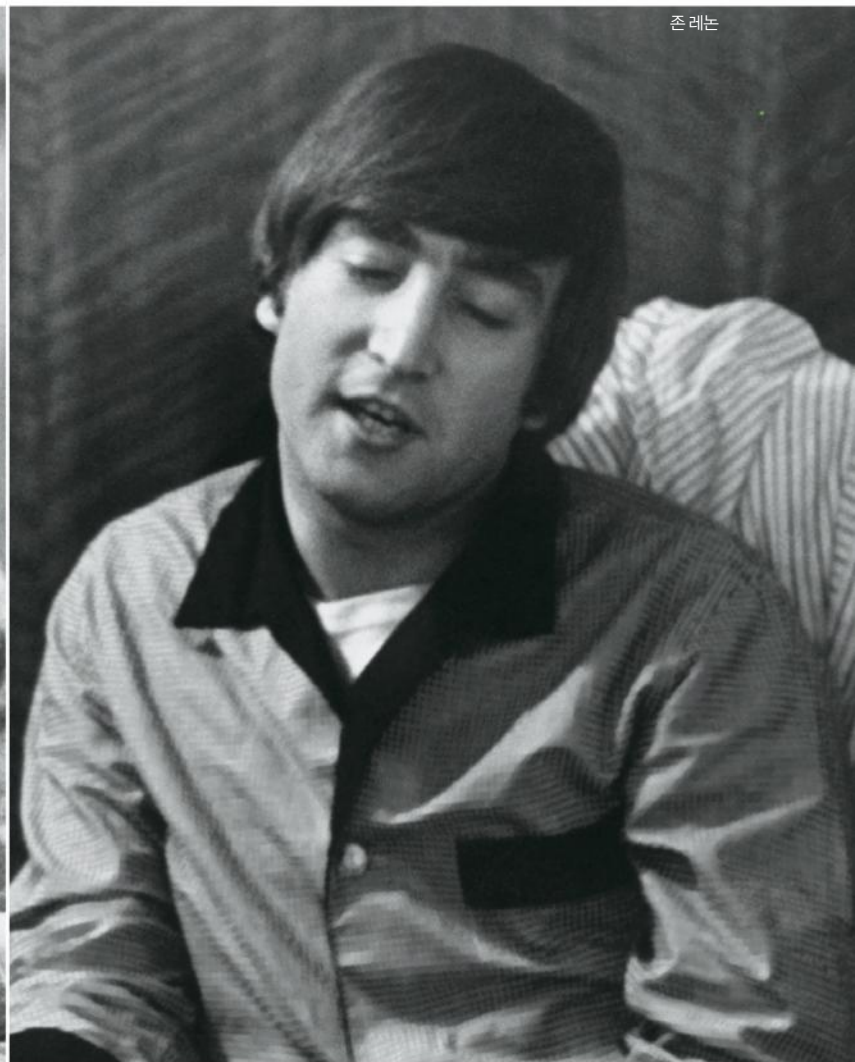
마시고, 기타를 튜닝하고, '레전드'라면 보잘것없는 일반인을 못 본 척 무시하는 나름의 방법을 알고 있을 테다. 나는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의 그들을 열심히 살폈다. 그들의 모습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위에서 끊임없는 소동이 벌어지는데도, 옷을 반쯤 벗은 채로 대자로 누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

이 도시, 저 도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우리에게 도시는 연이어 등장하는 분장실과 호텔의 본거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청중의 함성 소리도 똑같았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고대인이 풍년을 기원하며 치르던 의식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고대인이 신봉하던 드루이드교의 '현대판 성직자'인 비틀스는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합판으로 만든 스톤헨지처

들의 둥둥거리고 쿵광거리는 소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그저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스카치를 훌쩍이며 드라마 〈닥터 킬데어〉를 보고 있을 뿐이다. 그곳에 앉아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지난 2년간 비틀스는 스타덤에 오르고 쇼 비즈니스를 훌쩍 뛰어넘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전 세계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



조지 해리슨



존 레논

그들은 글래스고와 던디에서 당일치기 공연을 마친 상태였다. 나는 에든버러에서부터 플리머스와 본머스를 비롯한 다른 소도시 대여섯 곳으로 그들을 따라다녔다. 모든 도시는 한결같았다. 열광하는 대규모 관객, 경찰관 수백 명, 잠깐 잠을 청하려 존의 애마 '오스틴 프린세스'를 타고 철통 경호를 받는 호텔을 향해 달리던 광란의 질주. 그리고 나서 날이 밝으면,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럼 생긴 분장실에 앉아 있었다. 프렌치프라이와 스테이크가 담긴 접시, 찻주전자, 텔레비전에 둘러싸인 채로 무대 너머 어딘가에서 그들을 추종하는 신도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온다. 파도와 바람 소리 같은, 아련하면서도 으스스한 소리. 비틀스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뉴욕 경찰이 교통 소음에 무덤덤한 것처럼. 그들은 군중의 소리를, 그리고 복도 저 아래에서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다른 로큰롤 밴드

를 광신도로 만들어버리는 신화 같은 존재다. 나는 이 모든 종교적 열광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비틀스의 음악적 재능, 심지어 비틀스 자신들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세상에 등장하든 말든, 세계적 규모의 광기가 드났없이 우리를 덮쳤을 거고, 그들은 그 광기가 더욱 빨리 퍼져나가게 만드는 촉매에 불과할 뿐이라는 느낌. 비틀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필연적 추세에 떠

밀려 비틀스와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냈을 거다. 어떤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그들은 어마어마한 재능의 소유자는 아니다. 하지만 마치 요요처럼, 비틀스는 적합한 시기와 적합한 자리에 등장했다. 그리고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든 그들의 성공 요인은 그들을 ‘걸어 다니는 신화’의 반열에 올려놓는 대중적 히스테리를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들르는 곳곳에서 비틀스를 발견한 사람들은 경악했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집에 놓여 있는 비틀스 인형이랑 똑같이 생긴, 피가 흐르고 살점이 붙어 있는 비틀스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나 는 상황과 비슷했다. 매일 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굵은 신거리는 저널리스트 우리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며 비틀스가 내뱉는 단어들을 일일이 받아적었다. 각 도시의 귀부인, 공작, 고위 성직자들이 비틀스를 잠깐이라도 만나려고 직접 찾아왔다. 찰나의 순간이 나마 그들의 형용할 수 없는 오라를 만끽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고개를 조아리며, 그때 진행된 인터뷰는 진짜 인터뷰가 아니었다. 그들을 알현하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만남을 윤택한 것일 뿐. 그리고 이러한 행동방식이야말로 대중이 바라는 ‘레전드’의 행동방식이었다.

어디를 가든, 비틀스의 주위에는 기이한 빛이 아른거린다.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은 그 빛이 어쩌나 두통하게 깔려 있는지, 한 입 베어 물어 맛볼 수도 있을 것만 같다.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깔린 판타지의 구름 한복판에 네 명의 젊은이가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마법 같지 않은 모습으로. 어쩌다 보니 그들은 팬과 언론이 창조한 ‘큐피 인형’과는 생판 다른 ‘인간’으로 남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소란스럽지만, 정작 그들은 소란스럽지 않다. 그들은 세상이 비틀스에게 기대하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우스꽝스러운 웃을 입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며 ‘비틀스’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대가 끝나고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면, 그 모든 움직임은 멈춘다.

영국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비틀스를 언급할 정도로 그들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비틀스가 최근에 가장 성공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연에게 상품이라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성공에 약간 어리벙벙한 상태다. 그리고 바로 그 성공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 극단적인 보호를 받으며 생활했다. 요란하게 재채기라도 하면 거품이 터져버릴 거라고, 그러면 일반인의 삶으로 복귀하게 될 거라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네 명 중에는 조지 해리슨이 가장 이 상황을 즐기며 덜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사교성이 좋지만 빈정대기도 잘하는 사람이며, 제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도 하다. 손으로 머리를 자주 매만지는 그는 거

울 앞을 지날 때마다 곧잘 걸음을 멈추곤 한다. 어쨌든 그는 무척이나 호감 가는 청년이다. 만약 그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말이다. 한편, 존 레논은 약간 과묵하고 웬만해서는 흥분하는 일이 없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유행에 둔감하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자신감을 발산하는 그는 이 그룹의 비공식적 리더다. 폴 매카트니는 존만큼 침착하지만, 훨씬 외향적이고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 이따금씩 ‘귀요미 비틀(Cute Beatle)’이라고 불리는 그를 보며 나는 소설 <로버 보이(Rover Boy)>의 네드를 떠올렸다. 네드는 흥이 넘치고 쾌활하며 가식이 없는, 친밀한 인상의 인물이다. 하지만 네드와 달리, 폴은 미끈한 외모와 예리한 눈빛의 소유자이며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비틀스에서 가장 덩치가 작은(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작은) 링고 스타는 호기심이 생길 정도로 다른 멤버와 확연히 다른 사람이다. 말수가 적고, 심지어는 약간 시무룩해 보이는 그는 구석에 앉아 침울한 눈빛으로 창문 밖을 응시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외톨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상대의 호감을 이끄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 그가 스스로 상대와의 거리를 점점 더 벌리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가깝지 않은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걸 어색해했다. 처치를 뒤바꿔놓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열렬한 팬들의 눈에 비틀스가 비현실적 존재로 비치는 것처럼, 비틀스의 눈에는 팬들이 그렇게 비친다. 그리고 인터뷰 진행자들이 그들과 팬들 사이에 실새 없이 끼어들었다. 그 결과, 인터뷰에서는 빠있는 농담들이 오갔고 가명으로 작성한 공격성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비틀스와 언론 사이에 쌓인 성벽은 점점 높고 솟아올랐다. 그래서 비틀스를 제대로 알아보는 작업, 그리고 그들의 솔직한 속내를 끌어내는 작업은 처음부터 진이 빠지는 일이었다. 그들과 함께 사흘간 여행하며 동고동락하고 나서야,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방어막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나는 그곳에 도착한 이후 감기 때문에 매일 고생하고 있었다. 어느 날 폴이 갑자기 내게 “감기는 다 나았느냐”고 물었다. 현실 속 비틀스의 삶이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친구로 지내기 시작했다. 일주일간 1만6천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며 팬들의 비명 소리를 천만 번 정도 들었다. 그 후 우리는 잉글랜드 남서부의 우중충한 해변 휴양지인 토키에 도착했다. 엑스터 근처에서 진행된 그들의 2회 공연이 끝나기 무섭게, 어린 소녀들이 미친 듯이 몰려왔다. 수배 중인 도망자 4명과 겁에 질린 인질 1명(나)은 코트 옷깃을 세우고 모자를 깊게 눌러썼다. 마지막 커튼이 내려진 지 단 몇 초 안에, 우리는 출입구에서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는 송배자 집단을 피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차를 타고 겨울 밤거리를 빠르게 달렸다. 철저한 사전연습 끝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탈출하는 죄수들처럼. 호텔에서

익명으로 체크인하고(그들의 신원과 소재지는 철두철미한 미국 전략공군사령부의 안전 장치가 달려 있는 핵무기 발사 암호보다 더욱 극비리에 보호됐다), 문을 안전하게 잠근 후에 그들은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걸치고 있던 비틀스 슈트를 벗어던지더니 편안한 웃음으로 갈아입었고, 콜라와 차와 술을 넉넉히 주문했다.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거침없는 말들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녹음기를 켜다. 다음은 녹음기에 담긴 대화다.”

● **Playboy:** 오케이, 인터뷰 시작됐어요. 첫 질문은…

John: <헛!> 낭송으로 시작하죠.(웃음) **Ringo:** 그래, 좋네요. 그걸로 해요.

● **Playboy:**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순전히 웃고 즐기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대신 진짜 인터뷰를 하는 건 어떨까요? **George:**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내가 그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았을걸.

Paul: 첫 질문으로 <플레이보이>에게 뭘 물어볼까요? **Ringo:** 버니들에 대해….

● **Playboy:** 노 코멘트. 처음부터 다시 해보죠. 링고, 당신은 그룹에 합류한 마지막 ‘비틀(Beatle)’이에요. 그렇지요? **Ringo:** 맞아요.

● **Playboy:** 링고가 합류하기 전에 한 팀으로 활동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John:** 몇 년쯤일 걸요. 팀으로 모였다 헤어졌다 한 기간까지 치면 3년쯤이고요.

Paul: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아마추어나 다름없었어요. **George:** 동네의 조그마한 펍에서 공연했어요. 각자의 삼촌들 집에서도 공연하고, **John:** 조지의 형 결혼식에서도 했었죠. 그런 식이었어요.

● **Playboy:** 진짜 거물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제였나요? 명성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은 밤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John:** 음, 우리는 공연 무대를 확보하려고 기를 쓰며 리버풀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면서요. 다른 그룹들은 우리한테 계속 말했죠. “너희들은 정말 거야. 언젠가는 여러 무대에 오를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중 함부르크에 가게 됐어요. 갔다가 돌아왔더니 갑자기 우리가 대박을 쳤더라고요. 뭐랄까, 청중의 70퍼센트는 우리를 독일에서 온 인기 밴드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Paul:** 신문 광고에 이렇게 실렸어요. ‘함부르크에서 온 비틀스’라고요. **John:** 리버풀 사람들은 우리가 리버풀 출신이라는 것조차 몰랐어요. 우리를 함부르크에서 온 밴드라고 생각하며 말하더군요. “와, 저 친구들 영어 잘하네!” 잘하는 게 당연하죠, 영국 사람인데. 아무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무대에 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Paul:** 그런 느낌을 받은 것도 그때였죠. **John:** … 인기가 오르고 있다는 느낌. **Paul:** … 리버풀에서 성공할 것

같다는 느낌요.

● **Playboy:** 당시 수입은 얼마였나요? **John:** 하루 공연에 20달러였어요.

● **Playboy:** 각자요? **John:** 그룹 전체가요! 제기랄, 그것보다 훨씬 덜 받고 공연한 적도 많았어요.

Paul: 하루에 3~4달러를 벌려고 공연을 하곤 했죠.

Ringo: 덤으로 콜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콜라를 엄청나게 마셔댔죠.

● **Playboy:** 직접 만나러 와서 “당신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은데요”라고 말한 첫 저널리스트를 기억하나요? **Ringo:** 우리가 먼저 기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신문사를 돌아다녔지, 그렇지? **John:** 찾아가서 공손하게 말했죠. “저희가 이번에 이런 음반을 냈습니다. 부탁인데...” **George:** 그러면 문이 ‘쾅’ 닫혔죠.

● **Playboy:**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과연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John: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취뽀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공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해댄 건 브라이언뿐이었어요. 조지도요. 매니저였던 브라이언 엡스타인이랑 조지 해리슨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George:** 나는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기록한 음반 판매량을 보면서요. **John:** 사실 미국에서 성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어요. 거기서 음반을 히트시킨다는 것 말이에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처럼 보였거든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미국도 여기랑 다를 게 없고, 이 세상 모든 청년들은 다 똑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영국에서 우리를 따라 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이라고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하지만 미국의 DJ들은 우리에게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우리의 음악을 틀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음반을 홍보하지 않았고요. 그러니 히트할 리 없죠. **George:** 아냐, 참신하다며 틀어준 DJ가 한두 명 있었어. **John:** (타임)이랑 (라이프), <뉴스위크>가 찾아와 기사를 쓰고 우리를 향한 관심이 생긴 뒤에야 DJ들이 우리 음반을 틀기 시작했죠. 캐피틀 레코드에서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음... 그 친구들 음반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 전에 이미 그들에게 음반들을 보냈었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여기서 거물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러더군요. “지금 그 친구들이랑 계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우리 음반들을 홍보해주는 조건에서요.” 그렇게 캐피틀이 홍보를 맡았고, 이런 홍보 활동과 우리에게 대한 기사들 덕분에 음반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어요.

● **Playboy:** 팬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비틀스가 본질적으로 엔터테이너인지 뮤지션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어

떻게 생각하나요? **John:**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돈 버는 기계예요. 그 다음이 엔터테이너고요.

Ringo: 아니, 그렇지 않아. **John:** 그러면 원데?

Ringo: 몰라. 엔터테이너가 먼저일 거야. **John:** 그래. **Ringo:** 우리는 돈 버는 기계이기 이전에 엔터테이너였으니까. **John:**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건 언론이 네 머리에 쓸데없는 생각을 심어 넣어서 그런 거야. 언론이 그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지?

Paul: 그렇기는 해도, 거금을 번다는 사실에서 꾸준히 영감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는 바보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하고픈 말은 이거예요. 비즈니스계의 거물들이 거물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규모 사업의 위대함에서 영감을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순전히 음악 하는 게 즐겁다는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척을 한다면 우리는 멍청한 거예요. 처음엔 그런 이유로 음악을 시작하기는 했어요. 돈이 좀 벌렸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마음 한구석에 품어두고요. 그런데 지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예전과는 반대로요. 과거에는
즐거기 위해 음악을 하며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지금은
음악 하는 즐거움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며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이 벌리는 걸 보는
즐거움을 제외하면요.

-Paul

금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예전과는 반대로요. 과거에는 즐거기 위해 음악을 하며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지금은 음악 하는 즐거움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며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이 벌리는 걸 보는 즐거움을 제외하면요. 그래도 우리는 음반을 만들고 무대에 오르고 영화를 찍는 그 모든 작업은 여전히 즐기고 있어요. **John:** 우리는 모든 작업의 1분 1초를 사랑하잖아, 비틀 파플(Beatle People)!

● **Playboy:** 가십거리를 다루는 잡지의 가슴 아픈 전기에 따르면, “리버풀 빈민가에서 태어나 피난민들 처럼 온갖 고생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난데없이 내리친 돈벼락에 대처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느끼나요? **Paul:** 그러저럭 적응해왔어요. 그런데 루머와는 반대로, 우리 중에 빈민가에서 자라며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사람은 없어요. 늘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굶주린 적도 없었고요. **John:** 맞아요. 우리도 그 미국 잡지에 실린 기사들을 읽었어요. “이 청년들

은 빈민가에서 벗어나려고 분투했다.” **George:** 우리는 배를 굶은 적이 전혀 없어요. 링고조차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Ringo:** 나조차도 그렇지.

● **Playboy:** 당신들은 어떤 가정 출신인가요?

George: 글썄요. 뭐랄까, 부잣집은 아니죠. 그냥 보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일들을 하셨고요. 그냥 평범한 노동자들이셨어요.

● **Playboy:** 무슨 일을 하시나요? **George:** 음, 지금은 딱히 하시는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버스운전사 이셨어요. **John:** 상선에서 근무하셨어요.

● **Playboy:** 형제가 있어요? **George:** 형이 둘 있어요. **John:** 딱히 누나나 여동생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고요.

● **Playboy:** 당신은 어때요, 폴? **Paul:**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저 멀리 뉴올리언스에서 면직물 판매원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별에 약간 그들린 것처럼 보이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따금 공과금을 납부하는 데 곤란을 겪으셨던 건 사실이지만, “애들아, 밖에 나가 산책기 좀 따 오거라. 이번 주는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는구나”라고 말씀하신 적은 결코, 절대로 없었어요.

● **Playboy:** 존, 당신은요? **John:** 아, 나도 비슷해요. 이모랑 살았어요. 얼굴을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아버지가 있었고요. **Ringo:** 존은 이모 집에서 살았어요. **John:** 맞아요, 이모랑 이모부랑 같이요. 그분들은 나를 잘 먹여 키우셨죠. 한 번도 굶주려서 힘든 적이 없어요.

● **Playboy:** 당신 가족은 어땠나요, 링고? 아버지는요? **Ringo:** 평범했어요. 외갓집에서 어머니랑 살았어요. 어머니는 내가 13살 때 새아버지와 결혼하셨고요. 어머니는 항상 일을 하셨어요. 나도 굶은 적은 전혀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대부분 가질 수 있었어요. **George:** 굶은 적 없다고? **Ringo:** 응, 한 번도 없어. 어머니는 늘 나를 잘 먹여 키우셨어. 나는 외동이니까, 놀랄 일은 아니지.

● **Playboy:** 요즘 일부 미국인 사이에서 친부모를 증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어요. 하지만 당신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Ringo:** 우리도 다른 미국 청년들처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나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에 반감을 갖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부모님을 증오하지는 않아요.

● **Playboy:** 미국에는 그와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Paul:** 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미국인이 많아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은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로요. 물론, 정상적인 미국인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신 나간 미국인을 많이 만나봤어요. 당신도 그런 사람들을 알잖아요. 휘그당원 같은 사람들.

● **Playboy:** 그게 무슨 말이죠? **Paul:** 프로페셔널한

정치인 같은 사람들, 권력을 거머쥐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요. 그들 중 일부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미친 미국인 아가씨를 몇 명 봤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나한테 걸어서 “나는 릴리예요”라며 자기를 소개했던 아가씨 같은 사람들요. 나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라고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당신한테 아무 의미도 없나요?”라고 묻더군요. 잘 모르겠다고 둘러대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전에 만난 적 있는데 내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했던 사람이구나 보네.’ 그런데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우리의 홍보 담당자 데릭이 내 어깨 너머로 몸을 숙이고 속삭이더군요. ‘이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인데...’ **George:** 이봐,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어. **Paul:** 오, 그래. 매번 그런 건 아니지, 비틀 피플! 아무튼 데릭이 릴리라는 아가씨를 향해 몸을 숙이고는 물었어요. “아가씨, 우리와 통화를 하셨거나 우리한테 편지를 보낸 분인가요?” 릴리는 “아뇨”라고 대답했어요. 데릭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아가씨는 풀하고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가요? 풀을 어떻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더군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섬뜩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둘 다 침을 꿀꺽 삼켰고, 얼굴이 붉게 상기됐죠. 내가 얼버무렸어요. “아,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릴리.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빨리 떠나야만 해서요.”

● **Playboy:**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벼락이 내리치지는 않았나요? **Paul:** 아뇨, 벼락은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눠봤어요. 하나님께서 환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John:** “힘든 하루였어(It's been a hard day's night)”라는 비틀스 노래 가사를 말씀으로 전하셨죠.(웃음) **Paul:** 아냐. 하나님께서 이러셨대. “잘 듣거라, 릴리. 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는 너와 사랑에 빠졌고,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단다. 그러니까 풀을 만나거라. 그는 곧바로 너를 알아볼 것이다.” 정말 웃겼어요. 그 여자에게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득하느라 엄청 애썼어요. “당신이 본 것은...” **George:** 아마 하나님으로 변장한 무엇이었을 거야. **Paul:** 영국에서는 좀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미국에는 그와 무척 비슷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았어요. **John:** 그건 미국이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렇지.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미친놈의 수도 훨씬 많은 거라고.

● **Playboy:** 미친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는 “맙소사, 내가 비틀스라니!”라는 탄성을 내뱉은 적이 있나요? **Paul:** 아뇨, 그다지 많이 그러는 편은 아니에요.(웃음) **John:**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의 면전에서 그런 짓을 해요. 나는 혼자 있을 땐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Ringo:** 다 같이 그런 짓을 많이 하곤 했죠. 차에

타면 내가 존을 쳐다보며 말하곤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을 줄이야. 야, 넌 진짜 최고야!” 그러고는 깔깔거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존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리버풀 출신의 오랜 친구 두어 명도 그런 짓을 했어요. 그 애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너네, 뭐 잘못 먹었냐?” 그냥 재미있자고 하는 바보짓이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깔깔거렸어요. 나를 벌난 사람 중 하나로 생각하면서요.

● **Playboy:** 비틀스로요? **Ringo:** 그렇지. **Paul:** 나는 오늘처럼 과자점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깨닫고는 해요. 옛날에는 과자점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어요.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먹고 싶은 과자를 쏴서 담고 가게를 나오곤 했죠. 그런데 오늘 과자점에 2초 동안 들어갔을 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들고 있던 과자를 떨어뜨렸어요. 옛날에는 이런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반응이라고 해봤자 “저기 머리 기른 놈들 좀 봐. 바보 같지 않냐?”가 전부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모두 대경실색해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걸 믿을 수가 없

내가 유명인이 아니라면
지금 다니는 레스토랑들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은 그대로이지만
유명인이 아닐 경우에도
그런 데는 가지 않을 거고,
그런 곳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진짜 재수없거든.
-Ringo

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 **Playboy:** 문제는 당신들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들은 비틀스니까요. **Paul:** 나도 알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죠. **George:** 그건 모두 홍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Paul:** 우리도 속고 있는 거야. 우리도 스타들을 만날 때마다 정확히 똑같은 반응을 보이잖아.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오!” **John:** 그건 좋은 일이지. 여전히 우리도 그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Paul:**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를 스크린이나 잡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될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팬들조차 그래요. 팬들은 우리를 무척 만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

다 보니, 실제로 우리를 만나면 눈앞의 상황 자체를 믿지 않아요.

● **Playboy:** 팬들은 당신들을 어디서 찾아내나요? 호텔 방 안에 숨어 있거나 그러나요? **John:** 아뇨, 보통은 길거리에서죠.

● **Playboy:** 비틀스는 경호원도 없이 과감히 길거리에 나갈 정도로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뜻인가요?

Ringo: 그럼요. **George:** 우리는 늘 길거리에 있어요. 비틀거리면서요. **Ringo:** 고향자들처럼 우리 몸에 채찍질을 해대면서요. **George:** 아마 존이 시궁창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을 거예요.

● **Playboy:** 사람들을 거리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George:** 뭐, 딱히 하는 일은 없어요. 거리를 걸어 다닐 때는 몰려다니는 사람들과 잘 마주치지 않는 게 보통이거든요. 사람들은 무리 지어 돌아다니지 않는 게 보통이구요.

● **Playboy:** 사람들이 몰려드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쇼핑을 할 수도 있나요? 혼자일 때나 그룹으로 움직일 때 말이에요. **John:** 그런 상황은 피해요.

Paul: 커다란 산에게 이리 오라고 부르는데도 산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산으로 가야죠.

George: 풀이 말한 것처럼, 가게가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가끔은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찻싸게 빠져나오기도 해요.

● **Playboy:** 그건 곤경을 자초하는 일 아닌가요?

Paul: 아니에요. 우리는 걷는 속도가 일반 사람들보다 4배나 빠르거든요.

● **Playboy:**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안전한가요? **George:**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지난밤에도 레스토랑에 갔어요. **John:** 어디? **George:** 그 레스토랑들. **Paul:**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가는 레스토랑들에서는 우리를 잘 알아요. **George:** 그런데 보통은 미국인만 우리를 성가시게 할 거예요.

● **Playboy:** 정말로요? **George:** 정말로요. 런던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늘 식사 중인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면 웨이터한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막아달라고 말해두면 돼요. 어찌다가 다가오는 데 성공하면, 그냥 사인해주고 돌려보내면 되고요. **Ringo:** 그런데 말야, 내가 유명인이 아니라면 지금 다니는 레스토랑들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은 그대로이지만 유명인이 아닐 경우에도 그런 데는 가지 않을 거고, 그런 곳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진짜 재수없거든. 그런 인간들이 손님으로 오는 레스토랑에 갈 때 좋은 점은 그들이 우리 테이블에 오려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척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수월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지. **George:** 그러면서 그 인간들은 자기들이 속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을 비웃고 있지. 그들이 속으로는 우리의 체제를 알고 있

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으니까. **Ringo:** 어떻게 그런 건데? **George:** 그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한테 사인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을 테니까.

Ringo: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한테 욕을 퍼부를 거고. **George:** 음... 나는 그러지 않아, 비틀 피플. 나는 사인을 해주고, 그들에게 내 테이블까지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침이 마르도록 한 다음에, 내가 먹던 고기 한 점을 권하곤 해. **John:** 한창 식사 중일 때라면 나는 보통은 이렇게 말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겠어요?" **George:** 그러고는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날 때까지 식사를 계속하는 거지. **John:** 그건 사실이 아냐, 비틀 피플!

● **Playboy:** 이러한 불편함을 제외하면, 일에 만족하는 편인가요? 팬들로부터 사탕세례를 받고, 비명을 지르는 수천 명의 어린 팬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걸 정말 즐기나요? **Ringo:** 네. **George:** 여전히 그런 상황을 짜릿하게 생각해요. **John:** 그러니까, 있잖아요... **Paul:**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실제로,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 **Playboy:** 이런 상황에 정말로 익숙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Paul:** 음, 무대에 올라갔다가 끝내주는 청중을 마주하면 여전히 흥분돼요. 하지만 비틀스의 음반 하나가 차트 1위를 찍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흥분되지는 않는 게 분명해요. 내 말은, 그 당시에 정말 낮이 나갈 정도로 흥분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며 자축했죠.

Ringo: 어쨌든 우리는 아직도 술 마시러 밖에 나가잖아.

● **Playboy:** 무대 밖에서도 자주 어울려 지내나요? **John:** 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우리 같은 그룹은 보통 멤버끼리 친구 지간이 아니에요. 그냥 공연을 하기 위해 저 바깥에 내던져진 네 사람일 뿐이에요. 그중 두 사람이 죽어 잘 맞아서 같이 잠을 자며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지만... **George:** 지금 한 말 무슨 뜻이야? **John:** 물론, 플라토닉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우연하게도 우리 모두는 꽤 좋은 친구예요.

● **Playboy:** 그렇다면 작업하고 있지 않을 때도 서로 자주 만나셨군요? **Paul:** 음,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늘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일 필요는 없어요. 런던을 잘 모르고 런던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초반에는 정말 똥볼 뭉쳐 지냈어요. 정말, 우리는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를 구경하러 북쪽에서 내려온 촌뜨기 네 명과 다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전부 연애 중이고, 우리의 애인들은 모두 런던에 있어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보통 각자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죠. 유부남인 존은 제외하고요.

● **Playboy:** 나머지 멤버들 중 가정을 꾸려 정착할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Paul:** 나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George:** 나는 링고랑 결혼할 거예요.

● **Playboy:** 어? 누구랑요? **George:** 링고랑요. 그런데 이 사실은 비밀로 간직하는 편이 더 나을 거예요. **Ringo:**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George:**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플레이보이>처럼 격조 높은 잡지에 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루머가 도는 걸 원하지 않아요.

● **Playboy:** 그렇다면 화제를 바꾸는 편이 낫겠군요. 무대 뒤에서 한 아가씨가 나타났던 밤을 기억하나요? **George:** 알몸으로...

● **Playboy:** 불행히도 그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다면... **George:** "힘든 하루였어(it's been a hard day's night)."

● **Playboy:** 아니에요. 그 여자는 당신을 가리켰어요. 조지. 그리고 외쳤죠. "비틀(Beatle)이다!" 다른 멤버들이 "저건 조지인데요"라고 했더니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에요. 비틀이에요!" **John:** 그러자 당신이 말했죠. "침실은 이쪽입니다."

● **Playboy:** 아니에요. "조지와 인사시켜드릴까요?"라고 했어요. **John:** 내가 말한 대사가 더 마음에 드는군요.

● **Playboy:** 음, 요점은 비틀스가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John:** 그녀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 **Playboy:** 그 아가씨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나요? **George:** 세상에 그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나요?

● **Playboy:** 미국에서도요? **Ringo:** 세상 어디에서나 그래요.

● **Playboy:** 예외가 전혀 없나요? **John:** 미국의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Playboy:** 그렇죠. **John:** 조금 있어요. **Paul:** 맞아요. 미국 여자들 중 몇 명은 끝내줬어요. **John:** 조앤 바에즈 같은 여자들. **Paul:** 맞아, 조앤 바에즈는 좋은 여자야. 정말로 좋은 여자지. **John:**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그녀뿐이야. **George:** 그리고 제인 맨스필드가 있죠. <플레이보이> 덕분에 성공한 여자. **Paul:** 그녀는 스타일이 약간 달라. 그렇지 않아? 다르다고. **Ringo:** 나긋나긋한 여자지. **George:** 나긋나긋하고 푸근해. **Paul:** 사실 그 여자는 멍청이야. **Ringo:** 비틀스의 하나님, 풀게서 말씀하십시오. **Paul:** 내 말은 그게 아냐, 비틀 피플! 사실 나는 그녀를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지금 내가 한 말 당연히 기사에 넣지는 않을 거죠? <플레이보이>는 엄청난 친(親) 맨스필드 잡지니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정말 끝내주는 여자로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먹은 할머니잖아요.

● **Playboy:** 그건 그렇고, '비틀 피플'이 뭔가요?

John: 미국의 한 잡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모든 글이 이렇게 시작돼요. "안녕하세요, 비틀 피플. 모두들 멋쟁이 4인조(Fab Foursome)가 요즘 뭘 하는지 궁금해할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도 항상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Paul:** 신문 기자들이 쓰는 수준 낮은 어투죠. **John:** 아냐. 그 표현에서 잘못된 점은 하나도 없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잖아.

● **Playboy:** 수준 낮은 어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런던의 어느 신문에 비틀스를 히틀러와 비슷한 존재로 보는 코멘트가 실렸어요. 진짜로요! 그 기사는 당신들이 대중의 환호를 이끌어낼 때 히틀러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고 썼는데요... **Paul:** 우리가 발휘하는 힘은 히틀러의 힘만큼 대단한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연과 공연장을 찾는 청중의 분위기가 히틀러의 느낌과 비슷해 보يا는 하지만요. "소리 질러!"라는 얘기를 들은 청중은 지시받은 대로 소리를 질러달 테니까요. 그 평론가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 나는 그 기사를 읽고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녀는 한 번도 우리를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 **Playboy:** 그녀요? **Paul:** 그 기사를 쓴 여자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철저히 헐뜯었어요. 그 히틀러 기사랑 비슷한 글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따분한 작자들이라고 하더군요. '지루한 4인조(Boresome Foursome)'라고 부르면서요. 사실, 이 여자는 우리를 향해 투덜거리는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달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남들처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Ringo:** 에이, 그건 아니지. **Paul:** 아냐. 너야말로 그건 아니지. 내가 그 신문사로 전화를 했었는데, 그 여자에게 연결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음, 그게... 그 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말을 심하게 더듬어 사람들과 통화하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녀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딱 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여자, 정말로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대해 이런 빌어먹을 기사나 써대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폭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겨운 놈들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에 대해 떠들어댈 수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는 실컷 두들겨 팰 수도 있다고요! **George:** 망할 놈의 파시스트 같으니!

● **Playboy:** 링고... **Ringo:** 부르셨습니까, <플레이보이>님?

● **Playboy:** 당신은 언론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작년이나 그쯤에 언론을 향한 태도를 바꾼 적이 있나요? **Ringo:** 그래요.

● **Playboy:** 어떤 방향으로요? **Ringo:** 언론을 더욱 혐오하게 됐어요.

● **Playboy:** 글래스고에서 마지막으로 공연한 밤, 그곳에서 일어난 폭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나요?
John: 나중에야 알았어요.

● **Playboy:** 그 이틀날 한 지역 신문에 당신들이 폭력을 직접 선동했다고 비난하는 독자 편지가 실렸다는 사실도 들었나요? **Ringo:**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정말 불공평해요. **George:** 망할 놈들! **Paul:** 글래스고는 벨파스트랑 비슷해요. 아마 거기서도 정치적 성격의 소규모 소동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특정 도시 시민들이 다른 도시의 시민들보다 경찰을 더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George:** 맞아. **Paul:** 지난번에 갔을 때는 터무니없는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때문에 일어난 폭동은 아니었죠. 군중이 모인 건 우리 때문이지만, 폭동이 일어난 건 공연이 끝난 후에... **Ringo:** 여기저기 펍에서 쏟아져 나온 주정뱅이들이 모두 모여... **Paul:** ...경찰들을 마구 두들겨 댄 거예요.

● **Playboy:** 그 사람들이 비틀스 공연을 경찰을 공격할 핑곗거리로 써먹었다는 건가요? **George:** 맞아요. **Paul:** 이번에 투어 공연을 하러 더블린에 갔을 때 군중들이 교통을 마비시킨 것 봤죠? 심지어 버스에서 운전사를 끌어내기도 했어요. **John:** 소방관들을 부르기도 했지. 이번에는 소방차 4대가 출동하기까지 했지.

● **Playboy:** 차들을 뒤집어엎고 상가의 창문들을 박살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공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건가요? **Paul:** 그게... 애매하게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우연히 공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뭔가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하죠. **John:**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15살 소녀들이 우리 때문에 창문을 깨고 다닌다고 믿지는 않을 거예요. **George:** 분명히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여자애들은 8살이었어.

● **Playboy:** 폭력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어가볼까요? 조만간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George: 그럼요. 금요일에 일어날 거예요.
Ringo: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정산을 끝내고 이제 막 현금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해. **John:** 곤란한 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생각할 거라는 사실이지.

● **Playboy:** 롤링 스톤스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Paul:** 그건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아마 런던이나 리버풀에 있을 테니까요. 폭탄은 도심 한복판에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순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로 저승길에 오르겠죠.

● **Playboy:** 이 화제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발생한 주요 전쟁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에세이가 얼마 전 대단히 진지한 시사 잡지에 실렸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특정 엔터테이너를 향한 대중의 히스테리가 쓰나미처럼 퍼졌었다고 하네요.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아이린 개슬 열풍이 몰아쳤고... **Paul:** 오, 맞아요. **George:** 나도 생생하게 기억해.

● **Playboy:** 그 다음, 2차 대전 전에는 베니 굿맨, 아티 쇼와 함께 스윙재즈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생기면 춤을 춰댔죠. 그리고 지금은 당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John:** 그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 **Playboy:** 전쟁을 부추기는 짓을 했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Paul:**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고맙기 그지 없군요.

● **Playboy:** 당신들이 시대적 징후일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암류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Paul:** 자세히 따져보면 그런 비유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오늘 아침 파리 한 마리가 내 침대에 앉았는데 그때가 8시 정각이었다고, 그러니 매일 아침 8시 정각이면 파리가 내 침대에 앉아 있을 거라는 것과 비슷한 주장이죠. 어떤 일들이 동시에 몇 번 일어났다고 그 일들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게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 **Playboy:** 당신들에 대한 또 다른 소문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죠. 최근 필립 공(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부군)이 “비틀스가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보았나요? **John:** 행운을 빕니다. 공작님. **George:** 노 코멘트. 매니저랑 얘기하세요. **Paul:**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철회하지 않았나요? **John:** 맞아, 그랬다는 전보를 받았지. 끝내주는 뉴스였어. **Paul:** 그래서 우리가 답장을 보냈잖아. ‘리즈와 필’ 부부 귀하.

● **Playboy:** 여왕님을 알현한 적 있나요? **John:** 아뇨,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유일한 분이예요. 다른 분들은 모두 만나봤어요. **Paul:** 중요 인물은 모두 만나봤죠.

● **Playboy:** 윈스턴 처칠도요? **Ringo:** 아뇨, 그분은 아니고요. **John:** 그래도 그 양반, 꽤 괜찮은 사람 이야.

● **Playboy:** 만나고 싶은가요? **George:** 딱히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만나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Paul:**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전성기를 맞아 여러 일을 하며 위대해지고 있다면, 그를 만나보고 싶다고 바라게 되죠. 그런데 처칠은 정계에서 은퇴한 데다가 더 이상 하는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나봐야 그리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 **Playboy:** 만나보고 싶은 셀럽이 있나요? **Paul:**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면 정말 좋겠어요. **George:**

그랬다면 너네 집에 있는 모든 방을 새로 도배할 수 있었을 텐데.

● **Playboy:** 마거릿 공주는 어때요? **Paul:** 이미 만나봤어요.

● **Playboy:** 마음에 들던가요? **Ringo:** 그럼요. 필립 공도 마찬가지였고요.

● **Playboy:** 당신들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이후에도요? **Ringo:**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신경 안 써요. 나는 여전히 그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Paul:** 설령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어떤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 **Playboy:** 왕족 얘기를 꺼내보면... **Paul:** 왕족은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자명하게 세상 모두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Ringo:** 내가 왕족이라면... **Paul:** 내가 왕족이라면 장황한 농담을 던지며 어마어마한 웃음을 이끌어낼 거야. 내가 왕족이라면 말이야. **George:** 우리가 버킹엄 궁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왕족은 죄다 명칭해요.

● **Playboy:** 불손한 사람들인 것처럼 들리는군요. 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John:** 아뇨. **George:** 아뇨. **Paul:** 딱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John:**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너를 반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명을 해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길 거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신론자보다는 불가지론자에 더 가깝다는 건 알아요.

● **Playboy:** 그룹을 대변해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당신에게만 해당하는 말인가요? **John:** 그룹을 대변한 말이에요. **George:** 존은 종교 문제의 공식 대변인이예요. **Paul:** 우리 모두 비슷한 의견이에요. 모두 불가지론자이죠. **John:**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Ringo:**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편이 더 낫잖아요. **John:** 종교에 대해 반감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종교의 위선적 측면 때문이에요. 그런 위선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설교를 늘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디서든 몇 십억대의 예복을 입는 성직자 같은 거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어요. **Paul:** 바티칸에 청동으로 만든 새 문짝이 설치됐대. **Ringo:**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게 분명해. **Paul:**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반기독교가 아니에요. **Ringo:** 그냥 교황을 반대하고 기독교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Paul:**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George:** 미국인은 우리가 불가지론을 따른다는 말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죠. **John:** 그 사람들 정신이 나갔던 거야. 우리 얘기를 순순히 받아들이 수가 없었던 거라고.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거기 사람들도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 **Paul:** 미국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거의 광신도적이에요. 거기 사는 지인 중에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밝힌 사람이 있어요. 신문에서는 그 얘기를 지면에 실는 걸 거절했어. 무신론자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소킹한 뉴스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했어. **Ringo:** 그 사람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한 거야.

● **Playboy:**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킹할 만한 화제를 내놓을게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George:** 그래, 바로 이거야. 음, 실은 우리 모두 동성애자예요. **Ringo:** 맞아요. 우리는 모두 게이예요. **Paul:**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 **Playboy:** 진지하게 묻는 건데,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나요? **John:** 미국보다 영국에 더 많냐고 묻는 건가요?

● **Playboy:** 별다른 뜻 없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George: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머리를 크루 컷으로 짧게 하니까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니면 누가 게이이고 누가 아나지자를 분간할 수 없으니까요.

Paul: 미국에는 게이가 영국보다 백만 명쯤 더 많을 거예요. 영국에도 프리큐모 스캔들 같은 사건들은 일어나지만, 적어도 그건 이성애자가 일으킨 것들이에요. **John:** 그렇기는 해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영국의 게이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

Paul: 그건 영국 신문이 동성애를 다루는 기사를 더 많이 실으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야. **Ringo:**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조금 튀어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언론은 언제든지 그 사람에 대해 대서특필할 거야. **Paul:** 맞아. 프리큐모 스캔들을 봐. 그는 그냥 평범한...

Ringo: 호색한이지. **Paul:** ...여자들이랑 잔 평범한 사내였어. 법의 시각에서 보면 간통을 저지른 것뿐인데, 국제적 스캔들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실제 통계를 확인해봐. 철저히 부인에게 충실했던 유부남은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John:** 내겐 언제나 내 아내밖에 없어! 잘 들어, 비틀 피플...

Paul: 그래, 우리 모두 존은 흡연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잖아. 그런데 신문에 그런 문제가 실리면, 모두들 자기가 대단히, 아주 대단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굴지. 섹스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척해대고. **George:** 난데없이 모두들 한없이 고결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지. **Paul:** 맞아, 가엾게도 재수 없는 몇몇 사람들만 몰매를 얻어맞고 말아야. 그런데 사실 평범한 영국인에게 프리큐모 스캔들에 대해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 사람, 어린 여자 몇 명 해치웠던 거잖소. 그게 뭐 어쩔다는 거요?”

● **Playboy:** 그런데 당신들은 크리스틴 킬러의 친구, 맨디 라이스-데이비스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George:** 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 **Playboy:** 그녀가 당신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John:** 크리스틴 킬러를 만난 적은 있어요. **Ringo:**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말해줄게요.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맞다, 에이프릴 애슐리를 만난 적 있어요. **John:** 나도 며칠 전 밤에 그 여자 만났어.

● **Playboy:** 남자였다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귀족이랑 결혼한 여자 아닌가요? **John:** 맞아요, 그 사람.

Ringo: 이봐, 그 여자가 나한테 욕을 했어. 술 깨고 나서야 사과를 하더라고. **John:** 사실 난 그 여자 꽤 좋아해. 아니, 그 남자인가? 그 사람? **Paul:** “프리큐모는 정치적 상황의 희생자일 뿐이다”라거나 “에이프릴 애슐리는 성전환을 한 여자이지만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칠 때 따르는 곤란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충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면 실생활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리 소킹한 주제가 아니죠. 그런 얘기를

종교에 대해 반감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종교의 위선적 측면 때문이에요. 그런 위선은 건달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설교를 늘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디서든 몇 십억대의 예복을 입는 성직자 같은 거요.
-John

입 밖으로 내는 게 실제보다 훨씬 쇼킹하게 들릴 뿐이죠. **Ringo:** 어느 날 밤에 ‘애드립’에서 자다가 큰 지막한 핸드백이 배를 때리는 바람에 깬어. 내 지인이 한 짓이라고만 생각했지. 안경을 안 끼고 있어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안녕” 하고 인사했더니, 덩치 큰 노동자 한 명이 “야아아아” 하고 과성을 지르는 거야. 곧바로 화장실로 도망갔어. 그런 비슷한 사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

● **Playboy:**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George:** 기자님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 **Playboy:** 당신은 알아요? **George:** 하나도 모르겠어요.

● **Playboy:** 링고, 힌트 좀 줄래요? 이를테면, ‘애드립’이 뭔가요? **Ringo:** 클럽 이름이요. **George:** 뉴욕에 있는 ‘페퍼민트 라운지’랑 LA에 있는 ‘위스키 어 고고’랑 비슷한 곳이에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Paul:** 아냐, 영국 버전은 조금 달라. **John:** ‘위

스키 어 고고’는 정확하게 똑같아. 그렇지? 욕상에서 춤추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야. 그렇지? **George:**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곳은 욕상에서 춤추는 사람이 여자 두 명이고, ‘애드립’은 흑인 남자 한 명이야. 그게 다른 점이지.

● **Playboy:** 당신들 중 클럽 오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루머를 들었어요. **John:** 누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궁금한걸. 링고. **Ringo:**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런 루머가 있는 건 맞아. 나도 들었어.

● **Playboy:**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Ringo:** 음, 그래요. 우리는 할리우드에 클럽을 하나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죠. **John:** 디노는 네가 그곳을 넘겨받게 놔두지 않았을 거야.

Ringo: 그랬겠지. **Paul:** 그리고 우리는 클럽을 여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섯 달간 꼼짝 않고 버티기로 결정하고는 그 다음에 사들인 게... **George:** 미국이었지.

● **Playboy:** 런던에도 플레이보이 클럽이 개장한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Ringo:** 예, 들었어요.

● **Playboy:** 우리의 클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Ringo:** 거기는 추잡한 노인네들을 위한 곳이지. 우리 같은 추잡한 젊은 놈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요. 마님 모르게 집에서 슬쩍 빠져나온 비즈니스맨을 위한, 혹은 마님이 선수를 치고 집을 먼저 빠져나간 비즈니스맨을 위한 곳이지. 대놓고 집 밖으로 나도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요. **George:** 버니의 폭신한 꼬리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

● **Playboy:** 그렇다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우리의 클럽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George: 오, 아니에요. 당연히 성공할 거예요.

Ringo: 여기에는 추잡한 노인네들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 **Playboy:** 〈플레이보이〉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John: 있어요. **George:** 나도요. **Ringo:** 나는 매달 사서 읽고 있어요. 끝내주는 책이잖아.

● **Playboy:** ‘플레이보이 철학’을 읽어본 사람은 있나요? **Paul:** 조금 읽어봤어요. 기나긴 투어를 떠났다가 사전만 보는 것도 지겨워질 때는 글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괜찮더라고요.

● **Playboy:** 〈플레이보이〉의 재즈 투표(Jazz Poll)는 어때요? 그 부분도 읽나요? **John:** 가끔은요.

● **Playboy:** 재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George:** 어떤 재즈요?

● **Playboy:** 아메리칸 재즈요. **John:** 예를 들면, 어떤 뮤지션의 재즈요?

● **Playboy:** 그럼 좋아하는 뮤지션을 말해주세요. **Paul:**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뮤지션만 좋아해요.

(뒷이야기는 www.playboykorea.com에서 이어집니다.)

PLAY MARKET

〈플레이보이〉의 시선을 잡아끈 3월의 뉴스.



1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 8 B01' 브라이틀링이 1930~40년대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내비타이머 8 컬렉션을 출시했다. 클래식과 빈티지를 접목한 다이얼이 눈길을 끌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방수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스틸과 18K 레드 골드로 선보이는 이번 모델은 봄을 맞아 새 출발을 기약하는 세련된 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 02-3279-9000 🌐 www.breitling.com **2 로저 드뷔, 모터스포츠 정신 담은 컬렉션** 고급 시계 제조 분야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로저 드뷔가 엑스칼리버 컬렉션 신제품 4종을 공개했다. 유명 스포츠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와 이탈리아 고급 타이어 브랜드 피렐리에서 영감을 받아 로저 드뷔의 상징적인 엑스칼리버 컬렉션을 컬러풀하게 재해석한 아이템. 세 브랜드가 공유하는 끊임없는 투지와 혁신적인 모험정신을 담았다. ☎ 02-2118-6026 🌐 www.rogerdubuis.com **3 오리스, '아쿠스 데이트'**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오리스가 스타일리시한 고성능 다이버 시계 아쿠스 시리즈를 소개했다. 기존 디자인에 새로운 해석을 가미한 아쿠스 시리즈는 최상의 성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패셔너블한 액세서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오리스의 신제품 아쿠스 데이트는 깊은 바다 속이나 육지에서 모두 다이버에게 자신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 02-790-6672 🌐 www.oris.ch **4 몽블랑, 화이트데이를 위한 '보웬 데이트 오토매틱' 워치** 몽블랑이 화이트데이 선물로 인기 컬렉션인 보웬 데이트 오토매틱을 추천한다. 자개 소재로 장식한 기요세 패턴 다이얼 위에 잎사귀 모양의 시침과 분침, 꽃무늬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곡선의 숫자가 우아한 조화를 이룬다. 이 모델은 몽블랑에서 처음 선보인 28mm 사이즈로 손목이 가는 여성도 무리 없이 착용 가능하다. 또한 18K 레드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두 종류를 선보여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 1670-4810 🌐 www.montblanc.com



1 겐조 옴즈, 컬러 블록 재킷 혁신적 아이디어와 독특한 디자인으로 트렌드를 이끄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 겐조 옴즈에서 컬러 블록 재킷을 선보였다. 베이지, 네이비, 그린의 감각적인 컬러 배색이 인상적이며 플 래그 패치워크로 위트를 더했다. 허리 부분 스트링 디테일로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 080-759-2500 ● www.kenzo.com **2 보테가 베네타, 아트 오브 컬래버레이션** 보테가 베네타가 S/S 시즌에 맞춰 디지털 광고 캠페인 리플렉션을 진행한다. 파비앙 바론 감독의 영화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개성 있는 6개 필름은 다양한 플랫폼과 매체를 통해 시즌 내내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신비, 세련된 아름다움, 건축미, 관능, 초현실주의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풀어냈다. ☎ 02-3438-7690 ● www.bottegaveneta.com **3 타사키, 불을 맞는 피아노 링** 따뜻한 불을 맞아 타사키가 피아노 링을 출시했다. 우아한 핑크 컬러의 18K 사쿠라 골드 소재로 제작한 이 아이템은 많은 음색을 자아내는 피아노 선율을 모티프로 했다.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은 섬세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동시에 자아내 며, 얇은 밴드와 가벼워진 중량감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 02-3461-5558 ● www.tasaki.co.kr **4 디올 옴즈, 캐주얼한 매력 더한 데님 컬렉션** 봄 시즌을 맞아 디올 옴즈는 수트를 캐주얼하게 재해 석한 크리스반 아셰의 디올 데님 컬렉션을 선보인다. 정교하게 제작한 라인에 올스킨 칼라, 메탈 프레스 버튼같이 화려한 디테일을 더해 진을 럭셔리한 스타일로 업그레이드했다. ☎ 02-3480-0104 ● www.dior.com **5 구찌, 복스 포트폴리오** 서재에 비치된 가족 고서에서 영감을 받은 구찌 복스 포트폴리오가 나왔다. 부드러운 가죽에 별 문양과 구찌 로고가 골드 컬러로 프린트된 디테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코디 언 모양의 형태로 넓은 수납이 가능하며, 플랩 부분의 클로저는 빈티지한 실버 장식과 열쇠로 장식했다. ☎ 1577-1921 ● www.gucci.com



1 씨케이 원, '모두를 위한 하나' 캠페인 남녀 모두를 위한 향수를 제안하는 씨케이 원이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 향수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펼친다. 서로 다른 인종과 나이, 성별의 모델들이 모여 통합과 자유를 추구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말한다. ☎ 080-850-0708 🌐 www.calvinklein.com **2 산타마리아 노벨라, 봄을 담은 보디 워시**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향기로운 봄에 쓰기 좋은 보디 워시 '바노쉬우마 컬렉션'을 추천한다. 엄선한 식물 추출물이 피부 보호막 형성에 도움을 주며, 부드러운 비누 거품이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준다. 다섯 가지 종류로 출시돼 향과 효능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 02-546-1612 🌐 www.sivillage.com **3 시어로 코스메틱, 환절기용 '두 카인드 클렌징 샴베트'** 시어로 코스메틱에서 예민한 환절기 피부를 위한 클렌징 제품으로 '두 카인드 클렌징 샴베트'를 추천한다. 진한 메이크업부터 블랙 헤드까지 말끔히 씻어내주고 식물성 오일을 함유해 염기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칼라민 핑크 파우더를 함유해 피부 진정 효과도 뛰어나다. ☎ 080-020-5393 🌐 www.sierocosmetic.com **4 모스키노, 여성용 향수 '모스키노 프레스쉬 핑크'** 모스키노가 여성을 위한 달콤한 선물로 '프레스쉬 핑크'를 제안한다. 와일드 로즈, 핑크 히아신스의 플로럴 향과 상큼한 석류 향이 부드러운 조화를 이룬다. ☎ 02-3453-7577 🌐 www.moschino.com **5 바이레도, '핸드 스크럽 컬렉션'**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에서 최초로 고유의 향을 입힌 핸드케어 제품을 출시했다. 로즈, 스위트, 베티버 3가지 향에 오일 베이스의 솔트 성분을 첨가해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촉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 02-3479-1688 🌐 www.byredo.com



1 BMW, 쿠페형 뉴 X2 BMW가 X 시리즈의 쿠페 모델인 '뉴 X2'를 공개한다. 기존의 강인한 디자인에 쿠페의 우아한 매력을 더했으며, 브랜드 고유의 키드니 그릴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로 새롭게 변화했다. M 스포츠 서스펜션을 장착해 민첩하고 강력한 주행 성능 또한 보장한다. 4월 국내 출시 예정. ☎ 02-3441-7800 🌐 www.bmw.co.kr **2 삼성전자, '갤럭시 온7 프라임'** 삼성전자가 갤럭시 7의 후속작인 '갤럭시 온7 프라임'을 국내 출시했다. 전·후면에 13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해 촬영 기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 138.8mm의 대화면, 8mm의 두께를 갖춘 슬림한 디자인은 메탈 소재로 제작해 더욱 고급스럽다. 골드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 02-2255-0114 🌐 www.samsung.com **3 브라바도, 롤링 스톤스 그림톡 유니버설뮤직의 머천다이즈** 브랜드인 브라바도에서 롤링 스톤스의 헛바닥 로고를 활용한 그림톡을 선보인다.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의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하면 여러 모바일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3월부터 한정 수량 판매 예정. ☎ 02-6274-5321 🌐 www.bravado.co.kr **4 벤타, 강력한 정화 기능 갖춘 공기청정기** 집 안 미세먼지가 고민이라면, 벤타의 공기청정기 'LP60'을 주목할 것. 좌우에 장착된 3중 필터가 더욱 강력하게 공기를 정화하며, 특히 가운뎃 필터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한 기술을 바탕으로 0.07μm 크기의 초미세미립자까지 포집한다. ☎ 02-2034-0114 🌐 www.venta.co.kr



CHICAGO
1967

페인트로 장난치는 버니들.